

신남방정책 이행 위한 우리나라-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Fisheries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New South Policy

2018. 12.

정명화 | 안지은 | 홍혜수 | 오서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안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홍혜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오서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정명화 연구총괄, 제1장, 제5장

연구진

홍혜수 제2장
안지은 제3장
오서연 제4장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목차

❖ 요약 · i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추진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분석	8
1. 선행연구 분석	8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12

제 2 장 베트남 수산식품·가공 산업 현황과 전망 · 13

제1절 베트남 수산업 개발 현황	13
1. 수산업 개요	13
2. 수산업 생산	17
3. 수산물 교역 및 유통	20
4. 수산물 가공 및 식품	27
제2절 베트남 수산업 개발 정책과 개발 수요	30
1. 수산업 발전 전략 및 비전(2020~2030)	30
2. 수산업 개발 수요	34
제3절 특징 및 시사점	35

제 3 장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산분야 협력 현황 및 과제 · 39

제1절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산분야 경제협력	39
1.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 현황	39
2. 한-베트남 수산분야 투자 현황 및 제도	44
제2절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56
1. 한-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	56
2. 한-베트남 수산 개발협력 사업	62
제3절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산 협력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	65
1. 조사개요	66
2. 조사내용	67
제4절 시사점	85

제 4 장 주요국의 對베트남 수산부문 진출 전략과 시사점 · 89

제1절 노르웨이의 對베트남 진출 전략	89
1. 노르웨이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89
2. 노르웨이의 對베트남 협력 전략	91
3. 對베트남 진출 사례	97
제2절 호주의 對베트남 진출 전략	101
1. 호주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101
2. 호주의 對베트남 협력 전략	102
3. 對베트남 진출 사례	107
제3절 시사점	109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13

제1절 요약 및 결론	113
제2절 정책 제언	116
1.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	116
2. 정책 제언	119



참고문헌 · 129



부록 · 137

1. 신남방정책과 수산식품 가공·수출입 업계 대응 설문조사 138
 2. 베트남 「수산업 발전 전략 및 비전(2020~2030)」 147
-

표 목차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10
〈표 2-1〉 베트남 농림·수산업 GDP(2010~2016)	15
〈표 2-2〉 연간 노동인구 및 비중(2010~2016, 15세 이상)	16
〈표 2-3〉 수산업 생산량 및 비중(2010~2016)	17
〈표 2-4〉 잡는 어업 생산량 및 비중(2010~2016)	18
〈표 2-5〉 양식업 생산량 및 비중(2010~2016)	19
〈표 2-6〉 수산물 교역 동향(2010~2016)	20
〈표 2-7〉 베트남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5)	22
〈표 2-8〉 베트남 품목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5)	22
〈표 2-9〉 주요 수출국 동향(2014~2017)	23
〈표 2-10〉 2017년 상위 15개 품목 수출 현황	24
〈표 2-11〉 베트남 내수용 수산물 가공식품 생산 현황	28
〈표 2-12〉 베트남 내수용 수산물 가공식품 생산 주체 현황	29
〈표 3-1〉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규모	40
〈표 3-2〉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규모	40
〈표 3-3〉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량	41
〈표 3-4〉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량	42
〈표 3-5〉 한-베트남 품목별 수산물 수출액	43
〈표 3-6〉 한-베트남 품목별 수산물 수입액	44
〈표 3-7〉 베트남 FDI 추이(2012~2017)	45
〈표 3-8〉 상위 10개국 베트남 FDI 현황(1998~2017 누적 기준)	46
〈표 3-9〉 상위 10개 분야 베트남 FDI 현황(1998~2017 누적 기준)	47
〈표 3-10〉 베트남 기업경영여건 순위(2018)	48
〈표 3-11〉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추이(2016/2017 비교)	51

〈표 3-12〉 국가별, 업종별 원양어업 관련 사업체 현황(2017)	52
〈표 3-13〉 베트남 투자법 제16조(투자우대 산업)	54
〈표 3-14〉 베트남 조건부 외국인 투자허용 산업 목록-수산관련	55
〈표 3-15〉 對베트남 주요 공여국 지원 실적	57
〈표 3-16〉 베트남 주요 공여국 지원 실적(1994~2017년)	64
〈표 3-17〉 조사 설계	66
〈표 4-1〉 노르웨이-베트남 양자협력 현황	90
〈표 4-2〉 노르웨이의 對베트남 수산ODA 사업 현황	93
〈표 4-3〉 노르웨이의 對베트남 수산 투자 유망 분야 선정	96
〈표 4-4〉 베트남 주요 진출 기업 현황	97
〈표 4-5〉 호주-베트남 양자 협력 현황	101
〈표 4-6〉 호주의 對베트남 수산ODA 사업 현황	104
〈표 5-1〉 對베트남 「양식어업 개발협력 사업(안)」 예시	121
〈표 5-2〉 對베트남 「수산가공 개발협력 사업(안)」 예시	123
〈표 5-3〉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 개정안	128

그림 목차

❖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6
〈그림 2-1〉 베트남 지역별 주요 수산물 생산지	14
〈그림 2-2〉 베트남 새우 유통 흐름	25
〈그림 2-3〉 베트남 참치 유통 흐름	26
〈그림 2-4〉 베트남 수산물 유통 현장	27
〈그림 2-5〉 베트남 수산업 발전 전략 및 비전(2030)	33
〈그림 3-1〉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액(2013~2017년)	41
〈그림 3-2〉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량 현황	42
〈그림 3-3〉 베트남 FDI 현황	45
〈그림 3-4〉 일본 외국투자 기업의 향후 경영 계획 설문조사 결과(2016)	49
〈그림 3-5〉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외국인직접 투자규모 및 비중	50
〈그림 3-6〉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ODA 현황(2016)	56
〈그림 3-7〉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ODA 규모 추이	58
〈그림 3-8〉 수산분야별 ODA 사업 비중(2016)	58
〈그림 3-9〉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산분야 ODA 현황(2006~2016)	59
〈그림 3-10〉 우리나라의 아시아 주요국별 수산분야 ODA 사업 비중	60
〈그림 3-11〉 베트남의 수산분야 ODA 사업 추이	61
〈그림 3-12〉 베트남 수산 분야별 ODA 사업 비중(2016)	61
〈그림 3-13〉 분야별 베트남 ODA 사업 비중 비교(2006~2016)	63
〈그림 3-14〉 분야별 베트남 ODA 사업 비중 추이	63
〈그림 3-15〉 응답 업체 유형	67
〈그림 3-16〉 응답 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	68
〈그림 3-17〉 응답 업체의 평균 매출액	68
〈그림 3-18〉 응답 업체의 베트남 교역 여부와 교역관계	69

〈그림 3-19〉 베트남 수출업체의 주요 수출 품목	70
〈그림 3-20〉 신남방정책 인지 및 정보 소유 여부	71
〈그림 3-21〉 신남방정책 추진 정보 습득 경로	71
〈그림 3-22〉 베트남 정부의 수산 가공분야 경제협력 수요 인지 여부	72
〈그림 3-23〉 베트남과 수산식품·가공분야 개발협력 필요도	72
〈그림 3-24〉 신남방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영향	73
〈그림 3-25〉 신남방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긍정적 요인	74
〈그림 3-26〉 對베트남 수산물 수출 시 겪는 어려움	75
〈그림 3-27〉 對베트남 수산물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 필요성 ..	75
〈그림 3-28〉 對베트남 개발협력이 필요한 분야	76
〈그림 3-29〉 베트남 개발협력 분야 - 수산가공인프라	77
〈그림 3-30〉 베트남 개발협력 분야 - 양식어업	77
〈그림 3-31〉 베트남 개발협력 분야 - 수산행정	78
〈그림 3-32〉 베트남 개발협력 분야 - 수산교육	79
〈그림 3-33〉 베트남 개발협력 분야 - 어선어업	79
〈그림 3-34〉 신남방정책에 따른 베트남 수산물 수출 시 예상되는 영향	80
〈그림 3-35〉 신남방정책에 따른 베트남 수산물 수출 시 예상되는 혜택	80
〈그림 3-36〉 베트남 수산분야 발전 가능성	81
〈그림 3-37〉 향후 베트남 수산물 교역 확대 및 신규 진출, 투자확대 계획	82
〈그림 3-38〉 향후 베트남 수산분야 투자분야 및 투자형태	83
〈그림 3-39〉 베트남 수산분야 유망 투자분야	83
〈그림 3-40〉 향후 베트남 수산분야 신규 투자 및 투자확대 이유	84
〈그림 3-41〉 베트남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85
〈그림 4-1〉 노르웨이-베트남 교역 현황	95
〈그림 4-2〉 노르웨이 ODA 사업과 베트남 진출 기업의 상관성	99
〈그림 4-3〉 호주-베트남 교역 현황	106
〈그림 5-1〉 對베트남 「양식어업 개발협력 사업(안)」	121
〈그림 5-2〉 對베트남 「수산가공 개발협력 사업(안)」	124
〈그림 5-3〉 KOICA CTS 프로그램	125

신남방정책 이행 위한 우리나라-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2017년 11월 정부의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한-베트남간 상생형 산업협력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베트남 정부의 수산식품·가공업 부문에 대한 협력 강화 요청이 있었던 만큼 동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협력 수요 발굴 및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의 수산업 개발 정책에 기초한 수산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산분야 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베트남 농림수산업은 GDP의 16.3%, 경제활동인구의 49.5%를 차지하며 베트남 주요산업에 위치해 있다. 또한 연평균 7.4%대 높은 성장률과 전체의 85%에 달하는 수출중심의 수산물 교역구조로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등 베트남 경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하고 있다. 베트남 수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유통·가공 부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통주체 간 협력 부족에 따른 생산-유통 과정의 비효율성과 수산식품 가공업체 영세성으로 인한 가공기술개발 및 위생관리, 비관세 장벽 대응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수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국의 수산업을 주요 수출 대표 산업(leading commodity)으로 발전시키고자 '2030 마스터 플랜(2013)'과 '실행계획(2014)'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의 어업생산량을 2030년까지 900만 톤으로 증산하고, 양식어업 비중 70.0%로 확대, 수산물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 어업 숙련 노동자 비중 8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동 계획은 베트남의 자체적인 역량 부족 등으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발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르웨이와 호주 등 주요 수산강국은 베트남 수산분야 진출에 있어 개발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경제협력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의 경우, 베트남과의 양자협약을 통해 양식업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시에 해외진출 전담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를 통해 기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호주는 베트남과 전략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다년간의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이와 동시에 '호주무역대표부'를 통해 기업의 무역·투자 촉진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수산물 무역구조는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산물 수입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양국 간 무역균형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경제·개발협력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수산부문의 투자·협력 규모는 각각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한-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일회성·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향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수산물 수출업계와 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은 반면 대베트남 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영향,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협력이 가장 시

급한 분야로는 ‘수산가공 및 물류·유통’으로 나타났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투자정보’ 및 ‘민관차원 협력사업 확대’ 등 베트남 현지 기업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으로는 수산가공 분야와 양식어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베트남 수산가공산업이 가지는 취약점과 우리나라 수산업에 있어서의 강점,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수산정책 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결과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 사업 추진과 이를 통한 경제협력 기반 마련 및 대베트남 진출·투자 확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사업 발굴과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가 필요하다.

‘대 베트남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수산가공산업의 원료 수급 안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1단계 거버넌스 구축, 2단계 IUU-Free 수산가공산업 기반조성(민간참여형), 3단계 수산가공 첨단기술 활용기반 마련, 4단계 민간협력 단계로 구성하였다. 이때, 기존 개발협력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창의적·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수산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대 베트남 수산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혁신 개발사업(FITS: Fishery Innovation Technology Support)’을 발굴한다. 또한 향후 우리 수산기업의 대베트남 진출 본격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해외어업 개발을 위한 투자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하여 수산 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베트남 정부와 우리 수산업계의 개발협력 수요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 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향후 한-베트남 수산분야 협력강화와 민간 투자·진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기존 미국, 중국, 일본에 집중되었던 우리나라의 수산 교역·투자를 베트남과 아세안 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수산분야 현황 파악을 통한 개발협력 방안 모색 필요

■ 베트남 수산업, 성장세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높은 기여

- 2016년 기준, 베트남 농림수산업은 국내총생산의 16.3%, 15세 이상 노동인구의 49.5%를 차지하며 베트남 경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함
 - 베트남 수산업(잡는어업+양식업) 생산량은 2010년 514만 톤에서 2016년 687만 톤으로 연평균 4.9% 성장함
 - 2016년 기준 잡는어업은 323만 톤으로 전체 수산업 생산량의 47.0%를 차지하며, 양식업은 365만 톤으로 수산업 생산량의 53.0%를 차지하며 잡는어업 생산량을 상회함
- 2016년 수산물 교역규모는 86억 달러로 2010년 이후 연평균 7.4% 증가하였으며, 교역의 85%가 '수출'이 차지하고 있어 수출중심의 교역 구조를 보임
 - 수산물 수출액은 2010년 51억 달러에서 2016년 73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수산물 수입액은 2010년 5억 달러에서 2016년 13억 달러로 연평균 17.1% 증가함
 -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1차 가공 수산물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원재료 수급을 위한 원물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 2015년 기준 수산물 수출 대상국 중 3위, 수입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함

■ 베트남 수산유통과 가공 전반에서 다양한 취약점을 내포

- 베트남 주요 생식품목은 유통과정에서 다양한 개선사항이 나타남
 - 특히 수산물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의 유통과정에서 유통주체간 연계부족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남

- 새우는 어병 관리 기술 부족, 안정적 생산량 확보의 어려움, 공급망의 수직계열화 부족, 관계자 간 협력부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투자의 부족이 취약점으로 대두됨
- 참치는 수산자원에 관한 과학적 정보 부족, 생산이력 추적 가능성의 부재, 낙후된 보관기술, 수출 시장의 높은 식품안전 기준, 관계자 간 협력부족,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보존조치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 주요 선진국의 식품 위생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베트남 수산물 수출 규모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대응이 요구됨
 - 수산물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영세한 가내 수공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높아지는 수산물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어려움

■ 베트남 정부, 2030년까지 수산업 발전전략 수립

-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 자국 수산업 현대화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 및 해양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함
 - 수산업 현대화 및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수산업 생산량을 900만 톤까지 증산하며, 양식업의 비중을 70%까지 확대하고자 함
 - 베트남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수산물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함
 - 어촌 생활수준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수산업 종사자 중 훈련된 종사자의 비율을 80%까지 확대시키고자 함
- 수산업 현황 및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베트남 수산업 개발 수요를 도출한 결과, 수산물 가공기술 및 위생개선과 수산업 이해관계자 협력관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

- 베트남 정부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30 전략을 통해 어업인 협동조합 구성 등을 논의함
- 향후 베트남과의 장기적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베트남 수산업 현황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국내 수산식품·가공분야, 對베트남 개발협력 수요 타당성 높게 평가

-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 지속 증가, 양국 간 무역균형 유지 노력 필요
 - 양국 간 수산물 무역규모는 지속 증가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심화되고 있음
 - 2017년 기준,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액은 8.6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0%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교역량은 총 20만 톤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6%의 증가세를 보임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물 수출대비 수입비중이 전체의 약 88.0%에 달해 심각한 수입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 2017년 기준 대베트남 수출액 1.1억 달러, 수입액 7.5억 달러로 나타남
 - 양국 주요 수산물 교역품목은 참지와 새우 등 특정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임
 - 2017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은 참치로 전체의 30.2%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새우살(25.8%)과 새우(21.1%)가 전체의 약 5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베트남 외국인 투자 지속 확대, 수산부문 투자 실적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

- 베트남의 투자환경 및 기업경영 여건에 대한 국제사회 긍정적 평가 영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베트남 FDI 규모는 총 371억 달러, 2,741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음
 - World Bank의 2018년 기업경영여건 순위도 2014년 99위에서 2018년 68위로 대폭 상승하였음
 -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규모도 2017년 기준 19.5억 달러, 전체 4.5%로 지속 증가세 있음
- 베트남 FDI에서 가장 높은 투자분야는 제조업(58.4%)으로 나타났으며, 수산부문은 전체의 1.0% 미만에 그침
 - 2017년 누적 기준, 베트남의 농림수산부문 FDI 규모는 전체의 1.1%인 35.2억 달러에 그침
 -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에서도 어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 외 수산분야* 투자규모도 약 0.9%에 불과한 1,732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어업 외 수산분야: 제조업 내 '수산물 냉동식품 제조업', '배합사료 제조업', '어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및 도소매업 내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 한-베트남 개발협력, 일회성·단발성 사업 추진으로 향후 개선 필요

-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등과 함께 베트남 주요 공여국으로, 2006년 이후 대베트남 ODA 규모는 증가한 반면 비중은 크게 감소함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베트남 ODA 규모는 1.9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5% 증가한 반면, ODA 비중은 6.8%로 2007년 22.3% 대비 크게 감소함

- 어업분야 ODA 규모는 전체 어업분야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사업도 단기초청연수 및 기술교육 등 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베트남 어업분야 ODA 규모는 2016년 기준 7만 달러 규모로 2007년 20.0%에서 최근 1.0%대로 감소함

■ 국내 수산식품·가공 업계, ‘신남방정책’을 통한 對베트남 개발협력 필요성에 크게 공감

- 국내 수산식품·가공 수출업계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반면, 대베트남 협력수요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수산물 수출입 업체의 경우 ‘신남방정책’ 및 베트남 정부의 수산부문 협력 수요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반면, ‘신남방정책’을 통한 베트남 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영향,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베트남 개발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수산가공 및 물류·유통’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현지 기업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인 것으로 분석됨
 - 대베트남 개발협력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야는 ‘수산가공인프라’, 가장 유망한 분야는 ‘수산물류 및 유통’으로 나타남
 - 대베트남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베트남 투자정보’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차원의 협력사업 확대’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수산강국, 對베트남 진출 위해 개발협력 사업을 경제협력 촉진제로 활용

■ 노르웨이, 개발협력을 기업의 베트남 진출의 시험대로 활용

- 노르웨이는 노르웨이개발청(NORAD)을 통해 수산분야에 특화된 사업인 ‘개발을 위한 수산업(FfD)’을 적극 추진함
 - 수교 이후 개발협력에 관한 양자협정을 맺고 대베트남 개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대베트남 개발협력 사업은 수산개발, 수산정책, 수산연구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잠재력이 높은 베트남 양식부문에 사업이 집중됨
 - 주로 어류양식장과 관련된, 종묘, 사료, 질병관리와 같은 양식 기반구축에 관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됨.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 진출한 노르웨이 기업이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타당성 및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함
 - 노르웨이 기업의 실질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해외진출 전담기관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는 베트남의 수산업을 투자 유망분야로 선정함
 - 즉, 노르웨이는 개발협력과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를 통해 기업이 사전에 베트남 시장 특성을 파악하여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만들어 투자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음

■ 호주, 경제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추진

- 호주는 베트남과 전략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개발 및 경제 협력을 촉진함

- 대베트남 수산부문 개발협력 사업은 호주국제농업연구센터 (ACIAR)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주로 베트남 양식어업과 관련된 연구, 정책, 개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베트남 ODA 사업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연속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여 경제협력 기반 구축에 활용함
- 실질적인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호주무역대표부 (Austrade)는 해외 유망투자 분야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음
- 이와 같이 호주는 베트남을 전략 국가로 보고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신남방정책 활용, 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고도화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 신남방정책 활용, 베트남 진출은 수산분야 수출 시장 다양화와 기업 진출 확대가 목표
 - 대베트남 수산기업 진출은 합작 투자에서 현지 생산 공장 설립으로 발전하는 방안이 이상적이지만 수산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 우선 베트남과 교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애로 사항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 이후 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ODA)을 실시하면서 민간 기업이 참여토록 하고, 동시에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산 스타트업기업, 청년 기업의 창업 지원을 활성화시킴

-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개발협력 사업으로는 ‘수산가공 인프라 구축’과 ‘양식어업’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됨
 - 수산가공 분야의 협력 사업(안)으로는 ‘수산가공기술 역량 강화(안)’, ‘베트남 수산가공시설 및 인프라 구축 사업(안)’, ‘베트남 수산가공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안)’임
 - 양식어업 분야 협력 사업(안)으로는 ‘베트남 천해양식 품목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양식어업의 어병 통제를 위한 수산교육 프로그램 개발’, ‘양식수산물 유통·가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함

- 신남방정책 뒷받침할 개발협력 사업,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 접근 필요
 - 개발협력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속적으로 후속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사업 내용을 심화시켜야 함
 -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의 목표를 우리나라 수산기업의 대베트남 진출 지원 도모로 설정함
 - 개발협력 사업을 기초로 하여 국내 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상호 윈윈전략 구사함

- 對베트남 수산분야 민간 참여 통한 개발협력 사업의 고도화 추진
 - ‘수산가공’은 베트남 수산가공산업의 원료 공급 안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1단계 거버넌스 구축, 2단계 IUU-Free 수산가공산업 기반조성(민간참여형), 3단계 수산가공 첨단기술 활용 기반 마련, 4단계 민간 협력 단계로 구성함

- 2단계는 베트남의 IUU 어업 근절에 대한 높은 협력 수요와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민간 진출이 가장 유력한 분야임
 - 우리나라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기반 IUU어업-Free 수산물을 확인하고 해당 생산된 수산물을 수산 가공공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시범 사업화함
- 3단계는 수산가공산업의 ICT 기반 이력추적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함
 - 이력추적제는 베트남의 주요 생산어업인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해면어업으로 점진적으로 적용함
 - 대상 품목은 5개 어종(양식어업의 흰다리새우와 타이거새우, 내수면어업의 메기, 해면어업의 참치와 꽃게)을 우선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를 연차별로 실시함

■ 수산 스타트업 기업 위한 혁신 개발협력 사업(FITS) 발굴

- ‘대베트남 수산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혁신 개발협력 사업(FITS: Fishery Innovation Technology Support)’은 기존 개발협력 사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 방법을 모색하고, 수산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임
 - 베트남의 수산가공산업과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식생물의 어병 관리, 원료 확보를 위한 수산자원관리에 있어 기존 해결 방법이 아닌 창의적이고 혁신적 방법 모색 필요
 - 혁신개발사업이 기존 EDCF 또는 ODA 사업보다 적은 규모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장점 지님

- 해양수산부가 주관 부서가 되고 KMI의 ‘해양수산 ODA 센터(안)’가 추진 주체가 됨
 - 이미 KOICA에서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을 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하고 있으나 중점 사업분야가 보건, 교육, IT, 환경 등임
 - FITS의 주요 사업으로는 기술개발사업, 현지 적용사업, 실용화 사업임
 - 실용화 사업은 현지 기업 또는 현지 파트너와의 공동 창업, 현지인의 고용 등을 통해 사업 기간 중 현지에 해당 제품이나 기술이 적용되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수산 기업의 ‘해외어업 개발을 위한 투자 인프라 구축 사업’ 마련

- ‘해외어업 개발을 위한 투자 인프라 구축 사업’의 목표는 베트남과 교역 또는 향후 진출을 계획하는 수산 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임
- 사업의 목적은 투자 대상국에 대한 정보 제공, 컨설팅, 현지 실무교육 등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외어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해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됨
 - 첫째, 해외어업개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한 민관 공동 어업투자환경조사 실시
 - 둘째, 진출 사업의 원활한 정착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 셋째, 해외 진출 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임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을 시작으로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제대국에 집중되어 있던 우리 정부의 외교·경제영역을 다변화하고 아세안·인도 등 신흥국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2017. 11)에서 최초로 신남방정책을 선언하고 아세안·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후 신남방정책은 한-베트남 정상회담(2018.03)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양국 정상은 아세안 핵심 파트너로서의 협력관계 발전에 합의하고 교역규모 확대 및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협력에 합의한 ‘한

-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양국은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한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교역 확대 및 상생형 산업협력 추진 등 신남방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한-베트남 핵심 협력과제 도출을 위한 집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양국은 산업부문 MOU 6건을 체결하였으며, 이 중 농수산물·가공업 부문에 대한 협력도 포함되었다.¹⁾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해 산업통상부는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한-베트남 FTA 공동위원회」 등을 개최, 실물 경제 제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의 수산업을 주요 수출 대표 산업(leading commodity)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30 마스터 플랜(2013)과 실행계획(2014)을 수립하였다.²⁾ 동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의 어업생산량을 2020년까지 700만 톤, 2030년까지 900만 톤으로 증산하고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양식어업의 비중도 7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0~2030년 수산물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과 어업 숙련 노동자 비중을 2020년 50.0%에서 2030년 80.0%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베트남의 자체적인 역량 부족 등으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발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베트남의 수산물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수지 적자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15년 체결한 한-베트남 FTA 관세 양허일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베트남 수산물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한-베트남 수산물 무역 수지 적자는 더욱 악화

1) 연합뉴스, 「[전문]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검색일: 2018. 7. 5.)

2) 이하의 내용은 HONG THI KHANH NGUYEN, PHAN THI THU HIEN, TRAN THI NANG THU AND PHILIPPE LEBAILLY(2016), p. 16 참고하여 저자 번역 인용한 것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교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기업 투자는 2004년 이후 24%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상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소규모 수준에 그치고 있다.³⁾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물 무역수지 악화와 미흡한 투자 등을 개선하고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수산분야 협력 과제 도출을 위한 선제적 검토와 방향 제시가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⁴⁾(KMI, 2016), 우리 수산물 수출 기업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을 43%로 가장 높게 평가했다. 성장 가능성과 함께 향후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베트남 국가에 대한 투자, 진출의 애로사항으로는 정보 부족과 민간 기업 진출을 위한 지원제도 미흡 등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해외 진출 기업 지원 정책으로는 22억 원 규모의 해외수산시설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⁵⁾ 농업부문 유사 사업 규모 140억 원⁶⁾인 점과 비교하면 규모가 매우 작으며, 해외투자 컨설팅 및 전문교육 지원 체계도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베트남 진출 성공요인 파악 및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지원함으로써 대베트남 민간 진출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11.08.)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한 것임.

4) 정명화 외,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p.89~104.

5) 정명화 외(2016), p.108~109.

6) 농림축산식품부,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검색일: 2018. 12. 18.)

2. 연구 목적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이행 및 베트남 진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이 수산분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일치하거나 유사할 때 성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수산업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 계획을 분석하여 베트남의 수산분야 협력 수요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분야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타국의 대베트남 수산 경제협력 사업과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연혁적 고찰을 통해 민간 기업의 대베트남 진출의 연관성을 추론하고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분야 협력 사업의 추진 시 개선 사항으로 도출하였다. 즉, 본 연구는 베트남 수산업 개발 정책의 정합성에 기초한 수산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실천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신남방 정책에 대응한 베트남 수산분야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기업 진출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둘째, 기존 미국, 중국, 일본에 집중되었던 수산 교역·투자를 베트남과 아세안 시장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베트남 수산업 개발 정책의 정합성에 기초한 수산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실천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5장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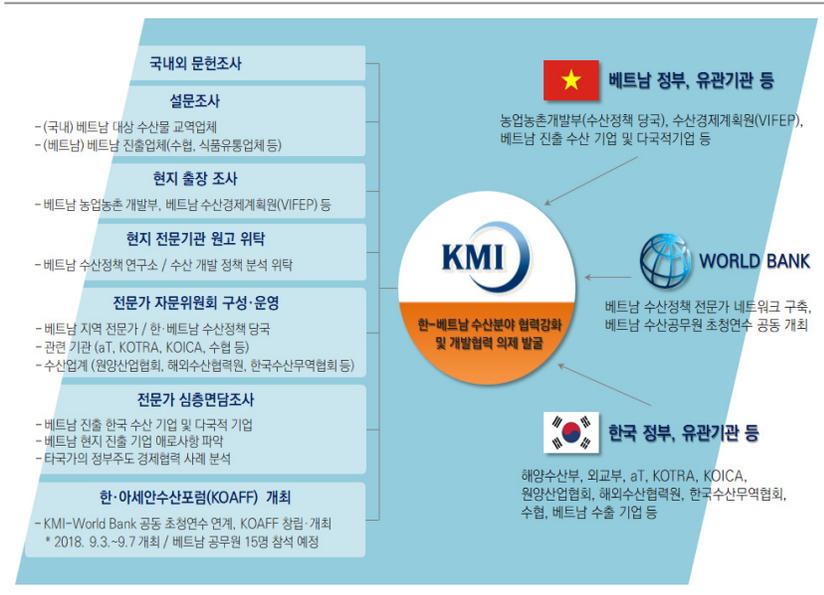
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추진 배경과 목적, 연구 추진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제2장은 베트남의 수산식품·가공 산업 현황과 베트남 수산업의 발전 계획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베트남 수산식품·가공식품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베트남과 협력 사업 도출에 있어 베트남 정책과의 적합성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어업 생산, 수산물 교역, 수산물 유통·가공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최대한 베트남 공식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통계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는 세계통화기금(IMF), UN COMTRADE 등 국제기구가 공식 발표한 가장 최신의 통계와 논문들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베트남 수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개발부 수산국 정책 담당자와의 공동연구 및 면담 조사를 추진하였다.

제3장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식품·가공 산업의 협력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수산 경제협력과 개발협력 차원의 협력 성과를 분석하였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수산분야 대베트남 진출·투자 확대 및 교역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수산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4장은 베트남 수산분야에 진출한 주요국의 기업 사례를 검토하고, 기업 진출을 위해 개발협력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5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우리나라 수산가공분야 진출을 위해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추진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와 전문가 자문, 수산물 수출 기업 및 국내 전문가 그룹 설문조사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보다 실질적인 수산 분야 협력과제 도출을 위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수산공무원을 초청하여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 선행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베트남 수산업 현황과 생산, 교역, 투자, 개발협력 등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베트남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베트남의 수산정책 현황과 향후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에서 공식 발표한 ‘베트남 수산 개발전략 마스터플랜과 비전 2020~

2030(Fishery Master Plan 2020~2030)'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 베트남 수산업 관련 정책 자료 및 World Bank, FAO 등 국제기구가 공식 발표한 베트남 관련 통계, 연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한-베트남 수산협력 과제 발굴·추진 시 베트남의 수산정책과 우리측 신남방정책 추진 방향의 균형을 맞추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베트남 주·지방정부 수산정책 담당자 및 해양수산부 국제협력 관계자, 신남방정책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베트남 수산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은 'KMI-World Bank 공동 베트남 수산분야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초청연수(2018.09.10~14)'사업과 연계하여 개최된 것으로, 한국-베트남-World Bank 간 양자·다자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협의의 장이 되었다.

셋째,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수산 정책 당국자와 공동 연구 및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베트남 수산업 실태와 수산업 발전 계획에 대해 베트남 정부의 공식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기 베트남 진출 기업 또는 향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과 향후 협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신남방정책과 수산식품 가공·수출입 업계 대응'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베트남 또는 아세안 수산물 수출입 업체 관계자와 수산분야 연구기관, 대학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업계와 학계 전문가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산 기업 진출 및 투자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 선행연구 분석

1) 정대영 외(2017) 『동남아시아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제도 현황 및 진출전략(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는 PPP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 건설 기업의 PPP 사업 진출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PPP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내 기업의 바람직한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적역량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전수하고 정부 간 협의체계를 강화하여 사업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둘째, 국내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사업 추진 경험을 축적하고 자원조달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경쟁력있는 현지 업체와 기술 및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대영 외(2017)는 베트남의 PPP 관련 법제도 분석과 PPP 사업 진출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내 건설 기업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어 베트남 수산업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 곽성일·이재호(2016) 『주요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곽성일·이재호(2016)는 베트남 주요 투자국의 베트남 진출 전략과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진출 방식이 적절했는가를 확인해 대안

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베트남 경제 현황 및 투자 여건 분석, 한국·미국·일본의 베트남 주요 산업 투자 변화와 베트남의 대응, 주요국의 대베트남 진출 전략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기업의 진출이 클러스터 진출로 이어지도록 산업단지 건설에 관심을 두고, 이를 위한 한국의 금융지원과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기존 진출 기업의 경험을 신규 진출 기업이 활용하고 이러한 기존출기업의 지원을 보상하는 ‘신규·기 진출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베트남 현지의 제도 및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위한 역량 지원이 시급하다. 넷째, 일본 기업처럼 진출기업 간 생산 설비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 쏠림보다는 동남아 전체를 생산기지로 여기고, ‘동남아 경영’의 핵심 기지로 베트남을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곽성일·이재호(2016)의 연구는 베트남 주요 투자국의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진출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하다. 그러나 신남방정책 추진이라는 대외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일반 산업의 베트남 투자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베트남 주요국의 수산분야에 투자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3) 정명화(2016)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정명화(2016) 외의 연구는 2015년 10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가 출범에 따라 아세안 단일 시장과 생산기지를 활용하여 국내 수산분야의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추진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AEC와 한-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통합 현황 및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수산기업의 AEC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여 정책수요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수산기업 설문조사 결과, AEC 출범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향후 활용 및 발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AEC를 활용한 아세안 역외 시장진출 가능성과 아세안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 및 수산물 소비 증가, 이로 인한 수출확대 등을 긍정적 효과로 평가하였다. 다만, 아세안 역내 수산물 원료 확보와 아세안 기 진출 기업과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사항도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EC 대응 수산분야 경제협력 기본방향으로 '아세안 수산분야에 대한 통합적 접근', '아세안 수산분야 단일 생산기지 활용 통한 국내 수산식품가치사슬 구축', '아세안 거점 해외진출 기반 마련'이 제시되었다. 정명화(2016) 외는 AEC 출범을 통해 아세안을 하나의 단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경제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베트남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아세안 국가 가운데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 있는 결과는 참고할 만하다.

〈표 1-1〉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명: 동남아시아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제도 현황 및 진출전략(베트남,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PPP 현황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PPP 관련 법제도 분석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정대영 외(2017) • 연구목적: 베트남 PPP 관련 법 제도 분석, 국내 기업의 베트남 사업 진출 전략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PPP 사업 진출 활성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주요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 연구자(연도):곽성일·이재호(2016) • 연구목적: 아세안 경제협력 성과와 진전 과정 평가, 대아세안 정책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현지조사 • UNCTAD DB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경제 현황 및 투자여건 • 한국, 미국, 일본의 베트남 주요 산업 투자 변화와 베트남의 대응 • 주요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 연구자(연도): 정명화 외(2016) • 연구목적: 아세안경제공동체 수산분야 통합정책 검토, 아세안 통합적 관점의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현지조사 •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경제공동체 현황과 수산분야 경제협력 • 주요국의 AEC 대응 수산분야 경제협력 • AEC 출범과 국내 수산기업의 인식도 조사 • 대아세안 수산분야 경제협력 추진전략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선행연구는 ‘베트남 해외투자’, ‘베트남 민관협력’, ‘베트남 경제협력 방안 수립’ 등의 목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 베트남과 경제협력의 필요성 및 베트남의 산업별 투자 결정요인 분석이 이뤄졌지만 수산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매우 제한적임 • 본 연구는 베트남 타산업의 경제협력, 민관협력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베트남의 수산분야 정부계획, 법·제도 환경 분석에 근거한 수산분야 실천적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정책 및 통계 분석 • 전문가 면담조사 • 전문가 원고 위탁 •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수산업 현황 •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협력 • 주요국의 대베트남 진출 전략과 시사점 •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산분야 협력강화 방안

2.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기 제시된 방법론과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베트남의 수산분야 정부 계획, 주요 선진국의 대베트남 수산분야 진출 방법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수산분야의 실천적 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가지는 가장 큰 차별성은 수산분야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 베트남 수산 정책 당국자 및 전문가 자문 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최근의 베트남 수산업 현황과 베트남 수산분야 투자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이행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내에 있는 베트남 및 아세안 수산물 수출입 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 수산분야 전문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을 구성하여 한-베트남 수산분야 협력 강화 방안 마련에 있어서 실질적인 협력과제 도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베트남에 대한 우리나라 수산기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을 활용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대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고도화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베트남 수산식품·가공 산업 현황과 전망

제1절 베트남 수산업 개발 현황

1. 수산업 개요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길게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해안선은 북동쪽 통킹만(Gulf of Tonkin)만에서부터 남중국해(South China Sea), 타일랜드만(Gulf of Thailand)까지 이어져있으며, 그 길이는 3,444km로 우리나라 해안선의 약 2배에 달한다.⁷⁾ 베트남 남부를 흐르는 메콩(Mekong)강은 총 길이가 4,020km로 인도차이나반도 최대의 하천이며, 메콩강을 중심으로 농업과 내수면어업이 발달하였다.⁸⁾ 긴 해안선과 하천을 중심으로 풍부하고 다양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7) KOTRA, 「베트남 개요」(검색일: 2018. 11. 12)

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2017), p. 5.

〈그림 2-1〉 베트남 지역별 주요 수산물 생산지



자료: OFOC, 「VIETNAM FISHERIES FAST FACTS」(검색일: 2018. 11. 22)

〈그림 2-1〉과 같이 베트남 수산물 생산지는 해안을 따라 북중부 해안지대, 남중부 해안지대, 남부 해안지대, 메콩델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⁹⁾ 북중부 해안지대는 탄호아(Thanh Hoa)성에서 투아티엔후에(Thua Thien Hue)성까지 이어지며, 천해양식에 주력하여 주로 새우, 굴, 전복, 돛류 등을 생산한다. 남중부 해안지대는 중부지역인 다낭(Da Nang)에서 남부 빈투언(Binh Thuan)성까지 포함하며 기후조건이 좋고 해면양식에 유리한 지리적 입지를 갖추고 있어 베트남 최대 바닷가재 양식지역이다. 남부 해안지대는 빈푸억(Binh Phuoc)성부터 호치민(Ho Chi Minh)성까지 해당되며, 조개, 새우, 바

9) 이하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2017), p. 8 참고하여 저자 수정 인용한 것임.

닷가재 등 해산어류를 주로 생산한다. 메콩델타 지역은 롱안(Loan An)성에서 까마우(Ca Mau)성으로 담수와 해수를 이용한 다양한 양식업이 발달되어 있는 베트남 최대 양식지역이다.

베트남 해양수산연구소는 2011~2015년 베트남의 수산 자원량을 약 4억 3천 6백만 톤으로 추정하였으며, 주요 자원으로는 전갱이, 조기, 고등어, 갈치, 참치 등이 있다. 소형 표층어류(small surfare fish)는 2억 6천 5백만 톤으로 전체 자원량의 약 60.7%를 차지하였다.¹⁰⁾ 대형 표층어류(big surface fish)는 1억 3백 만 톤으로 전체의 23.6%, 저생어류(bottom fish)는 6천 8백만 톤으로 전체 자원량의 15.7%를 차지하였다.

〈표 2-1〉 베트남 농림·수산업 GDP(2010~2016)

단위: 십억 달러, 십억 동(Dongs),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 GDP	달러 113	135	155	170	186	191	201
	동 2,157,828	2,779,880	3,245,419	3,584,262	3,937,856	4,192,862	4,502,733
농림·수산업 GDP	달러 20.7	26.3	29.9	30.6	32.9	32.5	32.9
	동 396,576	543,960	623,815	643,862	696,969	712,460	734,830
농림·수산업 비중	18.4	19.6	19.2	18.0	17.7	17.0	16.3

주: 1) 총 GDP는 IMF(US달러), 베트남 통계시스템(동) 값을 사용, 양 기관의 GDP 값은 동일하게 확인됨

2) 농림·수산업 GDP 중 US달러 값은 베트남 통계시스템의 농림수산업 GDP 비중을 바탕으로 저자가 추정함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및 베트남 통계시스템 GSO, 「National Accounts (Gross domestic product at current prices by economic sector)」(검색일: 2018. 11. 14)

베트남 경제에서 수산업의 중요성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베트남 국내총생산은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농림·수산업 국내총생산 또한 연평균 10.8% 증가하였다(동 기준). 2016년 기준 베트남

10) 이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p. 39 참고하여 저자 요약·정리한 것임.

국내총생산은 약 2,000억 달러로 이 중 농림·수산업의 GDP는 330억 달러로 전체의 16.3%를 차지한다.

수산업의 중요성은 고용 부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국민 중 15세 이상 노동인구는 2016년 기준 약 5천 3백만 명이며, 이 중 농림·수산업종사자는 2천 2백만 명에 이른다. 2010년에는 전체 노동인구의 49.5%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연평균 1.4%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6년에도 노동인구의 41.9%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업의 노동인구는 두 번째로 노동인구가 많은 제조업과 비교하더라도 약 2.5배 많아 농림·수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짐작할 수 있다.

〈표 2-2〉 연간 노동인구 및 비중(2010~2016, 15세 이상)

단위: 천 명,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전체	49,049	50,352	51,422	52,208	52,745	52,840	53,303	1.4
농림· 수산업	24,279	24,363	24,357	24,399	24,409	23,259	22,315	-1.4
	(49.5)	(48.4)	(47.4)	(46.7)	(46.3)	(44.0)	(41.9)	-
제조업	6,646	6,973	7,102	7,267	7,415	8,083	8,867	4.9
	(13.5)	(13.8)	(13.8)	(13.9)	(14.1)	(15.3)	(16.6)	-
유통업	5,550	5,828	6,314	6,563	6,652	6,710	6,736	3.3
	(11.3)	(11.6)	(12.3)	(12.6)	(12.6)	(12.7)	(12.6)	
건설업	3,108	3,221	3,272	3,309	3,313	3,432	3,800	3.4
	(6.3)	(6.4)	(6.4)	(6.3)	(6.3)	(6.5)	(7.1)	
요식업	1,711	1,995	2,137	2,217	2,301	2,441	2,482	6.4
	(3.5)	(4.0)	(4.2)	(4.2)	(4.4)	(4.6)	(4.7)	

주: ()는 전체 노동인구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베트남 통계시스템 GSO, 「Population and Employment(Annual employed population and annual employed population at 15 years of age and above by kinds of economic activity)」

(검색일: 2018. 11. 22)

위와 같은 농림·수산업 노동인구를 바탕으로 베트남 농촌개발부 수산국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수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어업인을 약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였다.¹¹⁾

2. 수산업 생산

베트남 경제 성장에 힘입어 수산업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베트남 수산업 총 생산량은 연평균 4.9% 성장하였다. 잡는 어업 생산량은 2010년 241만 톤에서 2016년 323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양식업은 273만 톤에서 2016년 365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6년 기준 양식업 생산량은 수산업 총 생산의 53.0%를 차지하며, 잡는 어업 생산량을 앞서고 있다.

〈표 2-3〉 수산업 생산량 및 비중(2010~2016)

단위: 천 톤,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전체	5,143	5,447	5,821	6,020	6,333	6,582	6,871	4.9
잡는 어업	2,414 (46.9)	2,514 (46.2)	2,705 (46.5)	2,804 (46.6)	2,920 (46.1)	3,050 (46.3)	3,226 (47.0)	4.9 -
양식업	2,728 (53.1)	2,933 (53.8)	3,115 (53.5)	3,216 (53.4)	3,413 (53.9)	3,532 (53.7)	3,645 (53.0)	4.9 -

주: ()는 전체 생산량 대비 생산량 비중을 의미함

자료: 베트남 통계시스템 GSO,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Production of fishery)」(검색일: 2018. 11. 14)

잡는 어업은 조업 지역에 따라 해면과 내수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잡는 어업 생산량의 약 90.0% 이상이 해면에서 생산된다. 잡는

11)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p. 41.

어업 생산량은 연평균 4.9%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6년 323만 톤을 기록하였다. 2010년 해면어업 생산량은 222만 톤으로 전체 잡는 어업 생산량의 91.9%를 차지하였다. 2016년에는 30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 전체 잡는 어업 생산의 94.1%를 차지하였다. 반면, 내수면어업은 2010년 이후 생산량이 정체되어 연평균 0.4%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2010년 19만 4천 톤에서 2016년 19만 톤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전체 잡는 어업 생산량에서 내수면어업의 비중은 8.1%에서 5.9%로 감소하였다. 즉, 베트남 잡는 어업은 해면어업 생산량 증대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잡는 어업 생산량 및 비중(2010~2016)

단위: 천 톤,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잡는 어업 생산량 (A+B)	2,414	2,514	2,705	2,804	2,920	3,050	3,226	4.9
해면 (A)	2,220	2,308	2,511	2,607	2,727	2,866	3,036	5.4
	(91.9)	(91.8)	(92.8)	(93.0)	(93.4)	(94.0)	(94.1)	-
내수면 (B)	194	206	195	197	193	184	190	-0.4
	(8.1)	(8.2)	(7.2)	(7.0)	(6.6)	(6.0)	(5.9)	-

주: ()는 전체 잡는 어업 생산량 대비 생산량 비중을 의미함

자료: 베트남 통계시스템 GSO,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Production of fishery caught by kinds of activity by Items)」(검색일: 2018.11.14)

베트남 양식업 생산량 통계는 주요 생산품목인 어류와 새우류로 구분하며, 전체 양식업 생산량 중 어류는 약 70.0%, 새우류는 약 18.0%를 차지한다. 양식업 생산량은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하였으며, 어류 생산량은 2010년 210만 톤에서 2016년

259만 톤으로 연평균 3.5% 증가하였다. 새우류 양식 생산량은 2010년 45만 톤에서 2016년 66만 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두족류 등 기타 품목의 경우 2010년 18만 톤이 생산되었으나 2016년 생산량이 40만 톤까지 증가하며 전체 양식업 생산량의 11.0%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생산 현황을 바탕으로 베트남 양식업이 어류 중심 구조에서 새우류와 그 외 품목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류의 경우 2010년 전체 양식업 생산량의 77.0%를 차지하였으나 2016년 71.0%로 감소하였다. 어류 양식업 생산량 증가율 또한 전체 양식업 생산량 증가율을 하회하였다. 반면, 새우류의 경우 2010년 이후 생산량이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기타 품목 또한 연평균 14.7%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표 2-5〉 양식업 생산량 및 비중(2010~2016)

단위: 천톤,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전체 (A+B+C)	2,728	2,933	3,115	3,216	3,413	3,532	3,645	4.9
어류 (A)	2,102	2,256	2,402	2,352	2,459	2,537	2,586	3.5
	77.0	76.9	77.1	73.1	72.0	71.8	71.0	-
새우류 (B)	450	479	474	561	615	635	656	6.5
	16.5	16.3	15.2	17.4	18.0	18.0	18.0	-
기타 (C)	177	199	239	304	339	361	402	14.7
	6.5	6.8	7.7	9.4	9.9	10.2	11.0	-

주: () 는 전체 양식업 생산량 대비 생산량 비중을 의미함

자료: 베트남 통계시스템 GSO,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Production of aquaculture by Items)」(검색일: 2018. 11. 14)

3. 수산물 교역 및 유통¹²⁾

베트남 수산물 교역 규모는 2010년 56억 달러에서 2016년 86억 달러로 연평균 7.4%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역액 중 약 85.0%가 수출액으로 수출 중심의 교역 구조를 보인다. 베트남 수산물 수출액은 2010년 51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8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6년 7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액은 2010년 5억 달러에서 2016년 13억 달러로 증가하며, 연평균 17.1%의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 수산물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2010년 46억 달러에서 2016년 약 6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이는 베트남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바탕으로 1차 가공 수산물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원재료 수급을 위한 원물 수입 물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6〉 수산물 교역 동향(2010~2016)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가율
전체	5,625	6,958	7,092	7,776	9,288	8,022	8,643	7.4
수출(A)	5,113	6,246	6,277	6,887	8,027	6,760	7,320	6.2
수입(B)	512	713	815	889	1,261	1,263	1,323	17.1
무역수지 (A-B)	4,601	5,533	5,462	5,998	6,767	5,497	5,998	4.5

주: 1) KMI 자체 HS코드 분류기준 사용

2) 베트남 통계청을 통해 수산물 교역에 관한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UN Comtrade 교역 자료를 활용함

자료: UN Comtrade(검색일: 2018. 11. 26)

12) 베트남 수산물 교역 자료 중 일부는 베트남 공식 통계에 대한 접근 한계로 UN통계(UN Comtrade)를 활용함. 따라서 베트남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 통계와 차이가 있음을 밝혀둠.

2015년 기준 베트남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최대 수출국은 미국, 최대 수입국은 인도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對미 수출이 전체의 21.5%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일본 15.8%, 한국 8.5%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비중은 인도가 전체의 26.5%로 1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서 한국 6.2%, 노르웨이 6.1%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수산물 수출 3위, 수입2위 국으로 베트남에서도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 입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의 주요 수산물 교역 품목은 새우와 참치이다. 특히, 새우는 주요 수출 품목이자 수입품목이기도 한데, 그 이유는 베트남 내 새우 수급 불안정으로 원료를 수입-가공하여 재수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새우는 전체 수출액의 42.4%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에서도 전체의 32.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제조기술, 품질관리 능력으로 저차 수산물 가공산업이 발달하고 있으며, 연어 등 고급어종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내 소비수요 증가로 원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여 원료 수입 후 냉동, 필렛, 통조림 형태로 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원료수급 차원에서 베트남 내 수산물 수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¹³⁾

1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K-Fish Around the Globe」, 해양수산부, 2017, 5호, p.5~8.

〈표 2-7〉 베트남 국가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5)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액	비중	수입 상위 10개국	수입액	비중
미국	1,454	21.5	인도	344	26.5
일본	1,068	15.8	한국	80	6.2
한국	577	8.5	노르웨이	79	6.1
중국	555	8.2	중국	75	5.8
태국	234	3.5	태국	72	5.5
영국	201	3.0	일본	67	5.2
캐나다	191	2.8	칠레	47	3.6
독일	189	2.8	미국	44	3.4
호주	170	2.5	페루	37	2.9
네덜란드	167	2.5	러시아	36	2.8

자료: 수산물수출정보포털, 「국내통계」(검색일: 2018. 11. 7)

〈표 2-8〉 베트남 품목별 수산물 수출입 현황(2015)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상위 품목	수출액	비중	수입 상위 품목	수입액	비중
새우	2,864	42.4%	새우	423	32.6%
메기	1,537	22.8%	다랑어	213	16.4%
다랑어	444	6.6%	어분	174	13.4%
오징어	236	3.5%	연어	88	6.8%
문어	191	2.8%	고등어	49	3.8%
어분	189	2.8%	송어	37	2.9%

자료: 수산물수출정보포털, 「국내통계」(검색일: 2018. 11. 7)

베트남의 수산물 교역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UN Comtrade 자료와 함께 베트남 농촌개발부 수산물 내부 자료를 살펴보았다. 2017년 기준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EU, 미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한국 등이 있다. 상위 10개국 중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산물 수출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비롯한 중국, 이스라엘의 경우 연평균 10.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5대 수산물 수출국으로 2014년 이후 수출규모가 연평균 5.5% 성장하였다.

〈표 2-9〉 주요 수출국 동향(2014~2017)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감률
1 일본	457	449	491	582	8.4
2 EU	402	342	358	415	1.1
3 미국	344	349	357	414	6.4
4 ASEAN	254	309	335	412	17.5
5 한국	339	329	328	398	5.5
6 중국	103	103	119	182	21.0
7 러시아	51	40	51	61	6.7
8 이스라엘	28	24	33	54	24.6
9 대만	38	41	39	41	2.2
10 호주	45	31	39	32	-10.3

주: 중국 수출액은 홍콩을 포함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p. 36

수출 품목으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베트남은 약 200여 종의 수산물을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으로 참치, 오징어, 낙지, 연어 등이 있다. 또한, 상위 32개 수출품목의 각 수출액은 연간 1천만 달러를 상회하며, 전체 수산물 수출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¹⁴⁾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p. 36.

〈표 2-10〉 2017년 상위 15개 품목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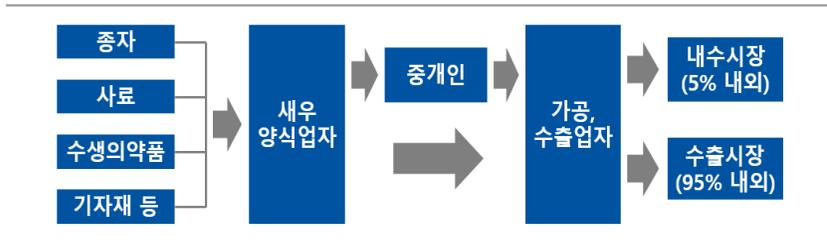
	품목	수출액
1	참치	593
2	오징어	351
3	낙지	271
4	연어	163
5	어육	135
6	전갱이	116
7	꽃게	77
8	굴	70
9	멸치	68
10	옥돔	57
11	쥐치	55
12	계(민물)	39
13	명태	39
14	새치	31
15	농어	29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p. 36

베트남 주요 생산품목인 새우와 참치의 유통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새우는 주로 양식을 통해 생산된다. 생산된 새우는 중개인을 거쳐 가공업자, 수출업자에게 유통되거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통단계를 거친 새우 물량의 대부분은 수출되며, 전체 물량의 약 5% 가량이 베트남 내수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개발도상국 수입 증진 센터(CBI: Centre for the Promotion of Im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는 베트남 수산분야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새우 유통의 취약점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생산 분야 취약점으로 첫째, 베트남

새우 양식의 어병 관리 기술 부족, 둘째, 이에 따른 안정적 생산량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새우 유통 전반에 걸친 취약점으로는 첫째, 공급망의 수직계열화 부족, 둘째, 가치 사슬 내 관계자 간 협력부족, 셋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투자의 부족을 들었다. 가치 사슬 내 관계자(새우 양식업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연구소, 정부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 부족은 베트남 새우 산업 발전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일례로 양식업자, 정부, 학계 간의 협력 부족은 새우 종자 개발 및 어병 관리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¹⁵⁾

〈그림 2-2〉 베트남 새우 유통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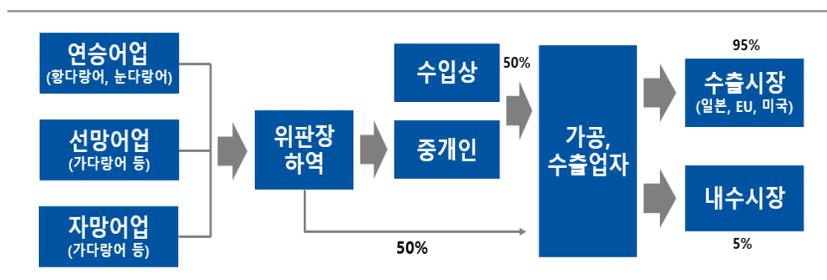
자료: CBI(2012), p. 32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번역 인용한 것임

참치는 주로 연승, 선망, 자망 등을 통해 생산된다. 연승어업을 통해서 주로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생산하고, 선망과 자망어업은 주로 가다랑어와 그 외 다랑어 종류를 생산한다. 베트남 EEZ에서 생산된 참치는 하역 후 중개인을 거쳐 가공업자와 수출업자에게 유통되거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된다. 또한, 부족한 원료를 수급하기 위해 수입상을 통해 원재료를 확보한다. 위와 같은 유통과정을 거친 참치의 약 95%는 일본과 EU, 미국 등 선진국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약 5% 물량은 베트남 내수 시장으로 유통된다. CBI(2012)

15) CBI(2012), pp.31~43 참고하여 저자 수정 인용한 것임.

는 참치 유통의 취약점으로 여섯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생산단계에서 첫째, 수산자원에 관한 과학적 정보 부족, 둘째, 기술력 부족에 따른 생산이력 추적 가능성의 부재를 꼽았다. 생산 후 유통단계에서는 첫째, 낙후된 보관기술, 둘째, 수출시장의 높은 식품안전 기준, 셋째, 가치 사슬 내 관계자 간 협력부족이 있으며, 유통 전반에 걸친 문제점으로 참치자원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보존조치가 부족한 점을 들었다. 특히, 이해관계자 간 협력부족으로 참치 어장 등 생산에 관한 정보가 상호 공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생산이력 추적에도 영향을 미친다.¹⁶⁾

〈그림 2-3〉 베트남 참치 유통 흐름



자료: CBI(2012), p. 56 참고하여 저자 번역 인용한 것임

베트남 수산국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의 주요 요소인 보관기술이 매우 낙후된 것으로 진단하였다. 주로 얼음을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 외 멸치는 주로 염장하고 오징어나 전갱이, 농어 등은 건조하여 보관·유통된다. 즉, 수산물 유통에 있어 콜드체인 시스템이 확산되지 못해 수산물의 선도 유지가 어려우며, 어획 후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¹⁷⁾

16) CBI(2012), pp.55-62 참고하여 저자 수정 인용한 것임.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p. 40 참고하여 저자 수정 인용한 것임.

〈그림 2-4〉 베트남 수산물 유통 현장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pp. 37~40

4. 수산물 가공 및 식품

베트남 수산국의 추산에 따르면, 수산물 가공공장은 약 620여개로 이 중 약 600여개의 공장에서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 시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415개의 가공 공장은 일본과 미국, EU 등 식품안전 기준 요건이 높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수출된다. 또한 건조 등 단순가공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어가를 포함한 소규모 수산물 가공공장은 베트남 전역에 약 3,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⁸⁾

베트남 수산물 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내수용 수산물 가공식품 생산량은 2013년 이후 연평균 3.5% 성장하여 2017년 54만 8천 톤을 기록하였다. 대표적인 가공 형태로는 냉동품과 전통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선호하는 느억맘(Nuoc Mam)¹⁹⁾이 있으며, 2017년 기준 냉동품이 전체 가공품의 약 40.0%, 느억맘은 약 38.0%

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pp. 39~40 참고하여 저자 수정 인용한 것임.

19) 작은 생선을 발효시켜 만든 베트남 전통 액젓을 일컫음.

를 차지하였다. 냉동품은 2013년 이후 연평균 6.4%의 성장률을 보이며 어육소시지 등 기타 가공품과 함께 가공식품 생산 규모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내수용 수산물 가공식품의 생산액 또한 성장하였다. 2013년 13억 동(미화 55,800달러)에서 2017년 20억 동(미화 86,000달러)으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11.5%의 성장률을 보인다. 생산량 증가율 대비 생산액의 증가율이 큰 이유는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에 기인한다. 베트남 시장 내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며, 제품의 품질 또한 세계 시장 수준으로 향상되면서 수산가공식품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²⁰⁾

〈표 2-11〉 베트남 내수용 수산물 가공식품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억 동, %

가공 형태	구분	생산량			생산액		
		2013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2013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478	548	3.5	131	203	11.5
냉동품		179	229	6.4	48	78	12.7
느억맘		204	208	0.5	31	48	11.2
건조품		61	65	1.7	37	57	11.2
젓갈류		23	27	3.8	8	11	7.8
기타 (어육소시지 등)		9	16	15.8	4	5	6.9
통조림		2	3	5.2	2	4	13.2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 p. 40 참고하여 저자 수정 인용한 것임

베트남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수산물 가공식품의 주요 생산 주체는 기업과 가정(가내 수공업)²¹⁾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7년 베트남

20) Nguyễn Quang Hùng(2018), p. 10 참고하여 저자 번역 인용한 것임.

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8)에는 '소규모(Quy mô nhỏ)'로 명시되었으나, Nguyễn Quang Hùng(2018)에는 '가족단위(Cơ sở quy mô hộ gia đình)'로 표기되어 이를 반영함.

농촌개발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자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 가공식품 생산 기업은 140여개로 이 중 59개 기업이 느억맘을 생산한다. 냉동품 생산 기업은 33곳이며, 그 외 통조림, 건조품 등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3,838가구가 가정 내 수산 가공식품 생산에 참여한다. 이 중 1,481가구가 느억맘을 생산하고 있으며, 건조품 생산 가구가 838가구로 11.5%의 비중을 차지한다.

〈표 2-12〉 베트남 내수용 수산물 가공식품 생산 주체 현황

단위: 개소, %

가공 형태	기업		가정	
	개소	비율	개소	비율
전체	140	100.0	3,838	100.0
느억맘	59	42.1	1,481	38.6
그 외 액젓류	4	2.9	441	11.5
건조품	3	2.1	838	21.8
어분	9	6.4	41	1.1
통조림	15	10.7	-	-
냉동품	33	23.6	70	1.8
구매 후 1차 단순가공	17	12.1	967	25.2

자료: Nguyễn Quang Hùng(2018), p. 11 참고하여 저자 번역 인용한 것임

주요 수산물 가공식품인 느억맘은 나트랑(Nha Trang)과 캄라인(Cam Ranh) 등 해안 지역과 메콩 델타지역의 특산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 수산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느억맘 생산에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으며, 염분과 특유의 향을 줄이는 등 다양한 종류의 느억맘을 생산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건조품은 주로 가정에서 난로 또는 장작, 석탄 등으로 건조하여 유통된다. 그러나 가정의 건조 시설이 낙후되어 제품의 위생 수준이 낮으며

무분별한 오폐수 배출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후 1차 단순가공 시설 또한 매우 영세하며 구입한 원료를 단순 분쇄 등으로 가공하여 유통한다.²²⁾

제2절 베트남 수산업 개발 정책과 개발 수요

1. 수산업 발전 전략 및 비전(2020~2030)²³⁾

베트남 수산업 발전 전략은 2030년까지 자국의 열악한 수산업을 현대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해양 강국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 유통, 가공,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부가가치 증대를 목표로 수산업 현대화 및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2030년까지 수산물 전체 생산량을 9백만 톤 이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한다.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양식업 생산량 확대를 도모하여 2030년까지 전체 수산물 생산량 중 양식업 생산량 비중을 70%로 확대하고자 한다. 수산물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베트남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하여 수산물 수출 규모를 2020년 110억, 2030년 200억 달러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수산업 발전을 위해 어촌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문

22) Nguyễn Quang Hùng(2018), pp. 10~12 참고하여 저자 번역 인용한 것임.

23) 본 절은 베트남 정부의 구체적인 수산업 발전 전략 및 비전 확인을 위해 베트남 농촌개발부 내 수산국 관계자(Nguyễn Quang Hùng)에게 원고를 의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함(자료: Nguyễn Quang Hùng(2018), pp. 1~9 참고하여 저자 번역 정리한 것임)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어촌을 주요 생산 주체로 유지하기 위해 어촌 거주 장려 및 지역 문화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수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베트남 수산업 발전 전략 및 비전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으로 수산자원 보존 및 수산업 발전, 양식, 가공 및 소비, 어선 및 어항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자원 조사 연구에 중점을 두며, 이를 위한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국 수역 내 해양보존지역을 구축하여 자원 회복을 위한 종묘 방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해상 재난 관리 업무 현대화를 진행한다. 수산자원 보존 및 해상 재난관리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각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됨에 따라 어업인 협동조합 창립 및 수산물 유통·가공 주체들의 협력 강화를 도모한다. 어업인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원 관리에 참여하며, 어업인 이익 증대 및 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통·가공 주체들은 상호 협력하에 현대화 기술을 도입하여 어획 후 손실량을 감소, 유통 효율화 등을 도모하여 수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양식 발전방안이다. 양식어업은 내수면양식과 해면양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수면양식은 베트남 내 안정적 식량 공급 및 농어촌 주요 소득원인 새우, 틸라피아 등 기존 품목의 생산 확대를 모색한다. 또한, 새우 등 일부 품목 중심의 양식 생산에서 탈피하고 신규 양식품목 도입을 위한 양식업 생산구조 개혁과 Global GAP 등 국제적 기준 준수를 통한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해면 양식은 대량 생산을 목표로 주력 상품군을 선정하여 세계시장에서 베트남산 수산물

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또한, 종자 생산 및 양식 기술 향상을 통한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주요 생산품목인 타이거 새우, 흰다리 새우, 메기(꽝가시우스)에 우선 적용한다. 특히, 종자 생산을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여 어병 감소 및 질 향상을 모색하고,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집중된 종자 생산을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셋째,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에서는 수산가공업 현대화를 도모하고 수산가공과 유통주체와의 긴밀한 연대 구축을 목표로 한다. 수산물 가공 생산의 현대화를 통해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수산물 가공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EU,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등 신규 시장 수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유통주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가치사슬의 수직계열화를 도모하여 베트남 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수직계열화를 통해 제품의 위생과 품질을 보장하며, 손실량 감소 등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증대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유통채널의 확대를 모색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베트남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어선 및 어항은 수산업의 기본 요소로 현대화를 통해 생산량 증대 및 생산 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목재 어선 및 어구를 현대화하여 어획량을 증대시키고 어항 개발을 통해 수산가공업의 기초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림 2-5) 베트남 수산업 발전 전략 및 비전(2030)

수산업 현대화를 통한 국가 경제 발전 및 해양강국 달성



- ✓ 수산업 현대화 및 대량생산 체계 구축
수산업 생산량 900만 톤 (잡는어업 30%, 양식업 70% 비중)

✓ 베트남 수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수산물 수출 2배 이상
(연평균 7% 성장, 고부가가치 제품 60%)

✓ 기존 생활수준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수산업 종사자 중 훈련된 종사자 비율 80%

구분

주요내용

수산자원 보존 및 수산업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자원조사 연구 수행 및 고급인력 양성 - 해양보존지역 구축 및 종묘양류사업 확대, 불법어업 단속 강화 - 해상자원 관리 업무 현대화 - 어업인 협동조합 구축 및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한 수산업 현대화 달성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생산 및 양식 기술 향상으로 생산량 증대, 국제적 기준 준수를 통한 품질 향상 - (내수면 양식) 기존 주요 품목의 생산 확대 및 신규 양식품목 도입 - (해면 양식) 주력 수출품의 대량생산 및 베트남 수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 수출 확대에 기여
수산물 가공 및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가공 생산의 현대화를 통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고부가가치 달성 - EU, 미국 등 기존 선진국 시장 점유율 지속 및 한국, 중국 등 신규 시장 수출 확대 - 유통주체인간 수직계열화를 통한 이해관계자 이익 증대
어선 및 어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량 증대 및 생산 여건 개선을 위한 어선 및 어구 현대화 - 어항개발을 통한 수산물 가공업 확대 및 기초적 인프라 구축

자료: 저자 정리

2. 수산업 개발 수요

베트남 수산업의 개발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수산업 현황 및 베트남 정부의 개발 정책을 살펴보았으며, 주요 생산품목인 새우와 참치를 중심으로 개발 수요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우와 참치의 생산 및 유통구조의 약점(도전과제)은 다음과 같다. 새우는 생산단계에서 어병 관련 시스템 부재로 인한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과 유통 전반에 걸쳐 공급망의 수직계열화 미확립과 이에 따른 가치 사슬 내 관계자 간 협력 부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부족이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참치의 경우 생산 단계에서 참치 자원량에 대한 과학적 정보 부족 및 생산이력 추적 가능성의 부재가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되었고, 유통단계에서는 낙후된 보관 기술과 수출시장의 높은 식품안전 기준, 가치사슬 내 관계자 간 협력 부족, 참치자원의 보존조치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베트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 개발 분야로 관계자 간 협력 구축을 들 수 있다. 베트남 수산업은 생산 주체, 유통 주체, 가공 주체, 정부, 연구소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분리되어 있어 상호 유기적 연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러한 협력 부족은 수산업 생산성 및 경제성, 지속가능성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생산 주체와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 부족으로 어병 관리 및 종자 개발에 취약성을 띠며, 수직계열화 미확립에 따른 자본화 어려움으로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생산 주체와 유통 주체 간 협력 부족에 따른 콜드체인 인프라 미확산으로 부패·손실률 관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베트남 농촌개발부 수산국 관계자 면담²⁴⁾에 따르면, 수산가

공업의 품질 및 위생문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베트남 수산가공업은 주요 수산물 수입국의 높아지는 비관세 장벽 속에서 對세계 수출을 지속하기 위해 위생문제 개선 및 품질 향상을 요구 받고 있다.

이러한 수요 분야를 고려할 때 향후 베트남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직계열화를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관계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수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수산물 가공 기술 및 위생 개선이 필요하다.

제3절 특징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향후 한국과 베트남의 수산식품 및 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베트남 수산업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긴 해안선과 메콩강을 중심으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베트남은 다양한 지역에서 수산업이 발전하였다. 베트남 경제에서 수산업의 비중은 지대하며, 수산업에 종사하는 직접 노동인구(어업인)의 수가 100만 명 이상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한다.

베트남의 수산업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생산, 교역 및 유통, 가공 및 식품 현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베트남 수산업 생산량은 2010년 이후 연평균 4.9% 성장하고 있으며, 양식업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잡는 어업 또한 2010년 이후 연

24) 인터뷰 자료: 베트남 농촌개발부 수산국 Nguyễn Quang Hùng 국장(2018.09.14, 대한민국 부산)

평균 4.9%의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생산량의 90.0% 이상이 해면에서 생산된다. 양식업 생산량은 어류, 새우류, 기타로 구분되며, 2010년 이후 새우류, 기타품목의 생산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어류 중심의 생산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업 생산량 확대와 함께 수산물 교역규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수산물 수출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물 수입은 2010년 이후 연평균 17.1% 증가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 증가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베트남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기조 아래 가공 수산물 수출이 확대되면서 원재료 수급을 위한 원물 수산물의 수입 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는 일본, EU, 미국, ASEAN, 한국이 있으며, 베트남의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규모는 2014년 이후 연평균 5.5% 증가하였다.

베트남 수산물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크게 수출용과 내수용 시장으로 양분할 수 있는데, 후자의 생산규모도 점차 증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베트남 내수용 수산물 가공식품 산업의 주요 생산품목은 냉동품과 느억맘이다. 2013년 이후 베트남 내수용 수산물 가공식품 생산규모는 물량기준 연평균 3.5%, 금액기준 11.5% 성장하였다. 이처럼 가공식품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 이유로 베트남 내 가공식품 품질 향상과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을 꼽을 수 있다. 베트남 수산국 관계자는 향후 베트남 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이 對세계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아지는 비관세장벽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단순가공 수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공기술 발전이 요구되며,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수산

업 현대화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0~2030 수산업 발전 전략 및 비전을 수립하였다. 수산업 발전의 목표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등 전 단계에 걸친 가치사슬을 구축, 부가가치 증대를 내세웠다. 구체적인 방안은 수산자원 보존 및 수산업 발전, 양식, 가공 및 소비, 어선 및 어항으로 구분하였다. 수산자원 보존은 해역보존 및 자원량 회복을 위해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업인 협동조합을 비롯한 수산업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양식의 경우 신규 양식품목 도입을 통한 생산량 확대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산물 생산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종자 생산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어병 관리 및 수산물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유통분야는 현대화 및 수직계열화를 통해 베트남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세계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선 현대화를 통해 생산량 증대 및 어획 후 손실을 감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 수산업의 주요 개발 수요 분야로 이해관계자 간 협력관계 구축과 수산물 가공기술 및 위생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이해관계자 간 협력관계 구축은 수산업 발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일례로 생산 부문에서는 생산업자와 정부, 연구소 간 협력을 통해 어병관리, 고품질 종자 생산을 이룰 수 있으며, 유통 부문에서 생산업자와 중개인, 가공업자 간 협력 관계 구축으로 콜드체인 등 유통 인프라 확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각 이해관계자별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의 이력 추적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베트남 정부 또한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산업 발전 전략을 통해 생산자 협동조합 등 수산업 주체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달성

및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산물 가공기술 발전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수산물 가공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베트남 수산업의 현황을 고려한 개발 수요 파악을 통해 베트남과의 향후 장기적인 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제3장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산분야 협력 현황 및 과제

제1절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산분야 경제협력

1.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 현황

2017년 기준 한국과 베트남의 수산물 교역액은 총 8.6억 달러로 전년대비 18.7%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9.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교역의 11.2%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베트남 FTA체결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베트남은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액 1위국이자, 전체 수산물 수출국 5위, 수입국 3위 국가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물 교역국이다.

양국 간의 지속적인 수산물 무역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양국 수산물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수입액은 약 7.5

억 달러, 수출액은 1.1억 달러로 수출대비 수입비중이 약 8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이러한 수입편중현상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양국의 지속적인 수산물 교역증가와 수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입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한-베트남 FTA 체결(2015)로 2018년 1월 1일부터 전체 수산물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의 베트남 수출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감율
對세계	6,045,910	6,573,160	6,480,273	6,918,463	7,597,724	4.7%
아시아	3,769,137	4,012,118	3,843,886	4,175,863	4,430,281	3.3%
베트남	554,202	710,553	672,197	718,399	852,525	9.0%

자료: 수산물수출정보포털, 「국내통계」(검색일: 2018. 12. 3)

〈표 3-2〉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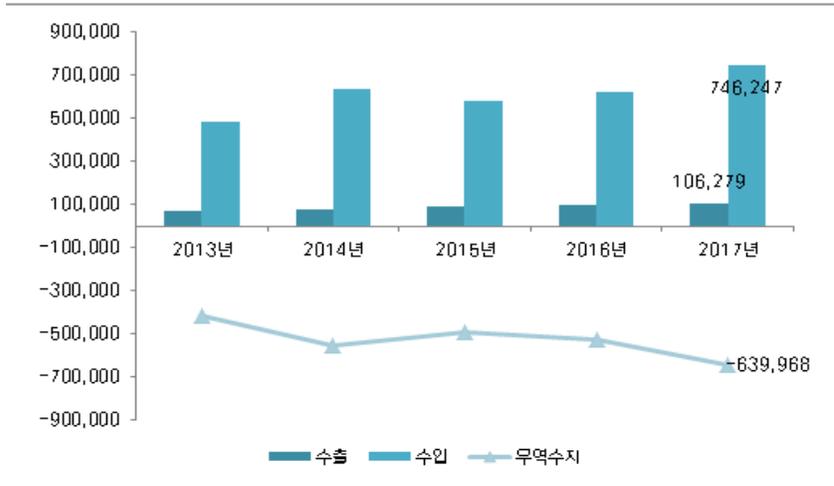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감율
수출	70,089	77,046	89,295	97,319	106,279	8.7%
수입	484,113	633,506	582,901	621,080	746,247	9.0%
교역규모	554,202	710,553	672,197	718,399	852,525	9.0%

자료: 수산물수출정보포털, 「국내통계」(검색일: 2018. 11. 7)

〈그림 3-1〉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액(2013~2017년)

단위: 천 달러



자료: 수산물수출정보포털, 「국내통계」(검색일: 2018. 11. 7)

2017년 한국과 베트남 수산물 교역량은 총 20만 톤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6%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체 수산물 교역량이 전년대비 0.1%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수출량은 전년대비 11.5% 감소한 반면 대베트남 수출량은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입량은 2.2% 증가에 그친 반면 대베트남 수입량은 7.7% 증가를 보였다.

〈표 3-3〉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량

단위: 천 톤,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감율
對세계	6,074	5,935	6,155	5,986	6,032	-0.1%
아시아	2,412	2,357	2,774	2,904	2,669	2.0%
베트남	161	181	202	188	201	4.6%

자료: 수산물수출정보포털, 「국내통계」(검색일: 2018. 11. 7)

〈표 3-4〉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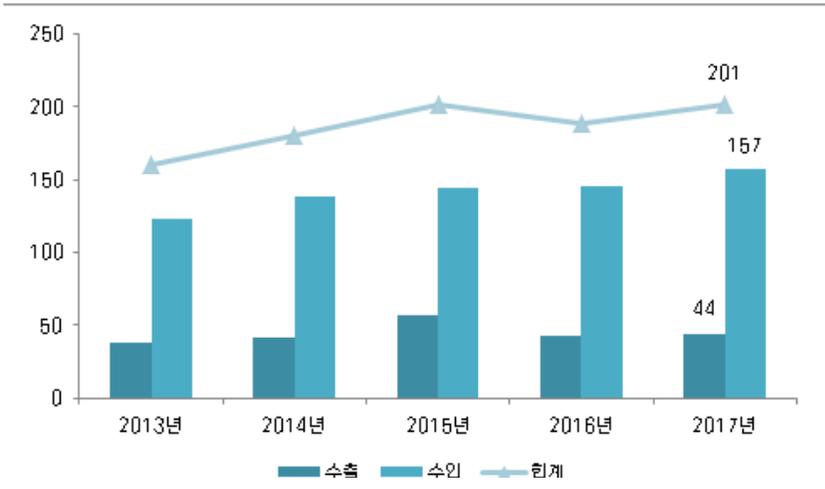
단위: 천 톤,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감율
수출	38	42	57	42	44	3.2%
수입	123	139	145	146	157	5.0%
합계	161	181	202	188	201	4.6%

자료: 수산물수출정보포털, 「국내통계」(검색일: 2018. 11. 7)

〈그림 3-2〉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량 현황

단위: 천 톤



자료: 수산물수출정보포털, 「국내통계」(검색일: 2018. 11. 7)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품목별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2017년 기준 상위 수출품목으로는 참치가 전체 수출액의 30.2%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어란 14.6%, 김 6.7%순으로 나타났다. 수출 1위 품목인 참치의 경우 2015년 이후 수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최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어란의 수출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53.6%라는 기하

급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김의 경우에도 연평균 35.6%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표 3-5〉 한-베트남 품목별 수산물 수출액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율
참치	15,526	14,527	38,714	35,556	32,080	-9.8
어란	28	3,821	7,058	14,561	15,518	6.6
기타수산물	9,401	10,523	6,730	4,267	9,569	124.2
김	1,556	2,809	3,761	5,062	7,136	41.0
기타어류	6,393	5,400	5,484	4,944	6,100	23.4
오징어	16,191	17,812	8,554	11,186	5,074	-54.6
이빨고기	1,667	1,973	957	45	4,295	9,401.7
기타갑각류	247	0	9	2,126	3,467	63.1
삼치	2,156	2,308	2,009	1,835	3,197	74.2

자료: 수산물수출정보포털, 「국내통계」(검색일: 2018. 11. 7)

2017년 기준 상위 수입 품목으로는 새우살과 새우가 각각 25.8%와 21.1%로 1위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쭈꾸미 15.8%, 갑오징어 6.3%순으로 대부분 냉동상태의 원어 수산물이 수입되고 있다. 새우 및 쭈꾸미 등의 수입규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0~20%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연간 약 10만 달러에 그쳤던 갑오징어 수입은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확대되어 2017년에는 전년대비 무려 100배 증가한 4,7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상위 품목이었던 오징어 수입은 2013~ 2016년 3,400만 달러에서 2017년 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6.3% 감소하였다.

〈표 3-6〉 한-베트남 품목별 수산물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율
새우살	91,840	161,024	127,443	144,446	192,439	33.2
새우	89,865	129,221	121,556	137,238	157,151	14.5
꾸꾸미	65,601	95,916	94,995	87,075	117,830	35.3
기타어류	101,742	104,780	108,633	105,937	104,806	-1.1
갑오징어	101	70	416	447	47,041	10,419.7
쥐치	37,540	40,929	35,873	39,207	45,197	15.3
낙지	13,778	23,735	18,726	20,170	34,426	70.7
오징어	36,347	33,067	31,285	33,866	8,010	-76.3
문어	1,928	1,940	2,355	3,265	4,926	50.9

자료: 수산물수출정보포털, 「국내통계」(검색일: 2018. 11. 7)

2. 한-베트남 수산분야 투자 현황 및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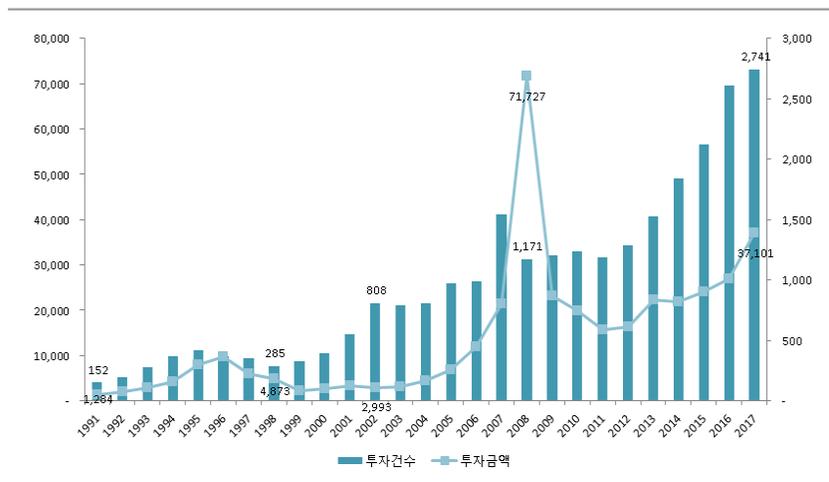
1) 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FDI) 개요²⁵⁾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17년 기준 371억 달러, 투자건수는 2,741건으로, 90년대 이후 투자규모나 건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5년간 투자규모는 연평균 10.7%, 투자건수는 연평균 12.4%의 증가율을 보였다. 베트남의 FDI 통계가 가용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누계 기준 베트남의 FDI 규모는 총 FDI 3,196억 달러로 나타났다.

25) 베트남의 FDI통계는 베트남 내 국가별 투자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 베트남 통계시스템 GSO(검색일: 2018. 12. 5) 자료를 이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와 차이가 있음.

〈그림 3-3〉 베트남 FDI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베트남 통계시스템 GSO,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jects licensed in period 1988 - 2017 by Year and Items」(검색일: 2018. 12. 5)

〈표 3-7〉 베트남 FDI 추이(2012~2017)

단위: 백만 달러, 건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투자금액	16,348	22,352	20,230	24,115	26,890	37,101
투자건수	1,287	1,530	1,843	2,120	2,613	2,741

자료: 베트남 통계시스템 GSO,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jects licensed in period 1988 - 2017 by Year and Items」(검색일: 2018. 12. 5)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한국을 포함한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국은 누계 기준 투자액 578.6억 달러, 투자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이은 베트남 투자 상위국은 일본으로, 투자규모는 2017년 누계 기준 493.1억 달러로 나타났다. 일본은 중국 외 투자 분산 차원에서 채택한 ‘China+1’ 전략의 영향으로 對아세안 투자가 증가하면서 베트남 투자규모도 동

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우에도 정부의 '일대일로' 구상에 따라 동남아시아 경제협력 강화 및 현지 진출 목적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상위 10개국 베트남 FDI 현황(1998~2017 누적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건수, %

구분	투자건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한국	6,549	26.4%	57,861.7	18.1%
일본	3,607	14.5%	49,307.3	15.4%
싱가포르	1,973	8.0%	42,540.7	13.3%
대만	2,534	10.2%	30,867.2	9.7%
버진 아일랜드	744	3.0%	22,535.2	7.1%
홍콩	1,284	5.2%	17,933.5	5.6%
말레이시아	572	2.3%	12,274.9	3.8%
중국	1,817	7.3%	12,023.0	3.8%
미국	861	3.5%	9,894.1	3.1%
태국	489	2.0%	9,288.7	2.9%
전체 합계	24,803	100.0%	319,613.1	100.0%

자료: 베트남 통계시스템 GSO,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jects licensed by main counterparts (Accumulation of projects having effect as of 31/12/2017) by Main counterparts and Items」(검색일: 2018. 12. 5)

베트남 FDI의 투자분야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 1,865.1억 달러가 투자되어, 전체 투자액의 58.4%를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부동산 부문 532.3억 달러(16.7%), 전력 생산·공급 부문 208.2억 달러(6.5%) 순이었으며, 농림·어업 부문은 전체 투자규모의 1.1%인 35.2억 달러에 그쳤다.

〈표 3-9〉 상위 10개 분야 베트남 FDI 현황(1998~2017 누적 기준)

단위: 백만 달러, 건수, %

구분	투자건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제조업	12,460	50.2%	186,514.2	58.4%
부동산	639	2.6%	53,226.0	16.7%
전력 생산·공급	115	0.5%	20,820.9	6.5%
숙박 및 음식 서비스	644	2.6%	12,004.2	3.8%
건설	1,481	6.0%	10,846.5	3.4%
도소매 및 자동차·오토바이 수리	2,805	11.3%	6,200.0	1.9%
광산 및 채석장	105	0.4%	4,876.0	1.5%
운송 및 보관	666	2.7%	4,646.7	1.5%
농임·어업	511	2.1%	3,521.2	1.1%
정보통신	1,653	6.7%	3,336.5	1.0%
전체 합계	24,803	100.0%	319,613.1	100.0%

자료: 베트남 통계시스템 GSO,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jects licensed by kinds of economic activity (Accumulation of projects having effect as of 31/12/2017) by Kinds of economic activity and Items」(검색일: 2018. 12. 5)

베트남에 대한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확대는 베트남 내 투자환경 개선과 풍부한 노동력과 소비시장 확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트남 산업부문에 있어서 대표적인 경쟁력은 풍부한 노동력이다. 총생산가능인구(15세~64세) 비중이 2016년 기준 70.1%, 6,626만 명이고 2030년에는 7,10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국민의 1인당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산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수요 증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171달러로 2000년 388달러와 비교하여 무려 5배 이상 증가하였다.²⁶⁾

26) 한국수출입은행(2018), p. 18~19.

국제사회의 베트남에 대한 사회·경제적 평가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과 정치적 안정을 기반으로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기업의 향후 경영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베트남은 2015년 우리나라와의 FTA 협정 체결을 포함하여 CPTPP(포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동아시아 지역포괄적경제연계), EU FTA(2018) 등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8」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업경영여건은 2014년 99위에서 2018년 68위로 단기간에 빠른 순위상승을 보였다.²⁷⁾ 우리나라에 이어 베트남 투자 2위국인 일본의 경우, 현지 진출 기업의 66.0%가 향후 투자확대 등 경영확장 전략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⁸⁾ 이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요 신흥국에서의 확대 계획을 상회하는 것이다.

〈표 3-10〉 베트남 기업경영여건 순위(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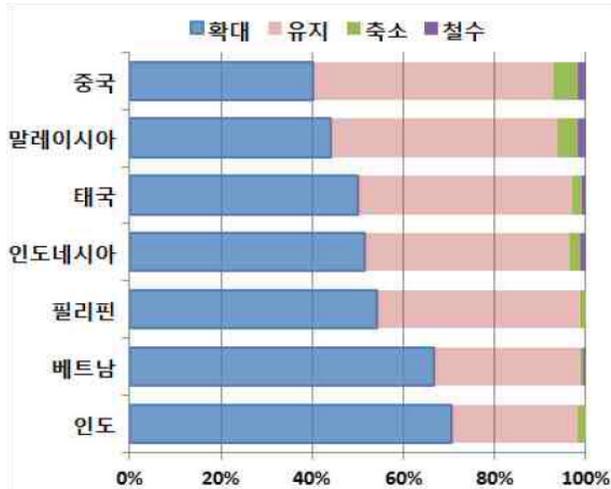
구분	종합		창업	전력 수급	지금 조달	국제 교역	계약 이행	파산
	2014	2018						
베트남	99	68	123	64	29	94	66	129
중국	96	78	93	98	68	97	5	56
대한민국	7	4	9	2	55	33	1	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2018), p. 21

27) World Bank, 「Doing Business」(검색일: 2018. 11. 8)

28) 현대경제연구원(2017), p. 5.

〈그림 3-4〉 일본 외국인투자 기업의 향후 경영 계획 설문조사 결과(2016)



주: 2016년 기준 향후 1~2년간 경영활동 계획에 대한 일본 외국인투자 기업 설문조사(JERTO 시행) 결과로, 철수는 제3국 이전을 포함한 것임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7),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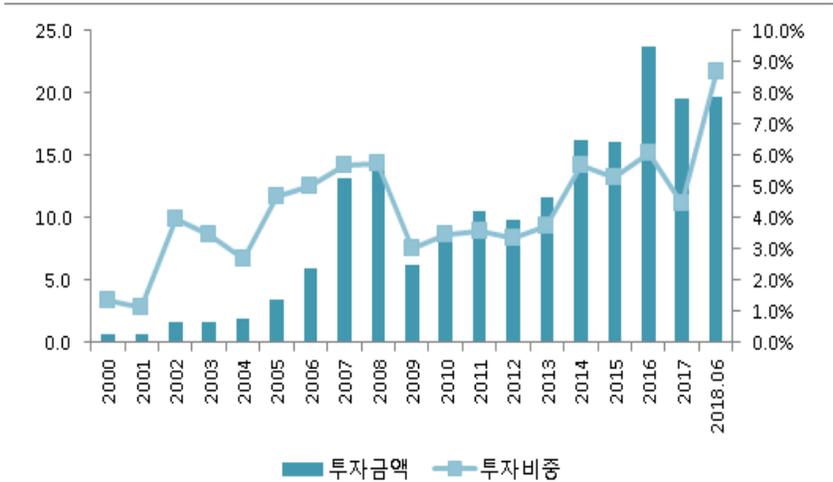
2)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산분야 투자 현황²⁹⁾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규모는 2017년 기준 19.5억 달러, 투자건수는 709건으로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결과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 초 1.0% 내외에서 2017년 4.5%로 크게 증가하였다.

29)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분야 투자 현황은 상세업종별 비교를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11. 8) 자료를 이용, 베트남 통계시스템 GSO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그림 3-5〉 우리나라의 베트남 외국인직접 투자규모 및 비중

단위: 억 달러, %



주: 2018년도 자료는 2018년 6월 기준 수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11. 8)

업종별로는 2017년 기준 제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71.5%를 차지한다. 이어서 도·소매업 6.7%, 금융·보험업 6.3%, 광업 4.0%, 부동산업 3.8%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임업·어업 부문은 전체의 0.1%에 불과한 125만 달러로 전체 17개 업종대분류 중 13위에 그쳤으며, 어업에 대한 투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 외 수산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도 2017년 1,732만 달러, 전체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부문 투자업종으로는 제조업 중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배합사료 제조업,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과 도소매업 중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수산물 가공·판매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추이(2016/2017 비교)

단위: 개수, 천 달러, %

2016			업종(대분류)	2017		
신규 법인	투자 금액	비중		신규 법인	투자 금액	비중
426	1,766,991	74.6%	제조업	374	1,397,498	71.50%
1	1,295	0.1%	수산물 냉동품 제조업	0	11,567	0.59%
0	5,895	0.2%	배합사료 제조업	0	2,366	0.12%
1	1,494	0.1%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2	1,991	0.10%
99	83,634	3.5%	도매 및 소매업	125	130,338	6.67%
1	36	0.0%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1	176	0.01%
1	99	0.0%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4	1,219	0.06%
4	169,786	7.2%	금융 및 보험업	4	123,078	6.30%
0	106,666	4.5%	광업	1	78,576	4.02%
11	142,576	6.0%	부동산업	13	74,380	3.81%
16	23,357	1.0%	정보통신업	36	40,144	2.05%
39	22,569	1.0%	건설업	42	39,694	2.03%
8	22,909	1.0%	숙박 및 음식점업	27	34,268	1.75%
23	4,595	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7	12,718	0.65%
17	13,025	0.5%	운수 및 창고업	22	7,989	0.41%
6	2,580	0.1%	교육 서비스업	12	7,605	0.39%
8	6,259	0.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4	4,162	0.21%
4	2,672	0.1%	농업, 임업 및 어업	2	1,254	0.06%
1	50	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 인 서비스업	3	1,000	0.05%
4	1,102	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	856	0.04%
2	455	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590	0.03%
1	479	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402	0.02%
2	73	0.0%	기타	1	50	0.00%
4	8,819	0.4%	소계(수산부문)	7	17,318	0.9%
671	2,369,778	100.0%	합계	709	1,954,602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11. 8)

한편,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원양어업 관련 사업체는 2017년 기준 전체 86개 업체 중 약 7%에 해당하는 6개 업체이다, 가장 많은 사업체가 진출해 있는 인도네시아(13개사) 다음으로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다. 업종별로는 수산가공업에 5개사, 어업에 1개사가 진출해 있다.

〈표 3-12〉 국가별, 업종별 원양어업 관련 사업체 현황(2017)

국가	수산가공업	운반보관업	유통판매업	양식업	어업	합계
인도네시아	7	0	5	1	0	13
베트남	5	0	0	0	1	6
태국	4	0	0	0	0	4
미얀마	1	0	0	2	0	3
말레이시아	0	0	0	1	0	1
∴	∴	∴	∴	∴	∴	∴
전체	53	4	9	5	15	86

자료: 해양수산부(2017), pp. 203~205

3) 베트남 수산분야 투자 제도

베트남 정부는 「투자법」과 「기업법」에서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규정을 명시·적용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투자법」은 2005년 최초 제정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2015년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투자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투자 형식 및 분야,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등 투자 전반에 걸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³⁰⁾

30) KOTRA, 「국가정보-베트남」(검색일: 2018. 12. 11)

「투자법」에서 외국인 투자 법인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이 설립한 기업이나 외국인 지분이 51%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외국 법인은 투자등록증명서(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와 기업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을 신청·발급받아야 법인설립 인허가가 완료되며, 외국인 지분이 51% 미만일 경우에는 베트남 현지 투자자와 동일하게 ERC만 발급받으면 된다.

외국인 투자분야에 대해서도 동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분야는 각 산업별 특성에 따라 투자허용 및 조건부 허용, 투자유치, 투자우대, 투자금지로 구분되며, 투자우대 산업의 경우 법인세 및 관세, 토지 사용료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우대 산업으로는 첨단기술 활동과 신물질·에너지 산업, 전자, 자동차, 섬유, 정보기술 산업 등이 있으며, 수산분야에서는 수산물 재배·가공 산업 및 어업·양류 서비스 산업이 투자우대 산업으로 지정되었다.³¹⁾ 그 외, 사회경제적 낙후지역 및 공단, 수출가공공단, 첨단산업공단, 경제특구 등 특정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와 3년 내 투자 자본 6,000억 달러 이상 또는 농촌지역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도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 인센티브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의 경우 대상 산업에 따라 최소 10%~최대 17%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최소 10년에서 최대 전체사업기간 동안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수산분야의 경우,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10년간 15%의 법인세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우대 산업 또는 투자우대 지역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면제되며, 투자 지역 및 투자 분

31) 베트남 Legal Normative Document, 「투자법(67/2014/QH13) 제16조」(검색일: 2018. 12. 11)

야에 따라 최소 3년에서 최대 사업전체기간 동안 토지 임대료가 면제된다.³²⁾

〈표 3-13〉 베트남 투자법 제16조(투자우대 산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활동, 첨단기술지원제품, R&D 활동 • 신소재, 신에너지,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생산 및 30% 이상 부가가치를 갖는 제품, 에너지절약 제품 제조 • 전자제품, 핵심기계제품, 농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 조선 • 섬유·의류·가죽·신발 산업 및 그 지원 산업 • 정보기술 제품,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 농림수산물의 재배 및 가공 산업, 산림조성 및 보호, 소금생산, 어업 및 양륙 서비스, 동식물 품종 및 생명 공학 제품 • 폐기물 수집, 처리, 재활용 • 인프라 시설의 개발, 운영, 관리에 대한 투자 및 대중 여객수송 개발 투자 • 취한 전 교육, 의무 교육, 직업 교육 • 건강검진 및 치료, 의약품, 의약 성분, 필수 의약품, 질병·성병 예방, 치료 의약품, 백신, 생물 의약품, 약초·한방 의약품, 신약 개발을 위한 제반기술 및 생명공학에 대한 과학적 연구 • 장애인 또는 프로 운동선수를 위한 체육시설 투자, 문화 유산 보호 및 개발 • 노인센터, 정신건강센터, 고엽제 환자 치료 센터, 고령자·장애인·고아 보육센터 • 국민 신용금고, 소액 금융기관

자료: 베트남 Legal Normative Document, 「투자법(67/2014/QH13) 제 16조」(검색일: 2018. 12. 1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우대 정책과 함께 자국 안보 및 사회질서·안전, 사회 윤리, 공공복지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를 금지하거나 일정 조건하에 투자를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 「투자법」 개정 이후, 2017년 일부 투자금지 및 조건부 허용 산업 목록이 재개정되었는데, 총 7개 투

32) 베트남 외국인 투자 진흥청, 「외국인 직접 투자 인센티브」(검색일: 2018. 12. 11)

자금지분야(마취제 및 마약, 유해화학물질 등)와 243개 조건부 투자 허용 업종(마사지 서비스 및 보안, 경매, 회계, 보세창고, 보험, 프랜차이즈, 부동산, 통신, 인쇄, 자동차 등)이 규정되었다. 수산분야의 경우, 냉동품 수입(재수출 목적) 및 수산자원개발, 수산물 거래, 수산업용 사료·종자 거래, 어선 건조·현대화 등 일부업종이 조건부 투자허용 산업에 포함되었다.³³⁾ 해당 업종의 투자 조건은 베트남 ‘국가기업 등록 정보포털(<https://dangkykinhdoanh.gov.vn>)’ 상에 기본적인 내용이 등재되어 있으나, 업종별, 지역별로 상이한 경우가 많아 투자계획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표 3-14〉 베트남 조건부 외국인 투자허용 산업 목록-수산관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식품의 재수출을 위한 일시 수입 • 수산자원 개발 • 수산물 거래 • 수산 동물 사료 거래 • 수산 동물 사료 분석 서비스 • 양식장 환경처리 및 개선을 위한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화학적 물질 거래 • 어선 건조 및 현대화 • CITES 부록에 규정된 종의 바다 자연표본에 대한 수입, 수출, 재수출, 운송 및 도입 • 수산 동물 종자 거래 • 수산종자 분석 서비스 • 양식용 생물학적, 미생물학적, 화학적 처리 및 환경처리, 물질 개선 시험 평가 서비스

자료: 베트남 Legal Normative Document, 「조건부 사업 분야 및 거래 목록에 관한 투자법 제6조 및 부록 4의 수정 및 보완(03/2016/QH14)」(검색일: 2018. 12. 11) 참고하여 저자 번역 및 재작성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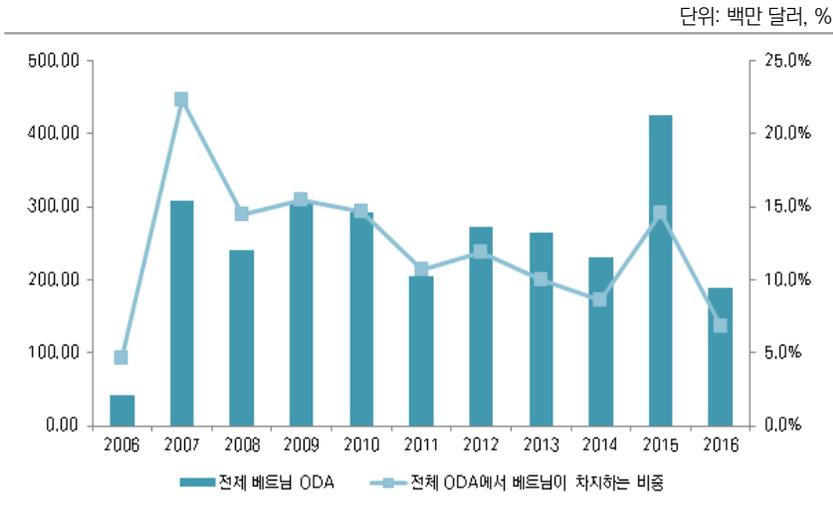
33) 베트남 Legal Normative Document, 「조건부 사업 분야 및 거래 목록에 관한 투자법 제6조 및 부록 4의 수정 및 보완(03/2016/QH14)」(검색일: 2018. 12. 11) 참고하여 저자 번역 및 재작성한 것임.

제2절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1. 한-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현황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약 27.8억 달러로³⁴⁾로, 2006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³⁵⁾ 이 중 베트남 ODA 규모는 1.9억 달러, 전체의 6.8%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 증가에 따라 베트남 ODA 규모도 2006년 이후 연평균 16.5%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6년 기준 우리나라 ODA 국가 중 2위,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3-6〉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ODA 현황(2016)



자료: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34) 2016년 승인액 기준으로, 순지출액은 22.5억 달러로 나타남(Korea ODA 통계, 검색일: 2018. 11. 12)

35) 이하의 내용은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한 것임.

베트남의 전체 ODA에서도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호주 등과 함께 주요 공여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0~2014년 누적 기준 베트남 국가별 ODA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총 12.7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2014년 베트남 내 우리나라 무상원조 규모는 1.08억 달러, 전체의 46.6%로 급증하여 일본(1.1억 달러), 프랑스(0.6억 달러)를 제치고 공여국 1위에 오르기도 하였다.³⁶⁾

〈표 3-15〉 對베트남 주요 공여국 지원 실적

단위: 백만 달러

국가	합계(A+B)	2005~2009(A)	2010~2014(B)
일본	14,853	5,920	8,933
한국	2,200	931	1,268
프랑스	2,493	1,377	1,116
독일	2,132	491	1,641
호주	908	233	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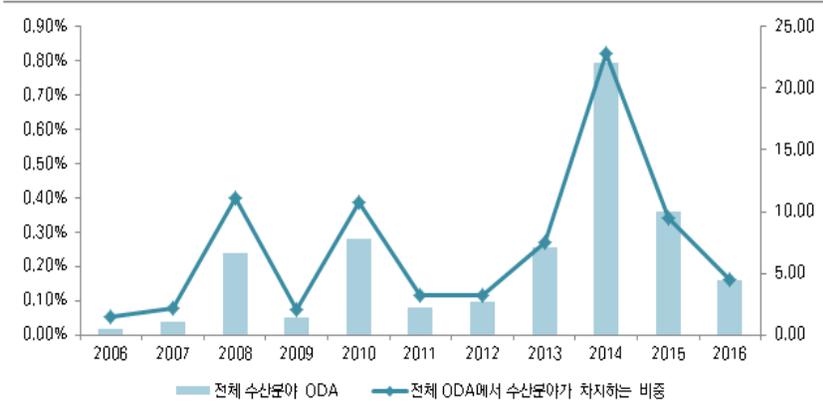
자료: 한국국제협력단(2017), p. 15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수산분야 ODA는 2014년 사상 최대 규모인 2,205만 달러를 달성한 이후 최근 감소세를 보이면서 2016년 기준 448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대비 약 5배 감소한 것이나 2006년 48만 달러와 비교하여 약 10배 증가한 규모이다. 수산분야 ODA는 전체 ODA 분야 중에서 생산(산업부문)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개발 및 어업교육/훈련,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 수산물 유통지원 등이 포함된다.

36) 한국국제협력단(2017), p. 15.

〈그림 3-7〉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ODA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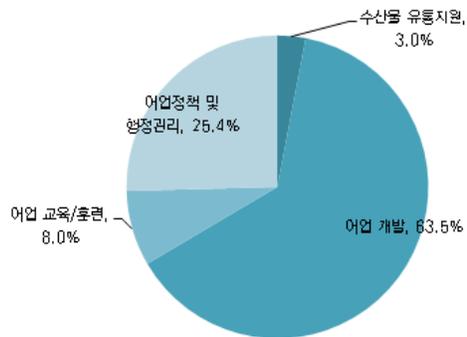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세부 분야별 수산 ODA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최대 지원분야는 어업개발분야로 전체의 약 64.0%가 지원되었다. 이어서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가 25.4%, 어업교육/훈련이 8.0% 순으로 나타났다. 즉, 어업부문 ODA는 수산업 관련 물자 지원 및 인프라 구축 등 수산업 개발사업과 교육, 연수사업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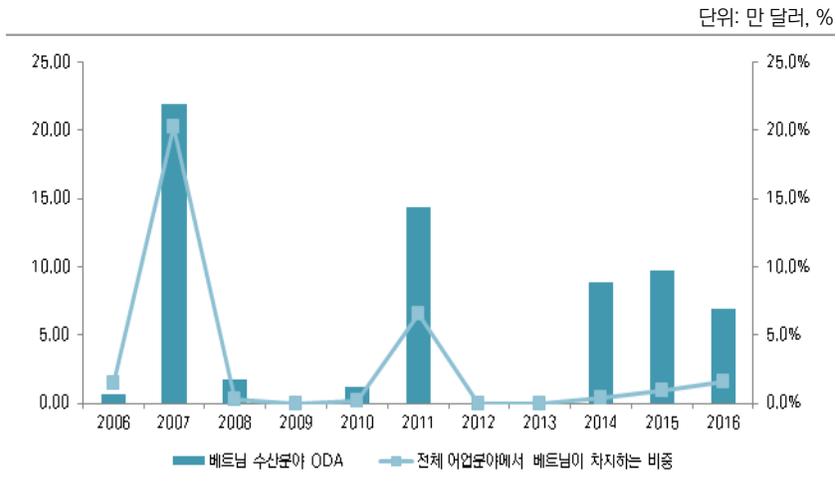
〈그림 3-8〉 수산분야별 ODA 사업 비중(2016)



자료: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대베트남 ODA 지원 규모는 2016년 기준 7만 달러 규모로 전체 수산분야 ODA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전체 ODA 규모 증가로 인해 베트남 수산분야 ODA도 약 20.0%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어 최근에는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연도별 특징을 살펴보면, 2007년 베트남의 수산분야 ODA 규모는 전체 2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아시아국가 중 6위, 전체 11위로 하락하였다.³⁷⁾

〈그림 3-9〉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산분야 ODA 현황(2006~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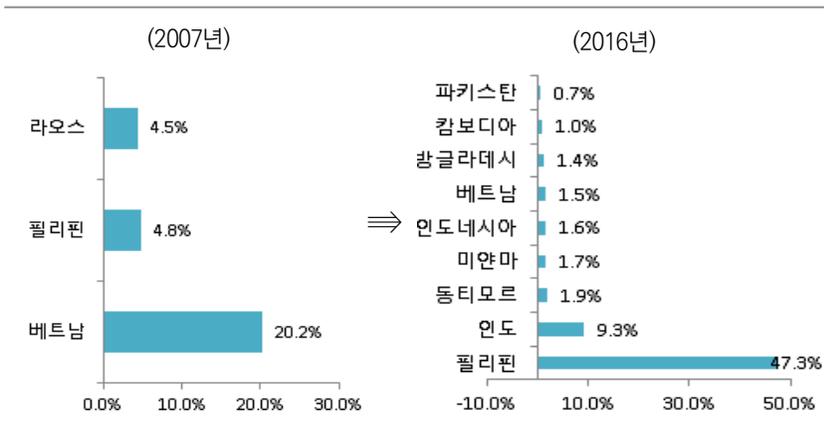
자료: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분야 ODA 비중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정부의 ODA 정책기조에 따른 어업분야 수원국 수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해볼 수 있다. 2007년 총 수산분야 수원국은 수단과 베트남을 비롯한 9개 국가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30개국 이상으로 확

37)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한 것임.

대되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에 속해 있으나, 중점 협력분야로 교통, 교육, 물관리, 공공행정을 지정하고 있어 사회·경제인프라 구축 중심의 ODA 사업이 추진되면서 수산분야 ODA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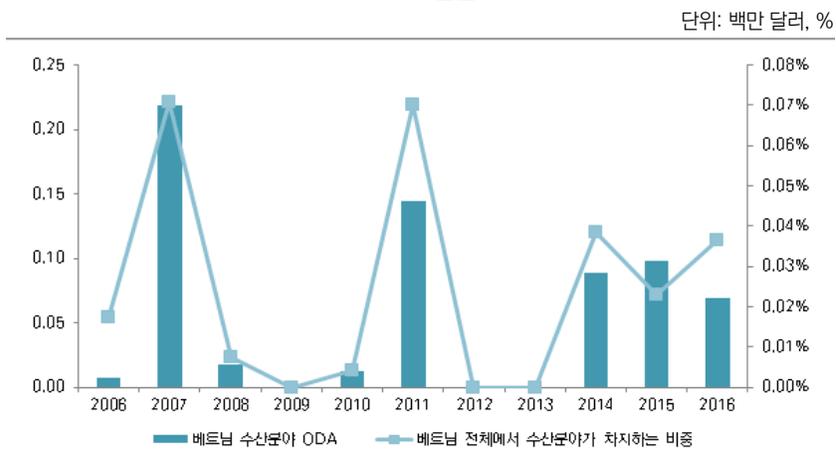
〈그림 3-10〉 우리나라의 아시아 주요국별 수산분야 ODA 사업 비중



자료: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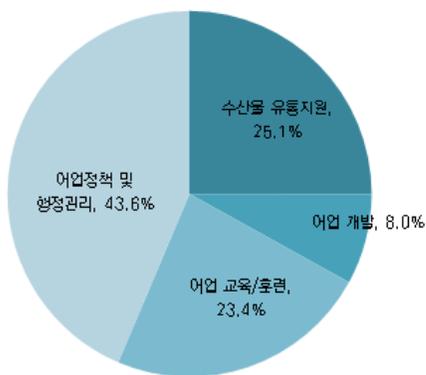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ODA 규모에서 수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기준 0.1% 미만으로 타 분야에 비해 지원사업 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수산분야별 ODA 현황을 살펴보면 어업 정책 및 행정관리가 4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지원과 어업 교육/훈련분야 사업이 각각 25.1%와 23.4%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3-11〉 베트남의 수산분야 ODA 사업 추이



자료: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그림 3-12〉 베트남 수산 분야별 ODA 사업 비중(2016)



자료: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베트남 어업분야 ODA 사업은 연도별 사업규모의 등락폭이 크고 세부 사업유형에 있어서도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 단발성 사업에 그치고 있는 한계점을 보였다. 2007년 22만 달러의 지원사업이 수행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도별 사업 규모 변

동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2009년과 2012~2013년에는 지원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베트남 ODA 사업이 어업분야를 포함한 생산(산업)분야보다는 사회·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어업분야 ODA 사업은 일회성·단발성 성격이 많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지 못하고 관련 기관의 증장기적 사업 발굴에 한계를 노출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참고로 베트남의 사회·경제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의 ODA 규모는 2016년 전체의 약 90.0%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2. 한-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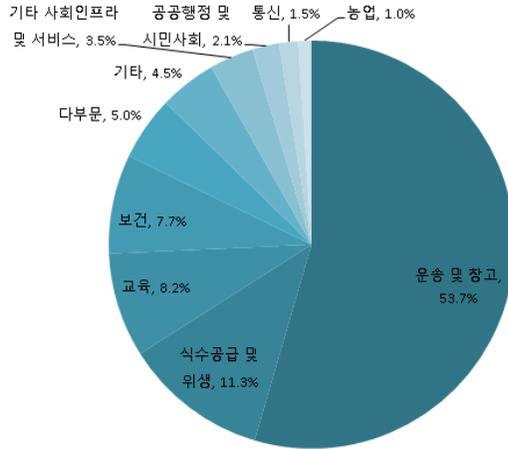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개발협력 사업형태는 무상원조보다 양허성 차관 형태의 유상원조 규모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16년 기준 무상원조액은 4.7억 달러인 반면 양허성차관액은 23.2억 달러로 집계되었다.³⁹⁾ 분야별로는 운송 및 창고 분야 지원 실적이 전체의 53.7%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식수공급 및 위생이 11.3%, 교육과 보건의 각각 8.2%와 7.7%를 차지하였다. 분야별 지원 실적을 기간별로 비교해보면, 2006년에는 식수공급 및 위생, 보건, 교육 등 사회기반시설 및 인프라 중심의 지원 사업이 추진된 반면, 2016년에는 운송 및 창고,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기타 다분야 등 경제협력 목적의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유형별로는 전체 베트남 ODA 사업의 92.0%가 프로젝트 유형이었으며, 기술협력 및 예산지원 유형이 각각 2.0% 수준으로 나타났다.⁴⁰⁾

38)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39)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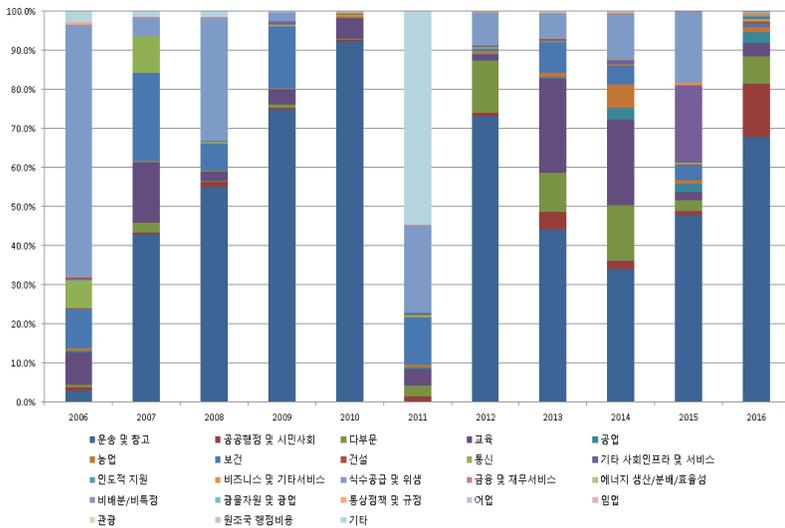
40)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그림 3-13〉 분야별 베트남 ODA 사업 비중 비교(2006~2016)



주: 2006~2016년 베트남 ODA 사업 합계 비중
 자료: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그림 3-14〉 분야별 베트남 ODA 사업 비중 추이



자료: Korea ODA 통계(검색일: 2018. 11. 12)

〈표 3-16〉 베트남 주요 공여국 지원 실적(1994-2017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사업유형	사업명	사업규모	수행기관
1994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5,429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연수생 초청	수산양식	13,090	부산수산대
1996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수산양식	9,544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999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	8,99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03	연수생 초청	연안 수산양식기술	5,603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연수생 초청	어로기술	3,418	한국해양수산연구원
2004	연수생 초청	연안 수산양식기술	11,84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05	연수생 초청	수산양식	15,762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07	봉사단	봉사단 파견	42,284	호아빈농업지역 개발부
	연수생 초청	수산물 가공 및 유통요소 중점관리	9,822	해양수산 인력개발원
2008	봉사단	봉사단 파견	17,825	호아빈성농업지역 개발부
	연수생 초청	연안 수산양식기술	17,92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009	연수생 초청	수산물 가공 및 유통요소 중점관리	14,618	국립수산물과학원
2010	연수생 초청	수산물 가공 및 유통요소 중점관리	12,427	수산인력개발원
	연수생 초청	수산물 가공 및 유통요소 중점관리	8,694	수산인력 개발센터
2011	NGO, PPP 지원	베트남 어업관리계획 수립 등 재정 지원	135,460	FAO
2014	연수생 초청	석사학위-국제수산 과학협동 (2014-2015)	44,921	부경대학교
	연수생 초청	수산물 가공 및 유통요소 중점관리 (아시아)	44,341	부산광역시
2015	연수생 초청	수산물 가공 및 유통요소 중점관리 (아시아)	26,800	부산광역시
2016	연수생 초청	ASEAN 특별연수 - 수산 유통 및 가공역량강화	17,307	부산광역시
	연수생 초청	전략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역량 강화	5,500	한국수산 자원관리공단
	연수생 초청	석사학위-국제수산과학협동 (2016-2017)	30,108	부경대학교
	연수생 초청	선진 수산기술 및 해사 안전관리 정책 교육 등 수원국 수산행정능력 제고	16,140	해양수산부
2017	봉사단	베트남 어업정책 및 행정관리 관련 WFK-퇴직전문가 파견	85,071	

자료: Korea ODA 통계 및 KOICA 통계조회서비스(검색일: 2018. 11. 12) 참조하여 저자 재작성한 것임

어업분야의 베트남 개발협력은 대부분 무상원조 사업형태로 한국 국제협력단, 해양수산부(구)농림수산식품부) 등 ODA 및 수산분야 주관부처 수행으로 이뤄졌다. 대베트남 어업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상세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총 24건의 개발협력 사업이 수행되었는데 대부분 수산물 가공, 위생 부문 기술협력 또는 연수생 초청사업이었다.

또한, 2018년부터 베트남 호이안시 Cham Islands를 대상 지역으로 ‘수산자원조성 관리모델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수행되며 사업규모는 19억 원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해당지역 수산자원조성·관리모델 개발 및 관련 기술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사업 등이다.⁴¹⁾

제3절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산 협력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

앞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수산분야 경제협력과 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양국 간의 수산분야 교류는 과거에 비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이나, 전체 협력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분야에서 투자는 수산물 가공, 판매 분야에, 개발협력의 경우 초청연수 및 기술교육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수산분야의 대베트남

41) 해양수산부(검색일: 2018. 12. 18)

진출·투자 확대 및 교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수요와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수산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개요

설문조사 모집단은 국내 수산물·수산가공 식품 수출입 업체 중 베트남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 계획이 있는 수산 기업과 수산관련 대학, 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표본 수는 총 162개이며, 표본 오차는 95.0% 신뢰수준에서 $\pm 7.7\%$ 이다. 조사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약 한달 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와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크게 응답자 특성, 신남방정책 인식도 및 영향 평가, 신남장정책 대응 베트남 수산분야 투자활성화 방향으로 구성하였으며, 모집단 특성에 따라 수산업계용과 수산분야 전문가용으로 구분하였다.

〈표 3-17〉 조사 설계

구분	정의
조사대상	국내 수산물·수산가공 식품 수출입업체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표본 수	162개
조사 방법	온라인 조사 및 전화인터뷰 병행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7.7\%$
모집단 출처	한국수산물무역협회 회원사 285개사 및 한국수산경영학회 회원
자료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을 거쳐 자료 파일 산출, 산출된 자료파일은 통계패키지인 SPSS를 이용한 통계처리
조사 기간	2018년 10월~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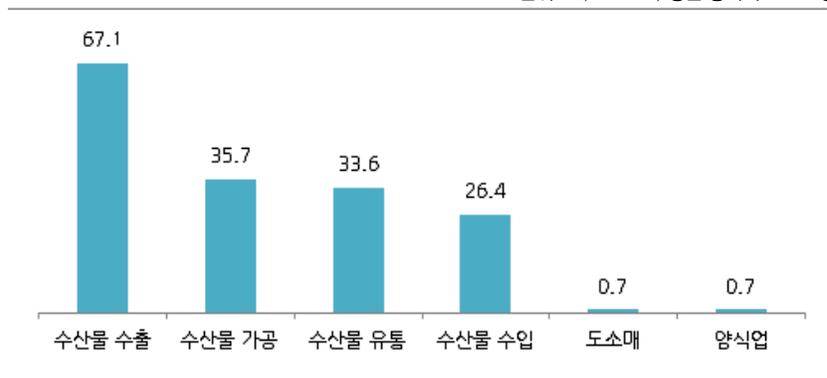
2. 조사내용

1)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상은 수산물 가공 수출입 업체 관계자 140명 및 대학 등 전문가 2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수산물 가공 수출입 업체의 업체 유형으로는 ‘수산물 수출’업체가 전체의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산물 가공’ 35.7%, ‘수산물 유통’이 33.6%, ‘수산물 수입’ 업체가 2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산물 수출업체 중에서는 증견기업과 베트남 교역 실적이 있는 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5〉 응답 업체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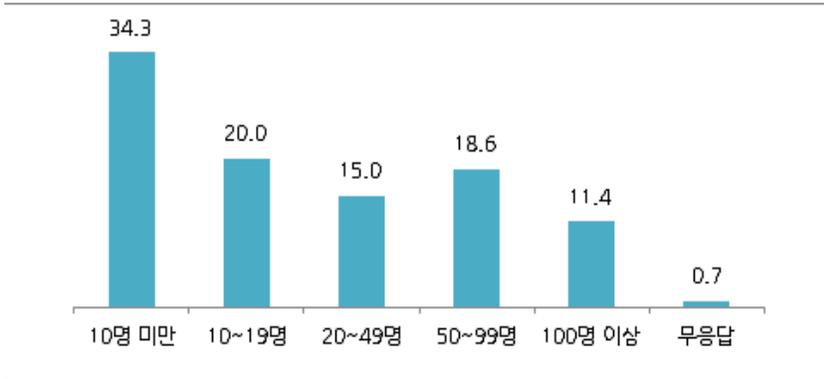
단위: %, N=140, 평균 종사자 173.9명



응답 업체의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10명 미만’ 업체가 34.4%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19명’ 20.0%, ‘50~99명’ 18.6%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종사자 수는 174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응답 업체 중 전체의 약 11.4%를 차지하는 종사자 수 100인 이상 기업의 종사자 수가 평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16〉 응답 업체의 평균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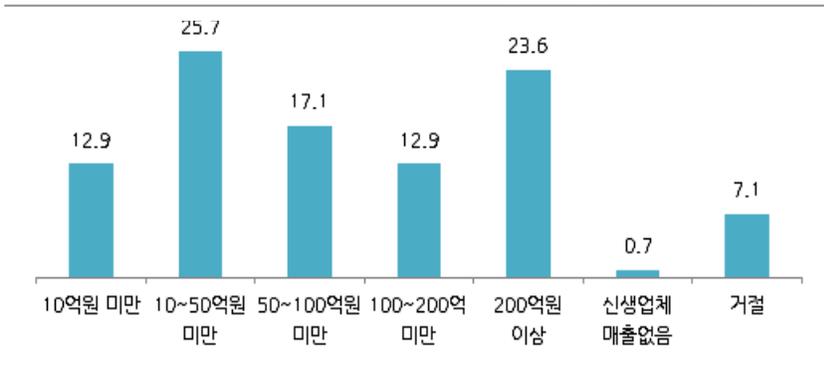
단위: %, N=140



응답 업체의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은 ‘10~50억 원 미만’이 25.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억 원 이상’이 23.6%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액은 수출업체와 베트남과의 교역 중인 업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체 응답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487억 6,600만 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특정 대기업 평균 매출액이 포함되어 전체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3-17〉 응답 업체의 평균 매출액

단위: %, N=140, 평균 매출액: 4,876,571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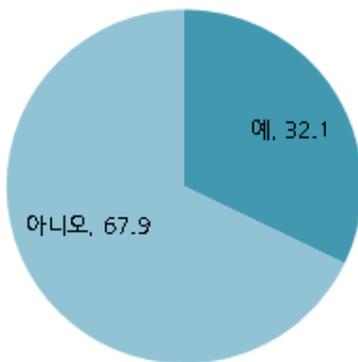


베트남 교역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전체 응답 업체의 32.1%가 베트남과의 수출입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교역이 있는 업체는 중견기업과 수입업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과 교역관계에 대한 질의에서는 ‘수출’이 전체의 71.1%, ‘수입’이 37.8%로 나타났다. 이 중 ‘현지에서 생산 후 한국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업체도 2.2%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해조류’가 42.2%로 가장 높았고, ‘어류’ 20.0%, ‘수산물가공식품’ 15.6%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수출업체의 현지 법인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95.6%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업체는 단 2개사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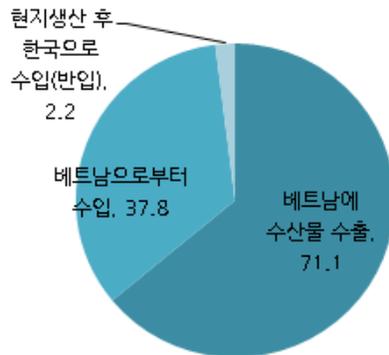
〈그림 3-18〉 응답 업체의 베트남 교역 여부와 교역관계

단위: %, N=(교역여부)140, (교역관계)45

〈응답업체의 베트남 교역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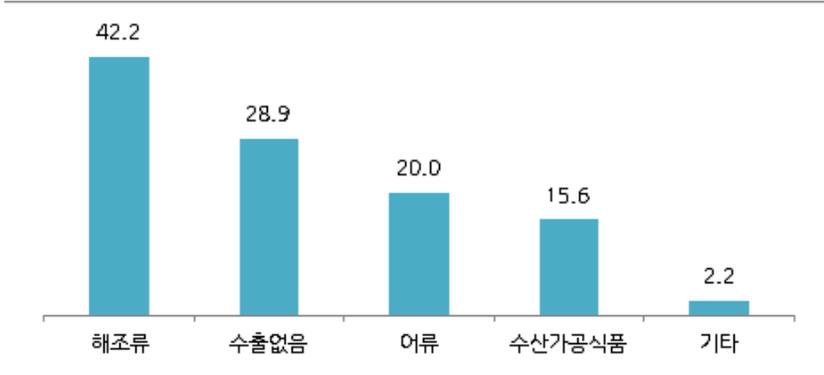


〈베트남 수출업체의 교역관계〉



〈그림 3-19〉 베트남 수출업체의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N=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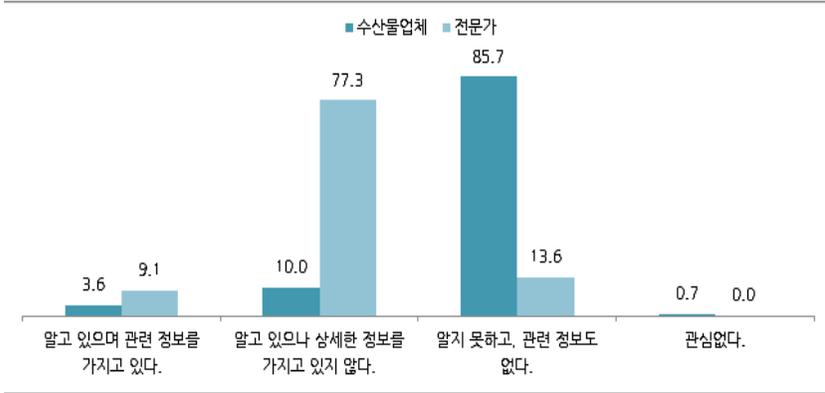
2) 신남방정책의 인지

‘신남방정책을 알고 있거나 관련 정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응답 업체의 10.0%가 ‘알고 있으나,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 업체의 85.7%는 신남방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련 정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신남방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업체는 중견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산분야 전문가 그룹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7.3%가 신남방정책을 인지하고 있으나 자세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남방정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신남방정책 추진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해 질의한 결과, 65.8%의 응답자가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응답자는 중견기업과 수산물 유통, 그리고 베트남과 교역 중인 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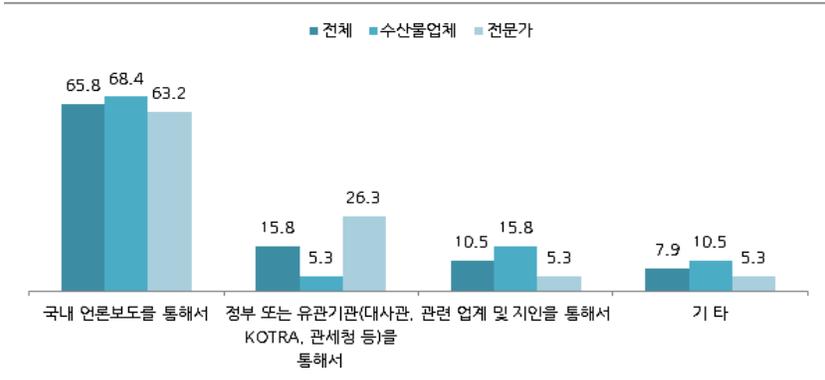
〈그림 3-20〉 신남방정책 인지 및 정보 소유 여부

단위: %, N= (수산물 수출)140, (전문가) 22



〈그림 3-21〉 신남방정책 추진 정보 습득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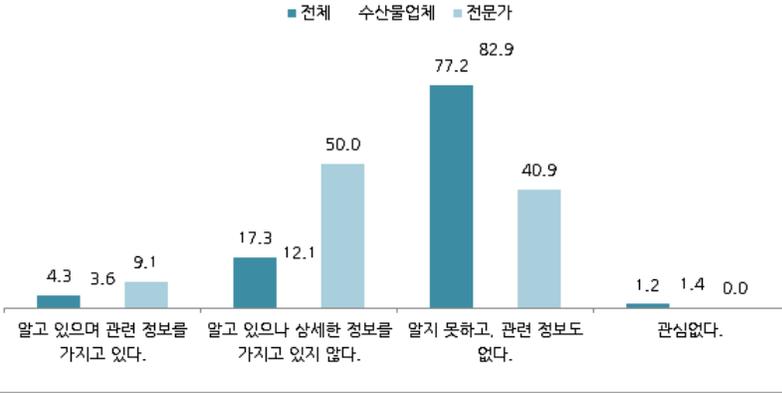
단위: %, N= (전체) 140, (수산물 수출)140, (전문가) 22



‘베트남 정부의 수산 가공분야에 대한 경제협력 수요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련 정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서는 전체의 77.2%가 ‘알지 못하고, 관련 정보도 없다’고 응답하였다. 단, 중견기업과 전문가 층에서는 ‘알고 있으나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0.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2〉 베트남 정부의 수산 가공분야 경제협력 수요 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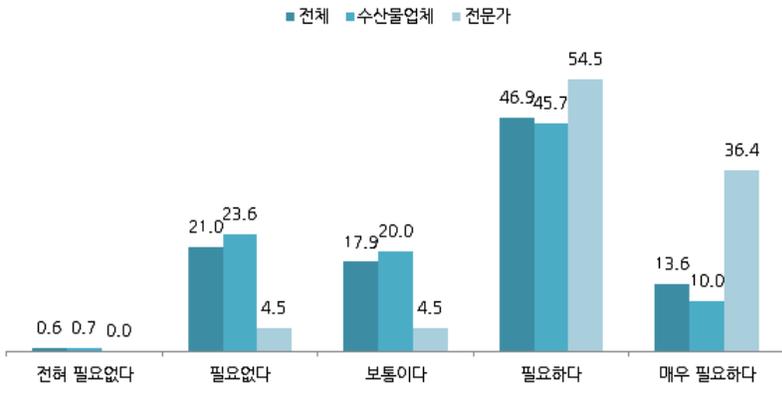
단위: %, N= (전체) 162, (수산물 수출)140, (전문가) 22



‘베트남 정부와의 수산식품·가공분야 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중견기업과 베트남과 교역 중인 업체,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3〉 베트남과 수산식품·가공분야 개발협력 필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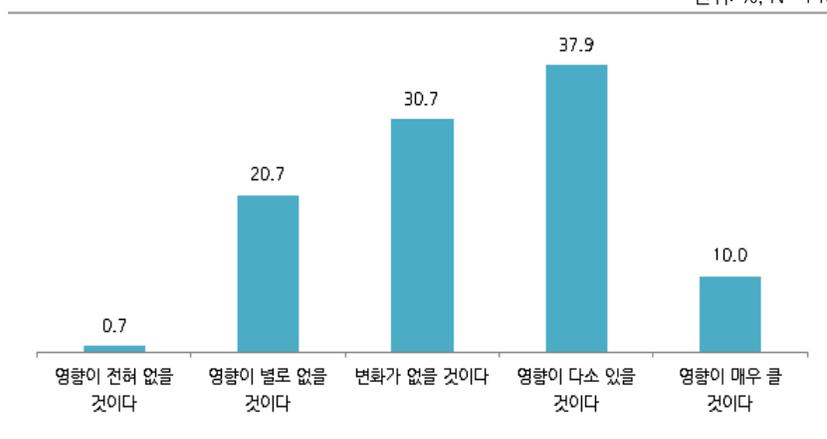
단위: %, N= (전체) 162, (수산물 수출)140, (전문가) 22



신남방정책 추진 시 수산물 가공 수출입 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9%,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1.4%로 나타났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업체는 중견기업과 베트남과 교역 중인 업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4〉 신남방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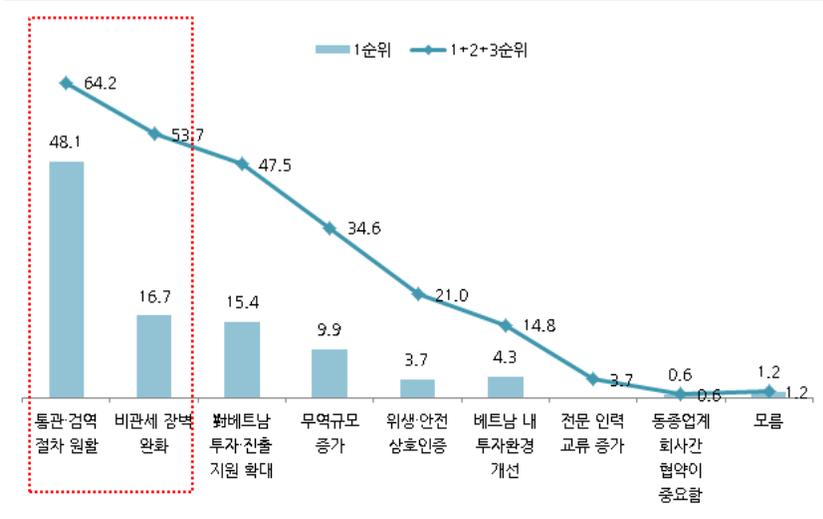
단위: %, N= 140



신남방정책 추진 시 수산물 가공 수출입 업체에 예상되는 긍정적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 '통관·검역 절차 원활'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1%, '비관세 장벽 완화'가 16.7%, '대베트남 투자·진출 지원 확대'가 1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전문가 그룹의 경우 응답자의 54.5%가 '대베트남 투자·진출지원 확대' 영향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무역규모 증가' 응답 비율도 22.7%로 높게 나타나 수산물 업계 예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림 3-25〉 신남방정책 추진 시 예상되는 긍정적 요인

단위: %, N=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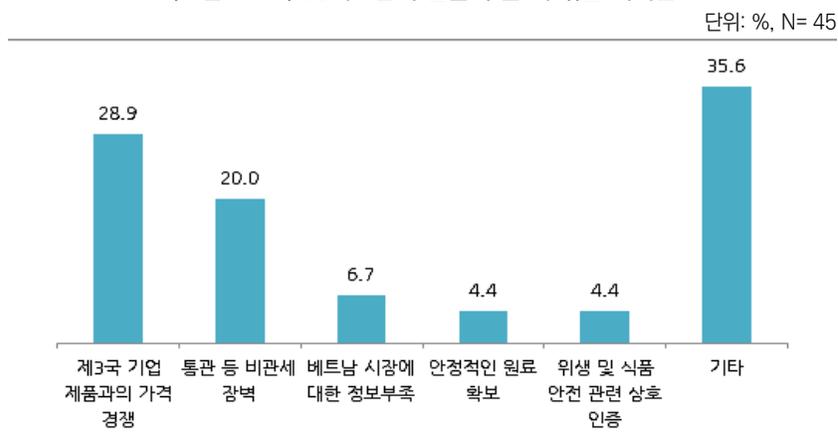
주: '전문인력 교류 증가'의 경우, 1순위 응답은 집계되지 않음

3) 베트남 수산물 수출업계 애로사항 및 협력 수요

신남방정책이 대베트남 수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앞선 현재 대베트남 수산물 교역 시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우선, 베트남에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질의한 결과, '제3국 기업 제품과의 가격경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통관 등 비관세 장벽'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였고 그 외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6.9%를 차지하였다. 특히 제3국 기업과의 경쟁부문은 중견기업과 가공형태 수출입 업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26〉 베트남 수산물 수출 시 겪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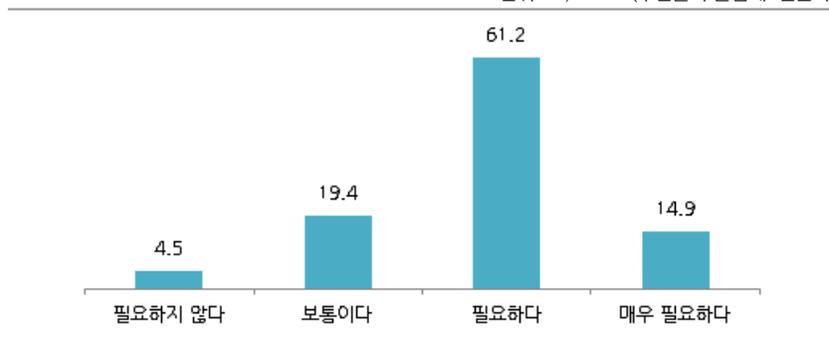


주: '기타'(35.6)는 '없음(6.7)'과 '수출하지 않음(28.9)' 응답비율을 나타냄

위와 같이 대베트남 수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이 필요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응답자의 76.1%가 '필요하다'라고 답하였다. 특히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4개의 증견기업은 모두 베트남 개발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즉, 대부분의 수출업체에서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7〉 베트남 수산물 수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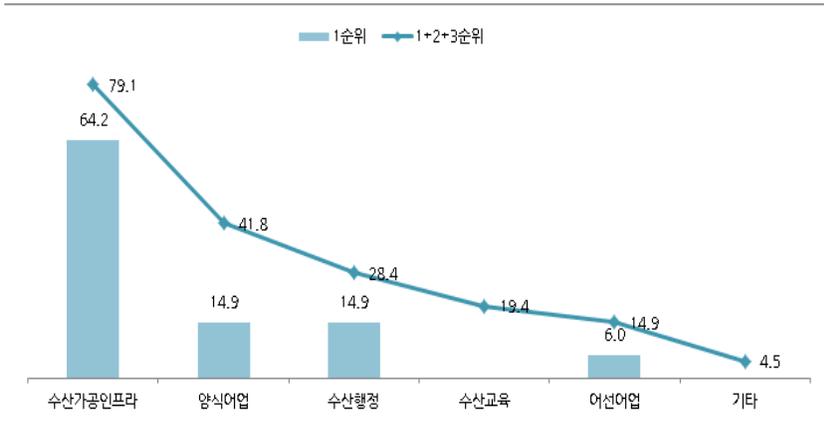
단위: %, N= 67(수산물 수출업체+전문가)



베트남과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협력 분야에 대해 질의한 결과, '수산가공인프라'라고 응답한 비율이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수산행정과 양식어업이 각각 14.9%, 어선어업이 6.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중견기업에서 '수산가공인프라'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28〉 對베트남 개발협력이 필요한 분야

단위: %, N= 67(수산물 수출업체+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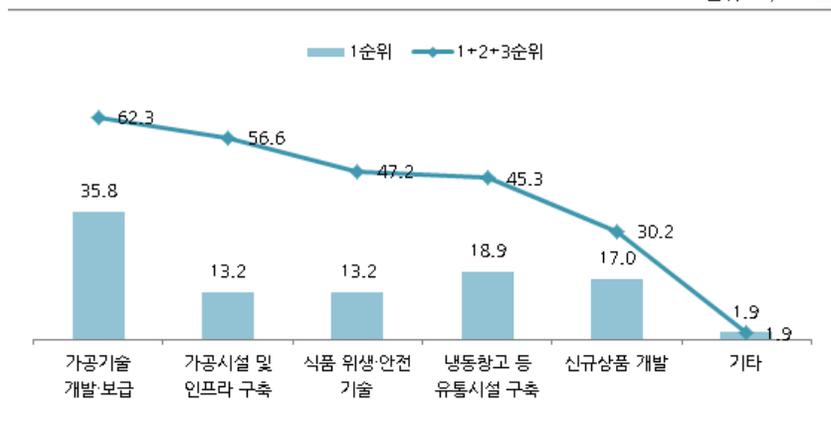
주: 1) '기타'는 '수산교역(1.5)', '관세(1.5)', '가공 및 어업전반의 인력(1.5)'을 포함함

2) '수산교육'의 경우, 1순위 응답은 집계되지 않음

각 분야별 구체적인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질의한 결과,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수산가공인프라' 분야에서는 '가공기술 개발·보급'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냉동창고 등 유통시설 구축'도 18.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을 취합한 결과에서도 '가공기술 개발·보급'이 62.3%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가공시설 및 인프라 구축' 56.6%, '식품 위생·안전 기술' 47.2%, '냉동창고 등 유통시설 구축' 45.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29〉 베트남 개발협력 분야 - 수산가공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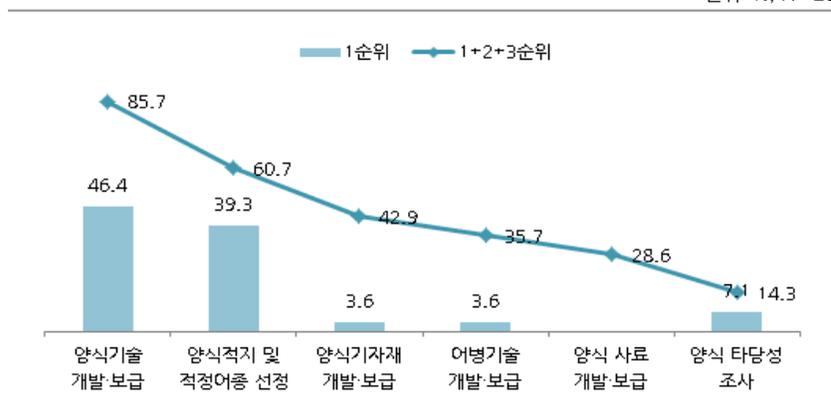
단위: %, N= 53



양식어업의 구체적인 협력분야로는 ‘양식기술 개발·보급’이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양식적지 및 적정어종 선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3%로 나타났다. 이 외 ‘양식기자재 개발·보급’ 및 ‘어병기술 개발·보급’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3.6%로 나타났다.

〈그림 3-30〉 베트남 개발협력 분야 - 양식어업

단위: %, N=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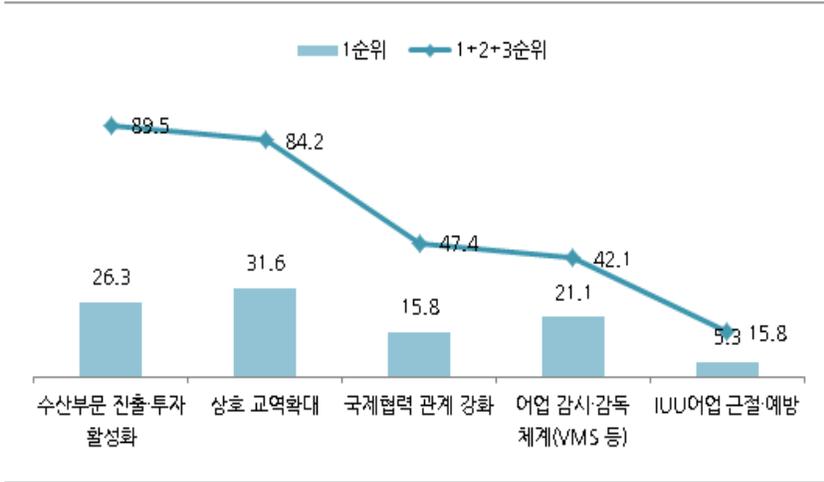


주: ‘양식 사료 개발·보급’의 경우, 1순위 응답은 집계되지 않음

수산행정부문의 구체적인 베트남 수산협력 분야로는 '상호 교역확대'가 31.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수산부문 진출·투자 활성화'가 26.3%, '어업 감시·감독'이 21.1%, '국제협력 관계 강화'가 15.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31〉 베트남 개발협력 분야 - 수산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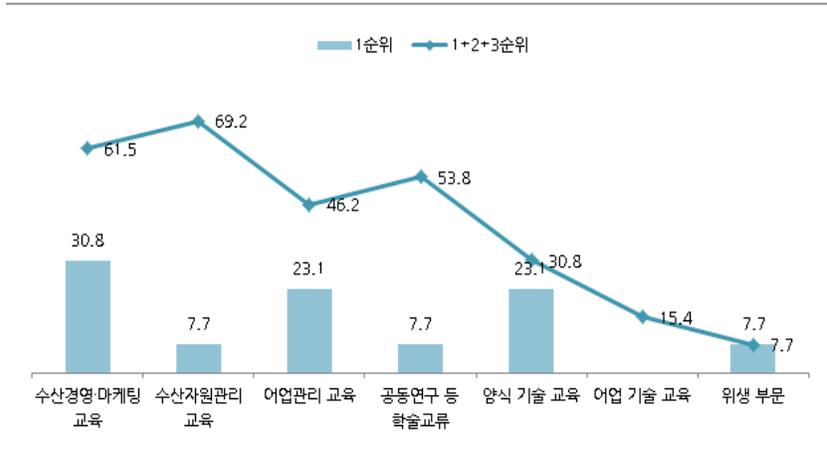
단위: %, N= 19



수산교육의 구체적인 협력분야로는 '수산경영·마케팅 교육'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양식기술 교육', '어업관리 교육'이 각각 23.1%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응답 결과에서는 '수산자원관리 교육'이 전체의 6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수산경영·마케팅'이 61.5%로 뒤를 이었다.

〈그림 3-32〉 베트남 개발협력 분야 - 수산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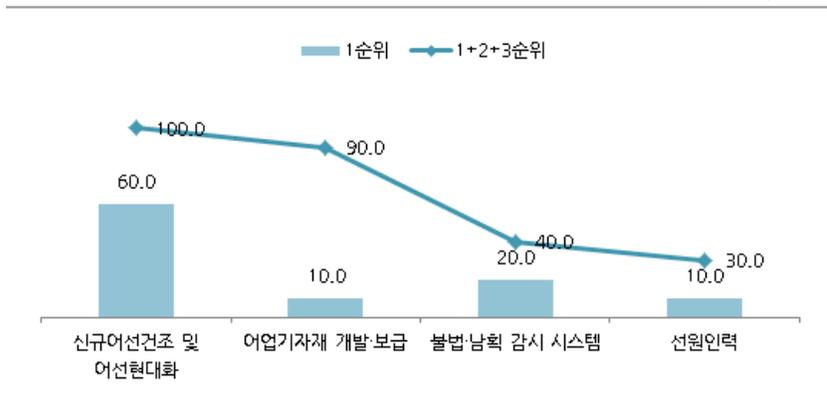
단위: %, N= 13



어선어업부문에서는 ‘신규어선건조 및 어선 현대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60.0%로 가장 많았다. 중복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신규어선 건조 및 어선 현대화’는 모든 업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어업 기자재 개발·보급’에 대한 응답도 90.0%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3〉 베트남 개발협력 분야 - 어선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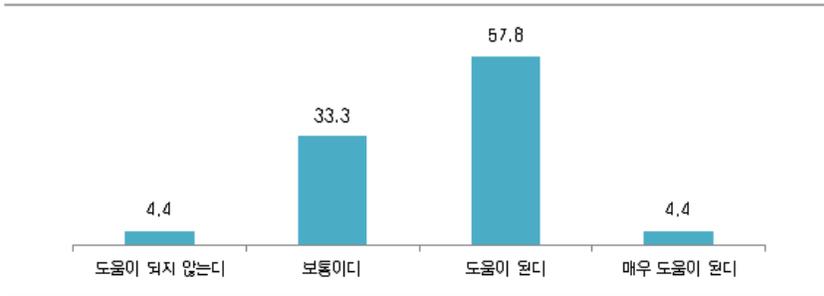
단위: %, N= 10



신남방정책 추진에 따른 대베트남 수출 영향에 대한 질의 결과, 응답자의 62.2%는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였다. 즉, 업계에서는 베트남 개발협력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신남방정책에 따른 베트남 수산물 수출 시 예상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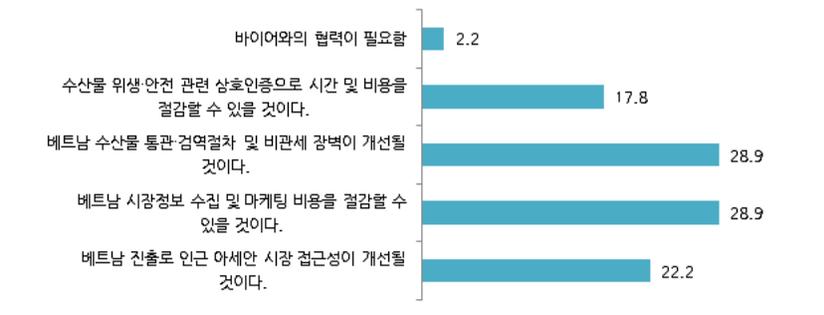
단위: %, N= 45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예상되는 구체적 혜택으로는, ‘베트남 시장정보 수집 및 마케팅 비용 절감’과 ‘통관·검역 절차 및 비관세 장벽 개선’이 각각 28.9%를 차지하였다. 응답자별 특성을 살펴보면 시장정보 수집과 마케팅 비용 절감은 가공 분야에서, 통관·검역 및 비관세 장벽 개선은 유통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5〉 신남방정책에 따른 베트남 수산물 수출 시 예상되는 혜택

단위: %, N=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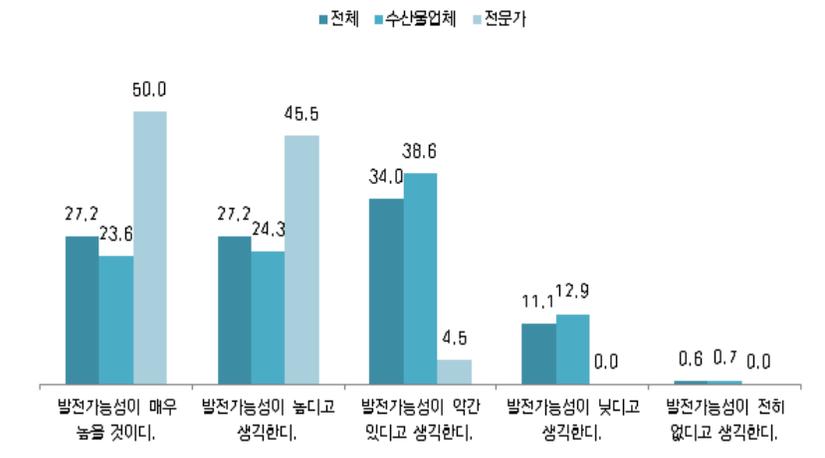


4) 신남방정책 추진 시 유망 투자분야 및 개선 과제

베트남 수산분야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향후 베트남 수산분야 발전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 '약간 있음'이 34.0%, '발전가능성이 높거나 매우 높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2%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 그룹은 향후 베트남의 수산분야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전문가 층에서는 응답자의 95% 이상이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업계에서는 47.9%만이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림 3-36〉 베트남 수산분야 발전 가능성

단위: %, N= 162



향후 베트남과의 신규 진출, 투자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0%가 현재 교역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며, 74.3%는 신규투자나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현재 베트남과 교역 실적이 없는 업체 중 25.3%는 신규 진출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 업체는 중견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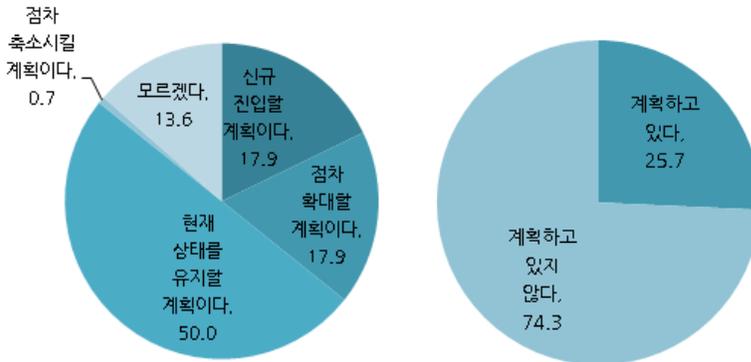
향후 5년 이내 베트남 신규투자 및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투자 분야를 질의한 결과, 응답자의 58.3%는 '수산가공'이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수산물 물류 및 유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3.3%이다. 응답자별 투자유형을 살펴보면, 개인기업은 '수산가공'분야, 중견기업은 '수산물 물류 및 유통'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형태로는 '단독투자'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외법인 설립'이 27.8%, '합작투자'가 22.2%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투자'는 자본능력을 갖춘 중견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개인기업도 '단독투자' 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7〉 향후 베트남 수산물 교역 확대 및 신규 진출, 투자확대 계획

단위: %, N=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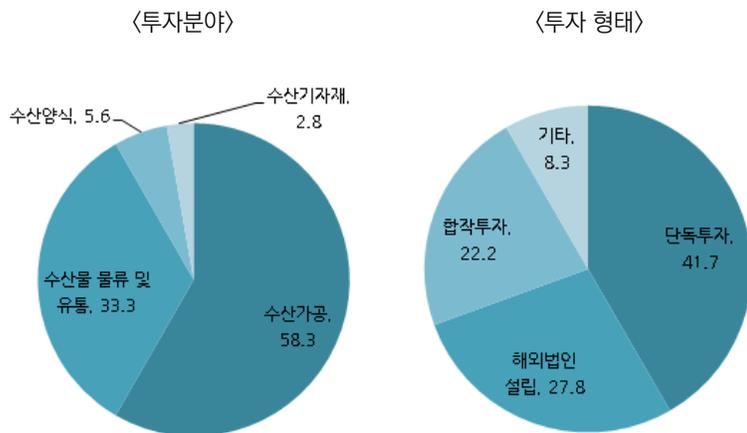
〈수산물 교역 확대 및 신규진입 계획〉

〈향후 5년 이내 베트남 신규 투자 또는 투자확대 계획〉



〈그림 3-38〉 향후 베트남 수산분야 투자분야 및 투자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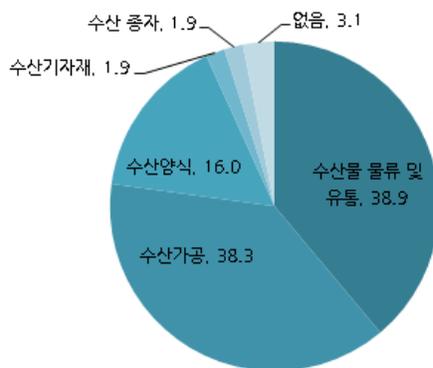
단위: %, N= 36



한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베트남 수산부문 투자분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수산물 물류 및 유통'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하였고, '수산가공' 38.3%, '수산양식' 16.0% 순으로 이어졌다.

〈그림 3-39〉 베트남 수산분야 유망 투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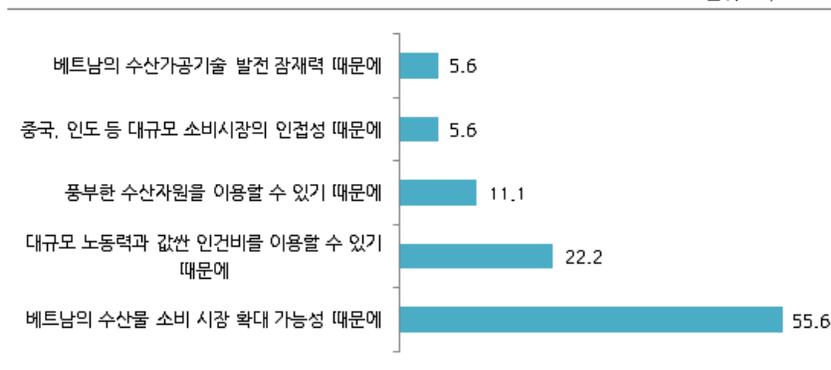
단위: %, N= 162



향후 베트남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베트남의 수산물 소비 시장 확대 가능성’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수산분야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의와 동일한 결과로, 향후 베트남 수산물 시장 확대에 대한 국내 수산물 수출입 업체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베트남의 대규모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22.2%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0〉 향후 베트남 수산분야 신규 투자 및 투자확대 이유

단위: %, N=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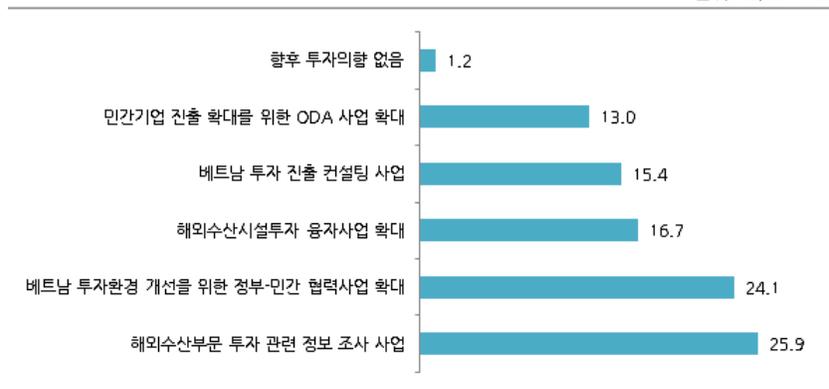


베트남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에 관한 질의결과에서는 ‘해외수산부문 투자 관련 정보 조사 사업’이 전체 응답자의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베트남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민간 차원의 협력사업 확대’가 24.1%, ‘해외수산시설투자 용자사업 확대’와 ‘베트남 투자 진출 컨설팅 사업’이 각각 16.7%와 15.4% 순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기업 진출 확대를 위한 ODA 사업 확대’ 응답비율도 13.0%로 나타났다. 그밖에 기타의견으로는 ‘유통부문 바이어 소개’ 및 ‘수출입 관련 문서작성

간소화', '인력교류' 등과 관련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41〉 베트남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단위: %, N= 162



제4절 시사점

앞서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현황 및 경제·개발협력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양국은 수산가공 식품분야에 있어 매우 활발한 교역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15년 한-베트남 FTA 발효에 따라 전체 수산물 관세 양허가 적용되는 2018년을 기점으로 양국 간의 수산물 교역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제조·품질관리 능력, 충분한 소비시장 및 안정적인 정치여건 등으로 외국인 투자 및 기업경영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향후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투자 및 진출확대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양국 수산가공 식품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 간의 수산물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수산부문 투자규모도 어업을 포함한 수산식품 관련 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문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에 기 진출한 수산관련 업체도 전체 86개사 중 6개사에 불과하며, 이 중 5개 업체가 수산가공업으로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개발협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전체 수산 ODA 규모는 2006~2016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한 반면,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 수산부문 ODA 규모는 2007년 20% 내외에서 최근 1.0%대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마저도 단기 초청연수 및 기술교육 등 일회성·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과 베트남 정부의 수산가공 식품 분야 개발 수요 표명 등 양국의 수산협력 강화 의지는 이미 확인되었다. 다만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의 무역 균형을 이루고 수산부문 투자·진출 확대 등 경제·산업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각적 접근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사업발굴·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의 베트남 진출 수산업체 및 수산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對베트남 수산물 무역에 있어서의 애로사항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영향, 향후 활용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수산가공 식품 수출입 업체와 관련 전문가 그룹은 '신남방정책'과 베트남 정부의 수산가공 분야의 경제 협력 수요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수출입 업체의 경우

‘신남방정책’이나 베트남 정부의 협력 수요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전문가 그룹에서는 대부분 인지하고 있으나 자세한 정보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관련된 계획 및 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으로, 관련 정보 노출이 제한적이고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내용 또한 언론보도를 통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국내 수산업계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높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국내 수산업계와 전문가 그룹은 ‘신남방정책’을 통한 베트남 개발협력 필요성과 영향, 그리고 베트남 수산분야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향후 대베트남 진출 및 투자 확대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베트남과 교역하고 있는 업체 모두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향후 투자·진출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3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다만, 현재 업계에서는 대베트남 수산물 수출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관, 검역 및 비관세 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정책 수립 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베트남 개발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수산가공 및 물류·유통’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베트남 신규 투자 및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분야와 향후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베트남 수산분야를 질의한 문항에서 다수의 업체가 ‘수산가공 및 물류, 유통’분야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향후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 수산기업 진출 및 교역 활성화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는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업계 의견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남방정책’ 대응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투자 관련정보 조사 및 대베트남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민간 차원의 협력사업 확대, 해외투자시설 용자사업 확대, 베트남 투자 진출 컨설팅 사업 등으로 도출되었다. 즉, 현재 대베트남 수산 개발협력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 교육/연수 사업에서 벗어나, 현지 사업 환경 조사 및 개선, 투자 컨설팅 및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콜드체인 시스템 및 냉동·냉장창고 등 물류시설 지원과 수산식품 가공 공장 건립 및 신제품·신 가공기술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협력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주요국의 對베트남 수산부문 진출 전략과 시사점

앞서 베트남 수산업 현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협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대베트남 개발협력을 기반으로 수산부문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노르웨이와 호주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개발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OECD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기준 노르웨이와 호주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수산분야 대베트남 개발협력사업을 가장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제1절 노르웨이의 對베트남 진출전략

1. 노르웨이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노르웨이와 베트남은 1971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였다. 1995년 이중관세 부과 금지에 관한 협약, 1996년 개발협력에 관한 협약, 1997년 경제 및 무역협약에 관한 협약, 항공·물류 협정, 2003년 차관 신용 특혜관련 MOU, 2004년 개발협력 MOU, 양자 간 개발 채무스왑(SWAP) 협정, 2012년 기후·산림협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에는 베트남 대통령이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표 4-1〉 노르웨이-베트남 양자협력 현황

체결연도	내용
1971	노르웨이-베트남 수교
1995	이중관세 부과 금지에 관한 협약
1996	개발협력에 관한 협약
1997	경제 및 무역협약에 관한 협약
	항공·물류 협정
2003	차관 신용 특혜관련 MOU
2004	2004~2009 개발협력 MOU 체결
	양자 간 개발 채무스왑 협정 체결
2008	베트남 대통령 노르웨이 방문
2012	기후·산림협약

자료: 노르웨이 외교부(검색일: 2018. 11. 1)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에너지, 수산업, 기후변화, 양성평등, 빈곤퇴치, 경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에너지·수산 분야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베트남과 수산 및 에너지 분야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석유, 가스 등 에너지산업, 조선업, 수산기자재, 양식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노르웨이의 대베트남 투자건수 25건, 투자금액 84.2백만 달러로 92개 베트남 투자국 중

38위,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대베트남 투자분야는 주로 가공·제조업(49.0%), 농수산업(47.0%)이다.⁴²⁾

2. 노르웨이 對베트남 협력 전략

1) 개발협력

노르웨이는 외교부 산하의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 Norwegian Agency for Development Cooperation)을 통해 공적원조사업을 지원하는데, 지원 분야는 기후변화 및 환경,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교육, 에너지, 보건, 고등교육 및 연구, 수산분야로 구분된다.⁴³⁾ 특히, 노르웨이는 자국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개발을 위한 수산업(FfD: Fish for Development)’ 및 ‘개발을 위한 에너지(EfD: Energy for development)’를 추진한다. FfD 사업은 크게 수산 연구 및 개발, 사업 개발, 수산 자원 관리 및 법제도 정비로 구분된다. 첫째, 수산연구 및 개발 사업은 주로 교육 및 기술 전수로 이루어지는데,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난센 프로그램(Nansen Programme)이 있다. 난센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수산자원조사 및 평가,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현재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총 60개국이 난센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둘째, 사업개발은 노르웨이의 기술 및 경험을 제공하여 수원국의 사업성이 높은 민간 분야를 발굴하고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셋째, 수산자원관리 및 법제도 정비의 경우, 수원국의 수요에 기반하여 노르웨이 정부 및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다.

42) Vietnam Business Forum(검색일: 2018. 11. 17).

43) 이하의 내용은 Norad, 「Vietnam」(검색일: 2018. 11. 2)참고하여 저자 요약·정리한 것임.

노르웨이의 대베트남 중점 개발 협력 분야는 교육, 공공행정, 경제 개발, 수산업, 빈곤퇴치 등이다. 2008~2016년까지 추진된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의 대베트남 수산분야 ODA 사업은 총 18건(약 3백만 달러)으로 수산개발 9건, 수산교육 5건, 수산정책 3건, 수산연구 1건이다. 노르웨이는 타당성 조사, 시범사업, 역량강화, 인력 양성을 통해 베트남 수산분야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사업 과정에 노르웨이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메기시범양식장 설립 사업에 노르웨이 3개 기업체⁴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였다. 양어용 사료제조사인 Skretting 사는 현지 기업 인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식용 사료공장설립 타당성조사에 참여했다. 양어용 사료제조사인 EWOS사도 사료 공장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했다. 수산용 백신제조사인 Pharmaq사도 질병진단을 위한 연구소 설립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노르웨이 기업의 베트남 진출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외 노르웨이는 FFD의 일환으로 베트남 수산업법 제정,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역량강화, 연구 및 교육을 통한 민간분야 양식개발 촉진 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신수산업법 제정을 통해 양식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베트남 연안에 15개 보호지역이 지정되었다. 어업 및 양식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수산자원관리를 실시하게 되었다. 나트랑 대학교와는 20년 전부터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으로 노르웨이의 대학들과 협력을 맺고 노르웨이의 선진화된 수산 기술을 전수 받고 있다.

44) Akva Group, Pharmaq, EWOS.

〈표 4-2〉 노르웨이의 對베트남 수산ODA 사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사업명	사업분야	지원액	합계
2008	양식 수산물 가공 기술 이전 타당성조사 (Marine Bioproducts AS)	수산개발	0.03	0.08
	복합소재 어선 개발 및 시장조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Mundal Bst AS)	수산정책	0.05	
2009	메콩델타지역 지속가능한 새우 양식을 위한 타당성 조사 (COOP NORGE, Norges Vel)	수산개발	0.11	0.69
	메기 시범양식장 설립 컨소시엄 (Akva Group ASA, Pharmaq, EWOS)	수산개발	0.15	
	양식 사료 공장 설립 타당성조사(EWOS)	수산개발	0.10	
	질병진단을 위한 연구소 설립 관련 역량강화 (Pharmaq, 스텔링 대학교)	수산교육	0.33	
2010	탐기양 라군 지역 주민 위한 지역 통합 프로그램 (소득 다양화 사업) (NGO, 민간기구, PPP, 연구소 지원)	수산개발	0.04	0.09
	나트랑 대학교 협력 중간검토(수산연구역량강화 지원)	수산교육	0.05	
2011	양식어류사료 생산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Skretting AS) ※베트남 현지 기업 인수 가능성 검토 연계	수산개발	0.04	1.7
	EWOS의 현지 직원 사료 생산 역량강화(EWOS)	수산교육	0.14	
	해면 어류양식연구 역량강화 (투자자, 종사자, 교육기관, 연구소 등 이해관계자 참여)	수산연구	1.52	
2012	메콩델타지역 베트남 메기 벨류체인 구축 (노르웨이 경험 및 정책 컨설팅)	수산정책	0.05	0.11
	메콩델타지역 베트남 메기 벨류체인 계획 프로세스 (노르웨이 경험 및 정책 컨설팅)	수산정책	0.06	
2014	지역 양식어업인 대상 고품질 사료 생산 교육(EWOS)	수산교육	0.06	0.275
	지역 양식업을 위한 고품질 사료 생산 교육(EWOS-HSE)	수산개발	0.10	
	고품질 사료 생산 시범 사업(EWOS)	수산개발	0.11	
	인력교류 타당성조사(Peace Corps, FK Norway 등)	수산교육	0.005	
2016	인력교류 타당성조사(FK Norway, Peace Corp 등)	수산개발	0.000	0.000
				2.945

자료: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검색일: 2018.10. 31) 참고하여 저자 번역 재작성한 것임

2) 경제협력

노르웨이의 대베트남 수출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⁴⁵⁾ 2016년 기준 수출액은 284백만 유로, 수입액은 353백만 유로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2~2016) 수출입 평균 성장률은 각각 23.5%, 3.9%를 기록했다. 2016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수산물(198백만 유로)이 가장 많고(전체 수출의 70.0%), 그 다음으로 기계 장비(25백만 유로), 전자제품(21백만 유로) 등이 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신발(113백만 유로), 의류(44백만 유로), 전자기계(32백만 유로), 가구(20백만 유로), 가축제품(20백만 유로) 등이 있다.

교역 및 투자를 지원하는 주요기관으로는 이노베이션 노르웨이이다. 2004년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산업-지역개발펀드(The Norwegian Industrial and Regional Development Fund), 노르웨이 무역위원회(The Norwegian Trade Council), 노르웨이 투자자문사무소(The Norwegian Consultative office for Investors), 노르웨이 관광 위원회(The Norwegian Tourist Board)의 통합을 통해 설립됐다.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는 통상산업수산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Fisheries)⁴⁶⁾의 연구혁신부에 속하고, 무역 및 투자, 관광 분야에서 노르웨이의 기업과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지원한다.⁴⁷⁾ 현재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등 30개국에 지사가 있다.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는 기업과 산업의 혁신 강화, 국내외 시장에서 노르웨이 기

45) 이하의 내용은 EFTA, 「Trade between Norway and Vietnam」(검색일: 2018. 11. 2)참고하여 저자 요약·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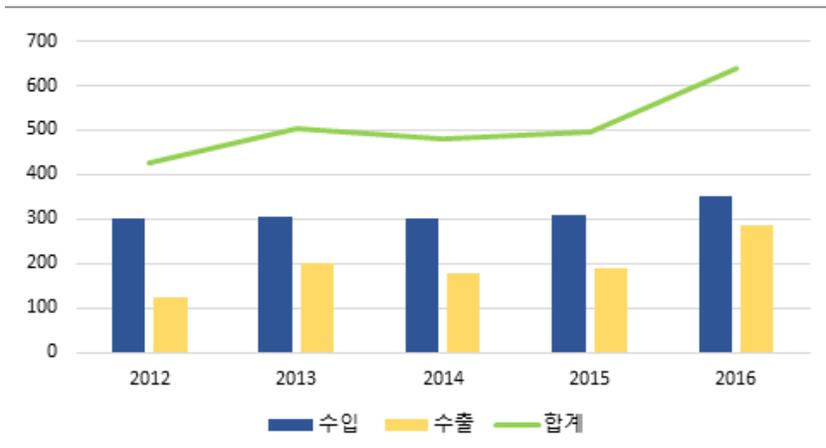
46) 경제정책부, 해양부, 무역정책부, 연구혁신부, 어업양식부, 경쟁정책부로 구성.

47) 이하의 내용은 Innovation Norway, 'About Innovation Norway' (검색일: 2018.11.2.) 참고하여 저자 요약·정리한 것임.

업의 경쟁력 구축, 노르웨이 기업 홍보, 아이디어를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연결, 기업 간 교류, 지역사회 및 연구소 간 지식 교류에 기여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 클러스터를 통한 협업 성장 지원, 노르웨이 기업 및 산업의 국제화,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업과 산업의 지속가능성, 문화 창조산업에 대한 기술 및 자문, 멘토링 서비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회, 대출 및 보증 등을 제공하여 기업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4-1〉 노르웨이-베트남 교역 현황

단위: 백만 유로



자료: EFTA, 「Trade between Norway and Vietnam」(검색일: 2018. 11. 2)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한 것임

이노베이션 노르웨이 베트남 사무소는 노르웨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시장,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파트너 연결 지원, 기업의 효과적인 현지적응에 대한 컨설팅, 개도국 부패위험관리 및 무역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⁴⁸⁾ 이노

48) 이하의 내용은 Innovation Norway in Vietnam(검색일: 2018.11.02.)참고하여 저자 요약·정리한 것임.

베이션 노르웨이는 베트남 내 유망 투자분야로 수산업, 조선업, 수처리, ICT, 에너지 분야가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는 수산업 분야의 유망 투자분야로 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분야를 선정하였다. 어업분야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로 장비(어로 탐지기, 어선용 제빙기, 갑판장비), 어항정비가 해당된다. 양식분야는 사료 생산, 양성관리기술, 자동화 설비, 해면양식 기술 개발 등 첨단 양식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평가 되었다. 수산물 가공분야는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해조류 가공, 수처리 분야가 유망 투자분야로 선정되었다. 베트남 수산분야 진출방법으로는 현지 생산 공장 설립, M&A, 기술이전 등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3〉 노르웨이의 對베트남 수산 투자 유망 분야 선정

투자 분야	세부분야	진출 방법	잠재적 사업파트너	
수산업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신기술이 적용된 어로 장비 및 어선 아이스 슬러리 제빙기(소형어선 탑재) 어군탐지 갑판, 어항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생산 공장 설립 어선 건조 기술 및 어선 설계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수산물 가공업체, 소매업체 수출업자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업자 협회(VASEP) 기기 유통업체
	양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료 생산 양성 기술 고도화(새우 등) 자동화 기술(사료 배급, 수처리) 해면양식 개발(어류, 해조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협력 질병, 사료, 양성 관리 역량강화 및 기술 이전 양식 수처리 기술 이전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부가가치 가공 기술(훈제메기 등) 어류 및 새우 부산물의 부가가치화 해조류 가공 가공산업 수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장·냉동 기자재 공급 가공시스템자동화 공급 	

자료: Innovation Norway in Vietnam, 「Seafood: Vietnam has strong demand on seafood that Norwegian companies can response」(검색일: 2018.11. 2)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한 것임

매년 주베트남 노르웨이 대사관은 이노베이션 노르웨이, 베트남농업개발부와 수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양국의 수산부처 관계자 및 기업이 참석하여 베트남 수산분야 동향, 지원정책 및 유망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2018 수산세미나에서는 노르웨이의 IUU 관리, 블루오션전략, 어업관리에 대해 논의하였다.⁴⁹⁾

3. 對베트남 진출 사례

2016년 기준 베트남에 진출한 노르웨이 수산 기업 누적 수는 15여 개로 추정된다. 노르웨이 기업들은 수산용 백신, 새우 및 어류 사료, 양식기자재 분야에 현지기업과의 합작투자 또는 단독 투자 형태로 진출해 있다. 베트남 주요 진출 수산 기업으로는 수산용 백신제조사인 Pharmaq, 양어용 사료회사 EWOS사와, Skretting사, 양식기자재업체 Steinsvik사와 Aqualine사, 수산물가공회사 Marine Harvest사가 있다.

〈표 4-4〉 베트남 주요 진출 기업 현황

기업명	분야	설립연도	투자 형태	기업형태	지역
PHARMAQ	수산용 백신 제조사	2008	단독투자	유한책임회사	호치민
Skretting	사료 제조	2010	단독투자	공장설립	롱안
EWOS	사료 제조	2011	합작투자	합작법인	롱안
Marine Harvest	수산물 가공 및 수출	2013	기업인수	유한책임회사	동나이
Steinsvik	양식기자재	2014	단독투자	공장설립	나트랑

자료: Innovation Norway(2016), p. 17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한 것임

49) Norwegian Embassy in Hanoi(검색일: 2018. 11. 2)

노르웨이 기업은 노르웨이 개발협력 사업을 베트남에 진출하기 위한 시험대로 적극 활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양식용 사료제조사인 EWOS사와 Skretting사는 식용 사료공장설립 타당성조사(2009), 양식 어류사료 생산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2011)에 참여하여 베트남 진출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EWOS사는 2011년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후 현지 생산역량 확보를 위해 현지 인력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산용 백신제조사인 Pharmaq사는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전 메기시범양식장 설립 사업(2009), 노르웨이 스텔링대학교와 베트남 어류질병진단을 위한 연구소 설립관련 역량강화(2009) 사업에 참여하여 베트남 기술 수준, 수요,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타당성조사 및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해 개발협력 사업을 베트남 진출의 기회로 활용하였고, 사업과 연관 역량강화를 추진하여 현지 인력과 기업에 기회를 제공하는 상호 Win-Win의 개발협력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산용 백신제조사인 Pharmaq사는 2008년 단독투자로 호치민시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2017년 기준 현지인력 18명을 고용하고 있다. Pharmaq사는 2006년부터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양식되는 어종인 참메기(Pangasius) 백신 ALPHA JECT Panga 1 개발을 시작하여 2009~2010 시범 사업을 거쳐 베트남 정부로부터 2013년 정식 판매 허가를 받았다. 해당 백신은 베트남에 최초로 등록된 어류 백신이다. 50) 2014년 베트남지역개발부와 Pharmaq사는 백신개발에서의 협력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다.⁵¹⁾

50) Aquafeed.com(검색일: 2018. 11. 5)

51) Permira.com(검색일: 2018. 11. 5)

〈그림 4-2〉 노르웨이 ODA 사업과 베트남 진출 기업의 상관성

년도	수산 부문 ODA 사업	사업 연관성		기업명	분야	설립 연도
		설립 타당성조사	인력양성			
2009	메기 시범 양식장 설립 컨소시엄 (Akva Group ASA, Pharmaq, EWOS)	→	→	PHARMAQ	수산물 백신 제조사	2008
	양식 사료 공장 설립 타당성조사 (EWOS)					
	질병 진단을 위한 연구소 설립 관련 역량강화 (Pharmaq, 스톨링 대학교)					
2011	양식어류사료 생산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Skretting AS) ※베트남 현지 기업 인수 가능성 검토 연계	→	→	Skretting	사료 제조	2010
	EWOS의 현지 직원 사료 생산 역량강화 (EWOS)					
2014	지역 양식어업인을 위한 고품질 사료 생산 교육(EWOS)	→	→	EWOS	사료 제조	2011
	지역 양식업을 위한 고품질 사료 생산 교육 (EWOS-HSE)					
	고품질 사료 생산 시범 사업 (EWOS)					

자료: 저자 작성

양식용 사료제조사인 Skretting사는 2010년 베트남 현지 새우 사료제조사인 Tomboy Aquafeed를 인수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하였다.⁵²⁾ 2017년 Skretting사는 양식장이 밀집한 메콩델타 지역과 인접

한 롱안성의 산업단지에 연간 6만 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최첨단 생산 공장을 설립하였다.

양식용 사료제조사인 EWOS사도 2011년 롱안성 산업단지에 공장을 보유한 현지 기업 Anova Coporation과 합작투자자로 베트남 사료 시장에 진출하였다.⁵³⁾ EWOS사는 약 90만 달러를 투자하여 지분 51%를 확보하였다. 해당 공장에서는 연간 킬라피아 및 메기용 사료 2만 톤을 생산하고, 대부분의 사료는 대리점 유통망을 통해 메콩 델타지역으로 유통되고, 일부는 수출된다. EWOS사의 2016년 매출은 3천 9백만 달러를 기록했다.⁵⁴⁾

수산물 가공회사인 Marine Harvest사는 2013년 베트남 동나이 산업 지역에 위치한 베트남 현지기업 Amanda Foods를 인수하고, 기술 및 설비에 약 10백만 달러를 투자하였다.⁵⁵⁾ Amanda Foods는 Marine Harvest사의 아시아태평양 지사로 냉동 연어 및 참치를 가공하여 수출한다. 연간 생산량은 1만 2천 톤이며, 현지인력 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양식기자재 회사인 Steinsvik사는 2014년 나트랑에 기자재 생산 공장을 건립했다.⁵⁶⁾ 2014년 기준 현지 인력 약 5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나트랑의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Steinsvik사와 협력을 맺은 고등학교와 대학은 Steinsvik사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

52) 이하의 내용은 Undercurrentnews(검색일: 2018. 11. 6)참고하여 저자 요약·정리한 것.

53) 이하의 내용은 Biinform(검색일: 2018. 11. 5)참고하여 저자 요약·정리한 것임.

54) Biinform(검색일: 2018. 11. 5)

55) 이하내용은 Amanda Foods Vietnam 및 Yellow Pages(검색일: 2018. 11. 5)참고하여 저자 요약·정리한 것임.

56) 이하의 내용은 STEINSVIK, 「Factory opening in Vietnam」(검색일: 2018. 11. 2)참고하여 저자 요약·정리한 것임.

다. 2016년 Steinsvik사는 베트남 및 전 세계 양식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로 양식기자재 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립했다.

제2절 호주의 對베트남 진출 전략

1. 호주의 對베트남 진출 개요

1973년 호주와 베트남은 수교를 맺고, 무역경제협력(1990), 상호 투자촉진보호협약(1991), 이종과세방지협약(1992), 개발협력에 관한 MOU (1993)를 체결하고, 무역, 투자, 개발 협력, 교육,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2009년 포괄적 파트너십, 2015년 강화된 포괄적 파트너십 체결을 계기로 양국의 고위급 회담 및 교류, 경제 및 개발협력이 증가하였다.

〈표 4-5〉 호주-베트남 양자 협력 현황

체결연도	내용
1973	호주-베트남 수교
1990	무역경제협력협약
1991	상호투자촉진보호협약
1992	이종과세방지협약
1993	개발협력에 관한 MOU 체결
2009	포괄적 파트너십 체결
2015	강화된 포괄적 파트너십 체결
2016	2016-2019 호주-베트남 액션플랜 수립
2018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Vietnam country brief」(검색일: 2018. 11. 7)의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한 것임

호주와 베트남 양국은 2015년 강화된 포괄적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지역 및 국제협력, 경제성장, 무역, 산업개발 상호 협력, 개발지원, 국방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2018년 수교 45년이 되는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을 체결하고, 무역, 투자, 정치 외교, 국방 안보, 과학기술, 인력 교류 등 6개 분야에서 상호협력 및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특히, 인프라, 에너지, 제조업, 엔지니어링, 식품, 물 위생, 농업 및 수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수출입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규제(Red Tape)를 폐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2018년 기준 호주의 누적투자건수는 412건, 금액은 약 20억 달러로 126개 투자국 중 20위를 차지한다.⁵⁷⁾ 투자는 제조·가공업, 농축수산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협력관련 베트남은 호주의 10대 ODA 수혜국으로, 무상원조 비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⁵⁸⁾ 2017~ 2018년 베트남에 지원한 공적개발규모는 약 8,400만 호주달러에 달한다.⁵⁹⁾

2. 호주의 對베트남 협력 전략

1) 개발협력

호주의 개발협력 정책 목표는 각 국가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동시에 호주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하에서 대베트남 ODA 개발 분야에 민간분야 참여, 고숙련 인력 양성, 여성의 사회적 권익 향상에 초

57) The Economic Times(검색일: 2018. 11. 7)

58) 라미령·신민금·신민이(2018), p. 32 표 2-13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한 것임.

59) The Independent(검색일: 2018. 11. 8)

점을 두고 있다. 호주의 2017~2018년 대베트남 ODA 규모는 약 8400만 호주 달러로, 교육(3,200만 달러, 38.2%), 인프라 및 무역(2,200만 달러, 27.5%), 농수산(930만 달러, 11.1%), 개발지원(860만 달러, 10.2%), 보건(470만 달러, 5.6%), 거버넌스(440만 달러, 5.2%), 기후변화 레질리언스 구축(190만 달러, 2.2%) 순으로 지원되었다.⁶⁰⁾

호주의 수산 ODA 주체는 호주국제농업연구센터(ACIAR: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이다.⁶¹⁾ 수산 ODA의 추진 목표는 첫째, 혁신적인 수산 자원관리, 둘째, 생산성 향상, 셋째, 지속가능한 양식 및 어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된 대베트남 수산 ODA 사업은 총40건(약 3백만 달러)이며, 주요 지원 사업 분야는 수산연구 26건, 수산정책 10건, 수산개발 3건, 수산교육 1건이다. 호주의 수산 ODA 사업은 주로 양식어업과 관련되어 있다. 베트남 새우 바이러스 PCR⁶²⁾ 실험 역량 개선 사업(2008, 2010년), 아시아-태평양 어류치어생산 및 배양 기술 개선(2008~2009년) 베트남 천해양식을 위한 사료의 지속성 개선(2009~2014년), 베트남 양식연구 채택의 정책, 제도, 경제적 제약 개선(2008~2010년), 패류 종묘생산 역량 강화(2008~2011년)를 추진 등 베트남 양식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양식 사료개발, 어류양식 기술 개선 등을 지원하였다. 또한 2018년 호주 국제농업연구센터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MOU를 체결하여 2017~2027년까지 농업, 수산업 및 산림분야의 170개 사업에 약 7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170개 사업의 목표는 R&D 지원, 전문성 강화 교육 훈련을 지원하여 농업, 수산, 산림 분야 연구 및 여성 연구자 연구 역량강화이다.

60) 이하의 내용은 Australia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17), p. 35 참고하여 저자 요약·작성한 것임.

61) Vneconomictimes(검색일: 2018. 11. 7)

62) 중합요소 연쇄반응(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표 4-6〉 호주의 對베트남 수산ODA 사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년도	사업명	사업분야	지원액	합계
2008	베트남 새우 바이러스 PCR 실험 역량 개선	수산연구	0.09	0.692
	도루묵 연못 양식	수산연구	0.04	
	아시아-태평양 어류 치어 생산 및 배양 기술 개선	수산연구	0.002	
	양식 어종의 집단 유전학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	수산연구	0.03	
	스피니 랍스터의 지속가능한 양식 개발	수산연구	0.43	
	탐기양 라군 개선	수산개발	0.01	
	탐기양 라군 생계수단 개선을 위한 백합양식	수산개발	0.01	
	패류 중요생산 역량 강화	수산개발	0.03	
베트남 양식연구 채택의 정책, 제도, 경제적 제약 개선	수산정책	0.05		
2009	베트남 천해양식을 위한 사료의 지속성 개선	수산연구	0.12	0.334
	소규모 양식 개선	수산연구	0.03	
	베트남 양식연구 채택의 정책, 제도, 경제적 제약 개선	수산정책	0.06	
	아시아-태평양 어류 치어생산 및 배양 기술 개선	수산연구	0.002	
	머드크랩 저비용 배합사료 잠재성 평가	수산연구	0.001	
	스피니 랍스터 지속가능한 양식 개발	수산연구	0.04	
	패류 중요생산 역량 강화	수산연구	0.06	
	탐기양 라군 생계수단 개선을 위한 백합양식	수산연구	0.015	
소규모 새우양식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지역 메커니즘 강화	수산정책	0.006		
2010	소규모 새우양식업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지역 메커니즘 강화	수산정책	0.001	0.605
	패류 중요생산 역량 강화	수산연구	0.06	
	베트남 새우 바이러스 PCR 실험 역량 개선	수산연구	0.007	
	아시아-태평양 해삼양식 연구	수산연구	0.01	
	지속가능한 스피니 랍스터 양식 개발	수산연구	0.09	
	베트남 천해양식을 위한 사료의 지속성 개선	수산연구	0.43	
베트남 양식연구 채택의 정책, 제도, 경제적 제약 개선	수산정책	0.007		

년도	사업명	사업분야	지원액	합계
2011	육상 바닷가재 생산 개발	수산연구	0.10	0.689
	메콩 유역 어류의 경제성 평가	수산정책	0.009	
	패류 종묘생산 역량 강화	수산정책	0.11	
	스피니 랍스터 지속가능한 양식 개발	수산연구	0.08	
	베트남 천해양식을 위한 사료의 지속성 개선	수산연구	0.39	
2012	메콩 유역 어류의 경제성 평가	수산정책	0.01	0.484
	스피니 랍스터 지속가능한 양식 개발	수산연구	0.05	
	베트남 천해양식을 위한 사료의 지속성 개선	수산연구	0.42	
	NACA/FAO 지역자원센터 진단 훈련	수산교육	0.004	
2013	메콩 유역 어류의 경제성 평가	수산정책	0.01	0.37
	스피니 랍스터 지속가능한 양식 개발	수산연구	0.03	
	베트남 천해양식을 위한 사료의 지속성 개선	수산연구	0.33	
2014	메콩 유역 어류의 경제성 평가	수산정책	0.01	0.12
	스피니 랍스터 지속가능한 양식 개발	수산연구	0.03	
	베트남 천해양식을 위한 사료의 지속성 개선	수산연구	0.08	
				3,294

자료: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검색일: 2018. 10. 31) 참고하여 저자 번역
재작성 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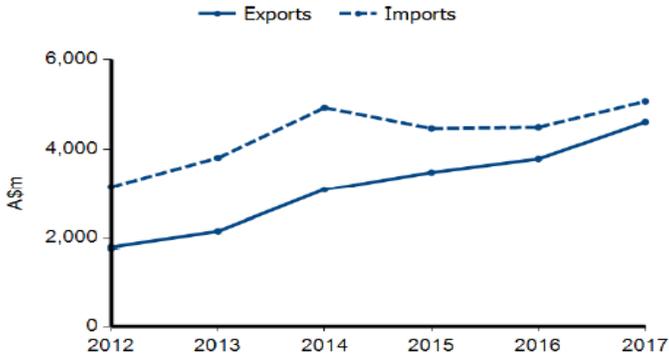
2) 경제 협력

호주의 대베트남 수출과 수입은 증가세에 있다.⁶³⁾ 2017년 기준 수출액은 46억 2,800만 호주 달러, 수입액은 50억 9,400만 호주달러를 기록하여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호주의 대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교육 및 관광관련(1,254백만 호주달러)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석탄(617백만 호주달러), 밀(542백만 호주달러), 갑각류(489백만 호주달러), 알루미늄(390백만 호주달러) 등이 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통신 기기 및 기계부품(1,210백만 호주

63) 이하의 내용은 호주외교통상부, 「Australia's merchandise trade with Vietnam」(검색일: 2018.11.02.)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한 것임.

달러), 원유(395백만 호주달러), 신발(381백만 호주달러), 모니터, 프로젝터 등(339백만 호주달러)순을 기록하고 있다.

〈그림 4-3〉 호주-베트남 교역 현황



자료: 호주 외교통상부, 「Australia's merchandise trade with Vietnam」(검색일: 2018. 11. 2) 그림 인용

한편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호주는 아세안-호주-뉴질랜드 간 FTA(AANZFTA: ASEAN Australia New Zealand Free Trade Area)를 체결하였다.⁶⁴⁾ AANZFTA는 ASEAN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간에 이루어진 최초의 다자협정이다. 동 협정을 통해 관세 인하,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협정(WTO GATS)의 투명성 증대, 국내법규화(domestic regulation), 행정 처리(administrative processes), 주재국 기업인들의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 및 투자에 새로운 기회 제공, 뉴-아세안 간 서비스 분야의 교역증진 등이 기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2020년까지 480억 달러의 지역적 GDP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64) 이하의 내용은 주호주대사관(검색일: 2018. 11. 7) 및 주뉴질랜드대사관(검색일: 2018. 11. 7)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한 것임.

호주무역투자대표부(Austrade)는 호주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Austrade는 호주 산업 관련 정보제공, 호주 수출업체 소개, 네트워크 구축, 사업개발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호주 및 해외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한다.⁶⁵⁾ Austrade에 따르면 베트남의 유망 투자분야는 농업, 방위안보, 식품, 헬스케어, ICT, 광업, 에너지 및 가스, 전력, 수송인프라, 물 관리이다. 이 중 수산업은 사료 및 양식업이 포함되어 있다. 베트남 수산물에 대한 높은 수요,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발전을 고려하여, 양식용 사료, 첨단 수산 기자재 및 시설, 지속가능한 어업 기술 분야를 유망분야로 평가하였다.⁶⁶⁾

3. 對베트남 진출 사례

2015년 기준 베트남에 진출한 호주의 농수산관련 기업은 16개사로 추정된다.⁶⁷⁾ 주로 단독 및 합작 투자의 형태로 사료제조, 식품 가공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주요 진출 기업으로는 베트남-호주 합작회사인 MAVIN사와 Viet Uc사가 있다. MAVIN사는 2004년 베트남과 합작투자를 통해 사료제조사인 Austfeed를 설립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From Farm to Table)라는 비전하에 사료, 농장경영(가축 사육, 어류양식), 동물 의료(veterinary), 식품가공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MAVIN사는 원료 및 사료생산, 가공 수산물 등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식품의 안전성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관

65) 한국 호주무역대표부(검색일: 2018. 11. 7)

66) 호주무역대표부(검색일: 2018. 11. 7)

67) 이하의 내용은 Mavin(검색일: 2018. 11. 7) 및 주베트남 호주상공회의소(검색일: 2018. 11. 7)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작성 한 것임.

리되는 공급 가치사슬을 구축한 베트남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첨단설비를 도입하고 미국, 유럽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품질 수준을 제고하고 유럽의 식품 안전성 및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⁶⁸⁾ MAVIN사는 하노이 본사 이외 11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료공장 5개소(어류용 사료공장 1개소 포함), 어병관리 회사 2개소, 물류회사 1개소, 식품가공회사 1개소, 농장 1개소가 있다. 또한 MAVIN사는 회사 건립 당시, 어류용 사료를 포함한 동물 사료 생산에 주력한 결과, 2008년 흥옌성(Hung Yen)에 연간 5만 톤의 생산이 가능한 사료공장 건립을 시작으로 2008년 흥옌성과 2010년 빈딘(Binh Dinh)에 각각 6만 톤의 생산이 가능한 사료공장을 건립했다. 또한 생산라인 증설을 통해 흥옌성과 빈딘의 사료공장 생산 능력을 각각 25만 톤, 15만 톤으로 크게 확대시켰다. 그리고 2016년 흥옌성에 어류사료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연간 6만 톤의 어류용 사료 생산이 가능해졌다. 2016년 응에안(Nghe An), 동탑(Dong Thap) 메콩델타지역에 30만 톤, 40만 톤급의 2개 공장을 추가 건립했다. 이로써 MAVIN사는 사료공장 5개소를 건립하여 생산량을 100만 톤까지 끌어올렸다. MAVIN사는 베트남 최대의 사료 제조사로 현지인력 천 명 이상을 고용하여 사회적 책임(CSR)의 일환으로 자선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베트남-호주합작회사 Viet Uc사는 베트남계·호주 이민자 출신이 설립한 외국 합작 새우 및 사료 생산회사이다.⁶⁹⁾ 2001년에 빈투언성(Binh Thuan)에 회사를 처음 설립했다. 호치민에 본사가 있으며, 베트남 빈딘, 벤트레(Ben Tre), 까마우(Ca Mau), 박리우(Bac Lieu), 속짱(Soc Trang), 빈투어(Binh Thuan) 지역 등 베트남 주요 새우 생산

68) Delta Invest(검색일: 2018. 11. 7)

69) 이하의 내용은 Viet-UC(검색일: 2018. 11. 2)참고하여 저자 요약 정리한 것임.

지에 공장 13개소를 설립하였다. Viet Uc사의 사업 분야는 종묘 생산, 새우 양식 및 가공, 사료 제조이다. Viet Uc사는 매년 새우 치하 150억 미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전체 치하 생산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한국도 올해 1,650만 달러(한화기준 약 184억 원)를 투자했다.⁷⁰⁾ Viet Uc사는 R&D 강화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과 기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원(CSIRO)과 파트너십을 맺고 종묘 부화장 운영 및 사료개발에서 협력하고 있다.

제3절 시사점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수산분야에는 약 50개의 외국 기업이 진출해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첨단기술 양식, 종자생산, 수산물 가공분야를 우대하고, 이 분야의 투자유치를 위해 토지사용료 및 임대료의 감면 및 면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수산분야에 진출한 대표적인 국가는 수산 강국인 노르웨이와 호주이며 개발협력을 통해 베트남 경제협력 및 투자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베트남과 수교 이후 경제 및 무역, 개발협력에 관한 양자 협정을 맺고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여 베트남 수산분야 해외 투자 및 ODA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베트남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노르웨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는 스타트

70) 사모펀드 스틱인베스트먼트(이하 스틱)

업 해외진출 자금, 컨설팅, 정보제공, 워크숍 등 다각도로 지원을 추진하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활성화하였다. 그리고 노르웨이 개발협력청(NORAD)의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서 노르웨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양식발전 잠재력에 주목하여 어류 양식, 사료 생산, 종묘 생산 및 양성, 어병관리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다. 노르웨이 대베트남 ODA지원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사업 과정에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노르웨이 수산부문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오고 있다. 개발협력 사업을 노르웨이 기업의 베트남 진출의 시험대로 사용하고 있다. 노르웨이 기업의 베트남 진출과 연계된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노르웨이 기술의 현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지 진출 기업과 연계된 현지 생산 역량 강화 및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실질적인 수산 개발에 기여하고 노르웨이 수산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호주는 2018년 베트남과 수교 45년을 맞이하여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을 체결하고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있는데, 특히 교역 및 투자 증대, 개발협력 분야 지속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해외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설립된 호주무역투자대표부(Austrade)는 베트남 수산분야를 투자 유망분야로 선정하고 호주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호주 수산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이 용이하기 위해 개발협력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수산 ODA 주체인 호주국제농업연구센터(ACIAR)는 베트남 양식 기반조성 구축을 위한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하여 사업의 지속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17~2027년간 농업, 수산업, 산림 분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7천만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리한 지속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호주 수산관련 기업은 베트남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호주와 베트남은 자국 기업의 해외진출에 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적극적으로 개발협력 사업에 노르웨이 기업을 참여시켜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험대로 활용하였다. 호주는 수원국의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다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개발협력사업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이 용이하도록 기반을 구축하여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수산 잠재력이 큰 베트남에 국내 기업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산강점을 활용하여 베트남의 수산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기업의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의 새로운 상호 윈윈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요약 및 결론

2020년까지 교역 1,000억 달러 달성, 상생형 산업협력 추진 등 신남방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핵심 협력과제 도출을 위한 집중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8년 3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교역규모 확대 및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 6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이 중 농수산물·가공업 부문이 포함되면서 수산분야 협력 과제 도출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대내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물 무역수지 악화와 미흡한 투자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수산분야 협력 과제 도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추진되는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베트남 진출 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베트남 수산업 개발 정책의 정합성에 기초한 수산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실천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내용은 크게 5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베트남의 수산식품·가공 산업 현황과 미래 베트남 수산업의 발전 계획을 분석함으로써 베트남 수산식품·가공식품이 가지는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수산업은 풍부한 수산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매년 5.0%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잡는 어업과 양식어업 모두 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잡는 어업의 경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 증대, 양식어업은 새우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된 생산으로 양식 생산 품목의 다양화가 당면 과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 수산업이 가지는 이와 같은 당면 과제는 수산물 교역에서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베트남 수산물 교역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산물 수입이 연평균 17.0%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위해서 원물 수산물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베트남 전체 수산 가공산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주요 생산 품목인 새우와 참치를 중심으로 수산가공 및 유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베트남의 유통가공 산업의 일반적 문제로 유추하였다. 즉, 유통단계에서 낙후된 냉동보관기술과 유통단계별 수직계열화의 부족으로 원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은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식품·가공 산업의 협력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수산 경제협력과 개발협력 차원의 협력 성과를 분석하였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수산분야 대베트남 진출·투자 확대 및 교역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요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수산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베트남과의 수산물 교역은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수산기업의 대베트남 투자 규모는 2017년 기준 1,732만 달러로 전체 투자

의 0.8%를 차지하며 이마저도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배합사료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베트남 대상 수산부문 ODA 규모는 2007년 20.0% 내외에서 최근 1.0%대로 크게 감소하였고 지원 사업도 단기 초청연수 및 기술교육 등 일회성·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의 성과 및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과 베트남 정부의 수산가공 식품 분야 개발 수요 표명 등 양국의 수산협력 강화 의지는 확인된 만큼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의 무역 균형을 이루고 수산부문 투자·진출 확대 등 경제·산업발전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제4장은 베트남 수산분야에 진출한 국외 기업 사례를 검토하고, 기업 진출을 위해 개발협력 사업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노르웨이와 호주 두 가지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양국가 모두 베트남의 수산분야를 투자 유망 분야로 선정하고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였다. 노르웨이는 민간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간 기업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스타트업을 도모한 특징을 가진다. 그 결과 노르웨이의 수산 사료 생산업체인 EWOS사와 Skewtting사 어병 전문업체인 Pharmaq사가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호주는 베트남의 수산분야 잠재력이 높은 분야에 다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양식어업과 관련하여 스피니 랍스터 양식, 천해양식 사료 개발, 양식어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의 행정 서비스 지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제5장은 이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였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진

출 가능분야는 우리나라 수산업이 가지는 비교우위와 베트남의 협력 수요를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으로는 수산가공 분야와 양식어업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앞서 베트남이 수산가공산업에서 가지는 약점으로 보관시설 부족, 유통단계별 수직계열화 미비 문제가 대표적이며, 양식어업에서는 어병 통제를 위한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양식 품목 다양화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점 또는 베트남 정부가 가지는 도전과제를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개선·지원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수산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 제언

1.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

수산분야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수산분야 수출 시장 확대 및 다변화이다. 기존 미국, 중국, 일본에 집중된 우리나라 수산 교역 대상국을 베트남을 비롯한 점차 아세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중국 중심의 우리나라 수산물 교역 관계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무역 마찰 문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수산 교역국 다변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신남방정책 추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거대 소비 시장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가 베트남이다. 둘째, 국내 수산기업의 대베트남 진출 확대 및 베트남 내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이다.

대베트남 진출 방법은 앞서 국외 사례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합작 투자에서 현지 생산 공장 설립으로 발전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행 베트남에 진출하여 합작 투자 등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다. 또한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시장조사와 사업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는 만큼 해당 부분은 중장기 과제로 진행한다. 단기적으로는 첫째, 베트남과 교역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애로 사항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ODA)을 실시하면서 민간 기업이 참여토록 한다. 셋째,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산 스타트업기업, 청년 기업의 창업 지원을 활성화시킨다.

베트남 진출 지원 대상이 다른 만큼 진출 지원 전략도 대상별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 대상은 크게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 기업으로 구분되나 앞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베트남과 교역 관계가 있는 기업의 56.0%는 3년 매출액이 100억 미만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즉, 어업분야 베트남 진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소기업에 해당되고,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매우 제한적이다. 수산분야 소기업으로서 베트남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소해야 할 요인으로는 크게 베트남 시장에서 겪게 되는 가격 경쟁과 비관세 장벽, 그리고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업체와 전문가 모두 대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개발협력 사업**으로는 ‘수산가공 인프라 구축’과 ‘양식어업’이 타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가공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는 ‘수산가공기술 역량 강화(안)’, ‘베트남 수산가공시설 및

인프라 구축 사업(안), ‘베트남 수산가공산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안)’을 제시한다. 또한 베트남의 수산업 중장기 개발 계획을 고려했을 때 양식어업의 체계적·심층적 지원 사업 발굴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베트남 천해양식 품목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양식어업의 어병 통제를 위한 수산교육 프로그램 개발’, ‘양식수산물 유통·가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한다. 특히 천해양식 품목으로 베트남은 우리나라 김 양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과 추진 시 앞서 분석된 노르웨이와 호주의 사례는 우리나라 수산 개발협력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하되, 지속적으로 후속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사업 내용을 심화**시켜야 한다. 노르웨이는 베트남 양식어업 육성을 개발 협력의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고 2008년 ‘양식 기술 이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메기 시범 양식장 설립’, ‘양식 사료 공장 설립 타당성 조사’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는 양식 사료 생산과 양식어업인의 역량 강화 등으로 사업 내용을 심화시켰다. 즉, 양식어업의 개발, 사료 생산, 양식 수산물의 유통, 양식어업의 인력 양성 등 양식어업을 둘러싼 다양한 연관 사업에 대해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제 3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분절화되어 있고, 후속 사업과 연계성을 찾아보기 힘든 만큼 향후 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해당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발협력의 목표를 우리나라 수산기업의 대베트남 진출 지원 도모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의 빈곤 퇴치,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 SDG 목표 달성을 고려하는 동시

에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개발협력 사업 참여를 통해 베트남 진출 기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수원국과 공여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제언

1) 대베트남 수산분야 민간 참여 통한 개발협력 사업의 고도화 추진

대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의 중점 사업은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베트남 수산 개발협력의 수요를 고려하여 ‘양식어업’과 ‘수산가공’으로 한다. 현행 KOICA와 해양수산부 모두 중점협력국으로 베트남을 선정하고 있으나 베트남 수산업에 대한 핵심 지원 분야를 선정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도 부재한 상태다. 따라서 베트남 중점 지원분야(안)를 ‘양식어업’과 ‘수산가공’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개발협력 사업을 연차적·단계적으로 실시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도모한다.

대베트남 수산 개발협력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선정된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사업화하고, 사업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첫째,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 양식장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양식장 건립은 베트남 정부가 관심있어 하는 어류 중심의 천해양식, 또는 김 양식을 제안한다. 이러한 타당성 조사 이후에는 양식장 건립 시범사업, 대상 지역 어업인 대상의 소득 개선을 위한 양식어업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양식어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과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베트남 양식어업 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후에는 양식어업과 관련된 ‘양식 배합 사료 공장 설립 타당성 조사’, ‘양식 어장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양식 생물 어병 진단 및 어병 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한다. 해당 사업 수행 시 반드시 우리나라 민간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에는 큰 범위의 베트남 수산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OO대학교 MOU 체결’, ‘수산대학 설립 또는 양식수산 학과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세계수산대학의 학과 구성을 벤치마킹하고, 베트남과 우리나라 우수 연구 인력 간 교류를 활성화시킨다. 베트남과 인적 교류 및 수산 협력 대상 대학으로는 베트남 껀터대학교와 나트랑대학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껀터대학교는 1966년 설립된 대학으로 베트남 메콩 델타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2009년 해양수산대(College of Aquaculture & Fisheries)를 운영하고 있다. 수생병리학, 수산물 가공기술, 수산경제학, 양식업, 수산자원관리 전공이 있으며 2018년 우리나라 국립수산과학원과 새우 양식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구온난화 대비 어류 양식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⁷¹⁾

나트랑 대학은 1959년에 수산학과를 중심으로 설립된 대학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양식연구소, 식품공학, 기계공학과(어선 및 어구 등), 어선 관련 전자 장비, 수산경제학(수산자원, 수산경영학, 수산물 소비 외), 생명공학연구소(어병, 종자 외), 해양과학 및 어업기술 연구소(어선 및 어구, 어업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GIS 등 어업관리 기술 외)이다.⁷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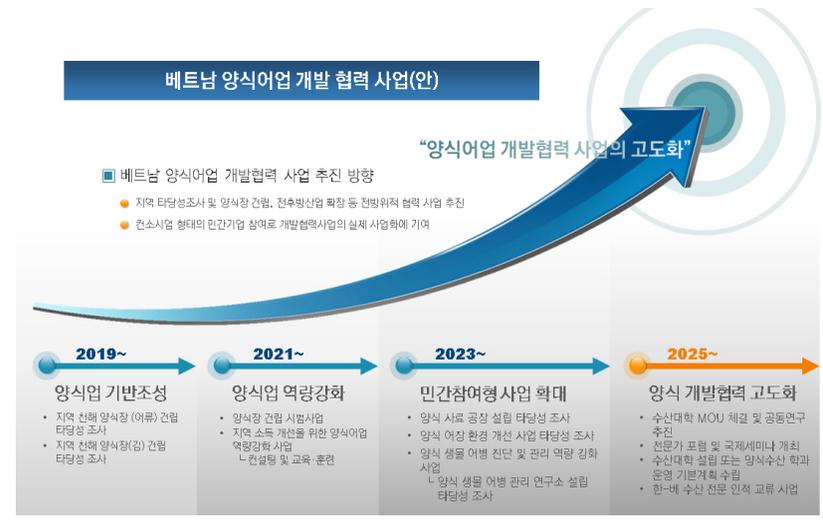
71) 껀터대학교(검색일: 2018. 12. 3)

〈표 5-1〉 對베트남 「양식어업 개발협력 사업(안)」 예시

단위: 억 원

구분	내용	예산(안)
1	○○ 지역 천해양식(어류) 건립 타당성 조사	1.5
	○○ 지역 천해양식(김) 양식 타당성 조사	
2	○○ 지역 천해양식장 건립 시범사업	3
3	○○ 지역 소득 개선을 위한 양식어업 역량강화 사업	2
4	양식 사료 공장 설립 타당성 조사	1.5
5	양식 어장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1.5
6	양식 생물 어병 진단 및 어병관리를 위한 인적 역량강화사업	3
7	양식 생물 어병 관리 연구소 설립 타당성 조사	1.5
8	○○ 대학과 MOU 체결 및 공동연구추진/국제 세미나 개최	1.5
9	○○ 대학 수산양식학과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1
10	베트남 ○○ 대학-한국 간 인적 교류 사업	2

〈그림 5-1〉 對베트남 「양식어업 개발협력 사업(안)」



72) 나트랑대학교(검색일: 2018. 12. 3)

둘째, 베트남 수산가공분야 협력사업이다. 베트남의 수산가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수산물 수입국이 요구하는 국제 기준 준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수산가공산업 발전 방안으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과학적 조사에 근거한 수산자원평가가 이뤄지고, 이에 근거한 수산자원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베트남이 수산물을 수출하는 대상국이 대부분 EU,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이기 때문에 수산물의 이력추적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IUU 어업 근절 노력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베트남 수산가공 개발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예시는 다음과 같다. i) 베트남 수산가공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주요 수산자원의 과학적 평가 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참치, 오징어, 꽃게를 중심으로 하고, 매년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사업 예산 규모는 10억 원이다. 또한 베트남 수산자원의 과학적 평가를 위한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을 실시하며 3년 연속 사업으로 실시한다.

ii) 베트남의 IUU 어업 근절 노력 강화 및 IUU 어업 근절 노력을 통해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산업의 연계를 위한 사업이다. 이미 베트남에서는 2018년 5월 수산업법 개정을 통해 길이 15m 이상 어선에 VMS를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베트남 28개 연안의 어선 등록 및 어업 허가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3) 베트남의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여 VMS 데이터 등을 활용한 베트남 어업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3년 동안 시행한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IUU어업-Free 수산물을 확인하고 해당 생산된 수산물을

73) 해양수산부,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Sustainable Overseas Fisheries」, 2018. 11.21.~22. 발표자료, p.47 참고하여 저자 번역 및 재작성한 것임.

수산가공공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시범 사업화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3년 EU의 IUU 예비 어업국으로 지정·해제되는 과정에서 선진 조업감시체제와 시스템을 마련한 만큼 우리나라 불법어업 근절 노하우를 베트남에 전수하고, 민간 기업의 진출을 도모하도록 한다.

iii) 베트남 수출 수산물의 이력추적제(traceability) 적용을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이력추적제는 베트남의 주요 생산어업인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해면어업으로 점진적으로 적용한다. 대상 품목은 5개 어종(양식어업의 흰다리새우와 타이거새우, 내수면어업의 메기, 해면어업의 참치와 꽃게)을 우선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를 연차별로 실시한다. 해당 사업 이후 5개 품목을 중심으로 ICT 기반 이력추적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민간기업과 베트남 가공기업, 베트남 ICT 관련 기업이 공동 참여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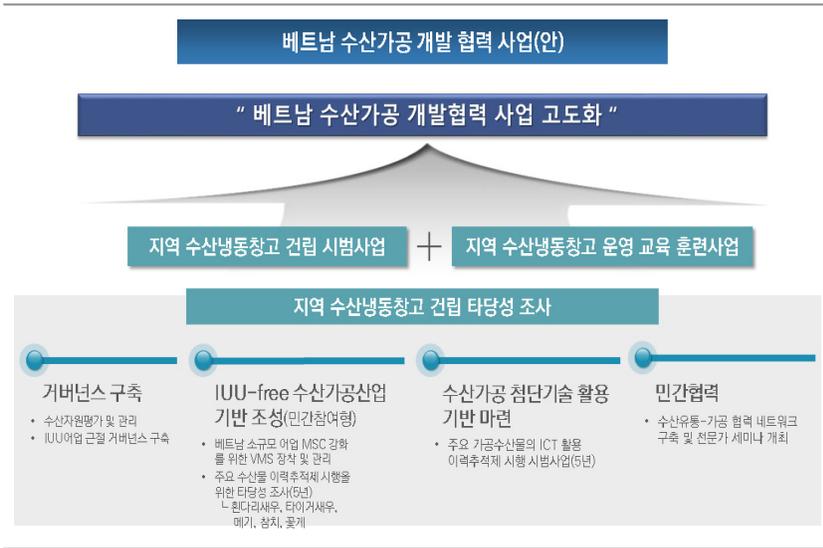
〈표 5-2〉 對베트남 「수산가공 개발협력 사업(안)」 예시

단위: 억 원

구분	내용	예산(안)
1	(생산) 베트남 주요 수산자원 과학적 평가를 위한 조사 사업(5년 사업)	10
2	(생산) 베트남 수산자원의 과학적 평가를 위한 연구 역량 강화 사업(3년 사업)	9
3	VMS 등 베트남 어업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3년 사업)	30
4	빅데이터 기반 IUU-Free 수산물의 가공유통산업 활용 시범사업	10
5	베트남 주요 수산물 이력추적제 시행을 위한 타당성 조사(5년 사업) (흰다리새우, 타이거새우, 메기, 참치, 꽃게)	5
6	베트남 주요 가공수산물의 ICT 기반 이력추적제 시행을 위한 시범사업(5년 사업)	10
7	수산유통-가공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미나	1
8	○○ 지역 수산냉동창고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3
9	○○ 지역 수산냉동창고 건립을 위한 시범사업	50
10	○○ 지역 수산냉동창고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마지막으로 베트남 수산냉동창고 지원사업이다. 특정 지역 수산냉동창고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시범사업, 창고 운영과 관련된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한다.

〈그림 5-2〉 對베트남 「수산가공 개발협력 사업(안)」



2) 수산 스타트업 기업 위한 혁신 개발협력 사업(FITS) 발굴

베트남이 자국 수산업 지원·발전에 요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협력의 착수부터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간소화하면서도 민간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및 공공기관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이 아니라 민간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 이미 KOICA에서는 기존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개발 협력의 난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을 개발협력 사업

에 적용하고 있다. 예비 창업가, 스타트업 등 혁신가들의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을 통해 혁신가에게는 개발도상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창업·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도상국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⁷⁴⁾

〈그림 5-3〉 KOICA CTS 프로그램



자료: KOICA, 「혁신개발협력」(검색일: 2018. 12. 3)

베트남의 수산가공산업과 양식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양식생물의 어병 관리, 원료 확보를 위한 수산자원관리에 있어 기존 해결 방법이 아닌 창의적이고 혁신적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존의 방식대로는 제약된 인력과 예산 규모로 사업의 효과성을 거두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혁신개발사업이 기존 EDCF 또는 ODA 사업보다 적은 규모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민간 중심의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략적 방법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명은 ‘대베트남 수산 기업 진출 지원을 위한 혁신 개발협력 사업(FITS: Fishery Innovation

74) KOICA는 CTS를 통해 총 33개 사업(2015년 10개 사업, 2016년 6개 사업, 2017년 17개 사업)을 발굴하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함.

Technology Support)’이다. 이미 KOICA에서 CTS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중점 사업분야가 보건, 교육, IT, 환경, 농어촌 개발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산분야 전문 지식과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담당부서가 되고 KMI의 ‘해양수산 ODA 센터(안)’가 추진 주체가 된다.

베트남 ‘양식어업’, ‘수산가공산업’의 난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적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파트너를 선정하고, 동시에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한다. 해당 사업의 세부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술개발사업이다. 베트남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소규모로 실증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사업 기간은 SW 제작의 경우 최대 12개월, HW 제작의 경우에는 15개월을 제시한다. 지원 예산은 1개 사업당 최대 1억 원으로 한다. 해당 사업의 성과물은 크게 개발협력적 성과와 비즈니스적 성과로 구분한다. 개발협력적 성과는 개발도상국에서 성능 및 개발문제 해결 가능성 검증이 이뤄지는 혁신 기술이다. 비즈니스적으로 개도국 시장에서의 혁신 기술 및 혁신 시제품 잠재력 또는 경쟁력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현지 적용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목표는 1단계에서 문제해결 가능성 및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 제품, 아이디어를 국내 또는 현지에서 적용하여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시범단계 사업이다. 마지막 단계는 현지 기업 또는 현지 파트너와의 공동 창업, 현지인의 고용 등을 통해 사업 기간 중 현지에 해당 제품이나 기술이 적용되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의 성과물은 두 가지이다. 특정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제품 및 기술이 목표했던 개발협력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검증하는 것이다. 또한 현지 사업의 본격 시행으로 현지 판매를 통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3) 수산 기업의 ‘해외어업 개발을 위한 투자 인프라 구축 사업’ 마련

대베트남 수산기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교역 또는 향후 진출을 계획하는 수산 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어업 개발을 위한 투자 인프라 구축 사업(안)’을 제안한다. 사업의 목적은 투자 대상국에 대한 정보 제공, 컨설팅, 현지 실무교육 등 투자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외어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해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첫째, 해외어업개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한 민관 공동 어업투자환경조사 실시, 둘째, 진출 사업의 원활한 정착과 기업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셋째, 해외 진출 기업의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이다.

현재 국내 수산기업의 해외 수산업 진출을 위해 현지에 양식, 유통, 가공 등 수산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해외수산시설투자지원 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다음을 지원받을 수 있다 i)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 포함)·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ii)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iii) 사업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iv)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v)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vi)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사업물량 2개소, 총사업비 22억 원으로 2015년 13억 원에서 2018년 23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해당 사업은 해외 양식·유통·가공 등 수산시설 투자를 위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측면이 있으나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위해 사전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확대 개편하거나 또는 신규 사업으로 '해외어업 개발을 위한 투자 인프라 구축 사업'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근거법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와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보조 및 용자)로 한다. 신설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해외어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해외어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② 해외어업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③ 해외어업개발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표 5-3〉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 개정안

<p>제26조(보조 및 용자)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 2. 국제기준 준수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4. 그 밖에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p>② 정부는 원양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에 필요한 어선(운반선을 포함한다)·어구의 매입,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2.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또는 매입 자금 3. 사업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4. 첨단기술의 개발 및 적용 5. 사업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6. 해외어장 자원조사 및 해외양식어장 개발사업 7. 그 밖에 원양산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③ (신설) 정부는 해외어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어업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해외어업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 해외어업개발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18. 12. 4.)

참고문헌

〈국내 문헌〉

곽성일·이재호, 「주요국의 대베트남 진출전략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라미령·신민금·신민이, 「호주·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정대영 외, 「동남아시아 민관협력사업(PPP)에 관한 법제도 현황 및 진출전략(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제19권 제1호, 2017.

정명화 외,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수산분야 경제협력 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한국국제협력단, 「베트남 ODA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전략」, 2017.

한국수출입은행, 「2017년 베트남 FDI 및 한국 투자 동향 보고서」, 2017.

_____, 「우리나라의 對아세안 투자 동향과 시사점」, 201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K-Fish Around the Globe」, 해양수산부, 2017, 5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한-베트남 수산협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포럼」, 2018, 발표자료.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통계조사(내부자료)」, 2017.

해양수산부,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Sustainable Overseas Fisheries」, 2018, 발표자료.

현대경제연구원, 「포스트 차이나의 선두주자, 베트남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자」, VIP리포트 통권 711호, 2017.

〈국외 문헌〉

Australia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n Aid Budget Summary 2017-18, 2018.

- CBI, The Vietnamese seafood sector - A value chain analysis, 2012.
- HONG THI KHANH NGUYEN, PHAN THI THU HIEN, TRAN THI NANG THU AND PHILIPPE LEBAILLY(2016), 2016.
- Innovation Norway, Marine sector- Vietnam. 2016.
- Nguyễn Quang Hùng,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NGÀNH THỦY SẢN ĐẾN NĂM 2020, TẦM NHÌN 2030. HIỆN TRẠNG, TIỀM NĂNG CHẾ BIẾN, XUẤT KHẨU THỦY SẢN Ở VIỆT NAM, 2018.

〈인터뷰 자료〉

베트남 농촌개발부 수산국 Nguyễn Quang Hùng 국장(2018.09.14, 대한민국 부산)

〈인터넷 자료〉

- Amanda Foods Vietnam, <http://www.marineharvest.vn/site/about/47>(검색일: 2018. 11. 5)
- Aquafeed.com, <http://www.aquafeed.com/technical-center/new-products-article/4222/PHARMAQ-starts-fish-vaccination-in-Vietnam/>(검색일: 2018. 11. 5)
- Biinform, <https://biinform.com/Reports/D03-1100653597-ewos-vietnam-joint-stock-company-.html>(검색일: 2018. 11. 5)
- Delta Invest, https://deltainvest.vn/cms/print_page/5b18b5a43c51f21651955c10/(검색일: 2018. 11. 7)
- EFTA, 「Trade between Norway and Vietnam」, <http://trade.efta.int/#/country-graph/NO/VN/2016/HS2>(검색일: 2018. 11. 2)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https://www.imf.org/en/data>(검색일: 2018. 11. 14)

Innovation Norway, 「About Innovation Norway」, <https://www.innovasjon Norge.no/en/start-page/our-mission/>(검색일: 2018. 11. 2.)

Innovation Norway in Vietnam, 「Seafood: Vietnam has strong demand on seafood that Norwegian companies can response」, https://www.innovasjon Norge.no/sats-internasjonalt/regionkart/?map=no_73300&map_overlay=no_464822(검색일: 2018. 11. 2)

KDI 경제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ublish/nara/special/view.jsp?idx=7535> (검색일: 2018. 11. 27)

KOICA 통계조회서비스, <http://stat.koica.go.kr/>(검색일: 2018. 11. 12)

Korea ODA 통계, <http://stats.koreaexim.go.kr/>(검색일: 2018. 11. 12)

KOTRA, 「국가정보-베트남」, <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3/>(검색일: 2018. 12. 11)

KOTRA, 「베트남 개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81052&cid=48531&categoryId=48558>(검색일: 2018. 11. 12)

Mavin, <https://mavin-group.com/en/contact.html>(검색일: 2018. 11. 7)

Norad, <https://norad.no/en/front/countries/asia-and-oceania/vietnam/>(검색일: 2018. 11. 2.)

Norwegian Embassy in Hanoi, <https://www.norway.no/en/vietnam/norway-vietnam/news-and-events/norwegian-fisheries-seminar/>(검색일: 2018. 11. 2)

OECD Stat,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RS1>(검색일: 2018. 10. 31)

OFOC, 「VIETNAM FISHERIES FAST FACTS」, <http://ofco.info/inspection/statistics.html>(검색일: 2018. 11. 22.)

Permira.com, <https://www.permira.com/news-views/news/pharmaq-signed-with-the-vietnamese-govt-agreement-of-cooperation/>(검색일: 2018. 11. 5)

The Economic Times,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news/politics->

- and-nation/vietnam-australia-strategic-partnership-enters-new-phase/
articleshow/63342252.cms(검색일: 2018. 11. 7.)
- The Independant, <http://theindependent.sg/vietnam-in-greater-strategic-partnership-with-australia/> (검색일: 2018. 11. 8).
-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db/default.aspx>(검색일: 2018. 11. 26)
- Undercurrentnews,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7/07/04/skretting-opens-60000t-shrimp-feed-plant-in-vietnam/>(검색일: 2018. 11. 6)
- Vietnam Business Forum, <https://english.vov.vn/economy/vietnam-norway-seek-cooperation-opportunities-in-marine-processing-industry-387319.vov>
(검색일: 2018. 11. 17)
- Viet-UC, <http://vietuc.com/about-us/viet-uc-seafood-corporation/>(검색일:
2018. 11. 2)
- Vneconomictimes, <http://vneconomictimes.com/article/vietnam-today/australia-vietnam-to-boost-cooperation-in-agriculture-research-education>
(검색일: 2018. 11. 7)
- World Bank, 「Doing Business」, <http://www.doingbusiness.org/> (검색일: 2018.
11. 8)
- Yellow Pages , [https://yellowpagesvn.com/listings/959667/amanda-foods-\(vietnam\)-co.-ltd.html](https://yellowpagesvn.com/listings/959667/amanda-foods-(vietnam)-co.-ltd.html)(검색일: 2018. 11. 5.)
- 컨터대학교, <https://www.ctu.edu.vn/dao-tao/ctdt-dai-hoc.html>(검색일: 2018.
12. 3)
- 나트랑대학교, <http://www.ntu.edu.vn/en/RESEARCH/ResearchAreas.aspx>
(검색일: 2018. 12. 3)
- 노르웨이 외교부, <https://www.regjeringen.no/en/dep/ud/id833>(검색일: 2018.
11. 1)
- 농림축산식품부, 「해외농업개발사업 현황」, [www.mafra.go.kr/bbs/mafra/131/
189665/download.do](http://www.mafra.go.kr/bbs/mafra/131/189665/download.do)(검색일: 2018.12.18.)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검색일: 2018. 12. 4)

베트남 Legal Normative Document, 「조건부 사업 분야 및 거래 목록에 관한 투자법 제6조 및 부록 4의 수정 및 보완」(03/2016/QH14),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1094&Keyword=.%2003/2016/QH14> (검색일: 2018. 12. 11)

_____, 「투자법(67/2014/QH13) 제16조」, <http://vbpl.vn/TW/Pages/vbpqen-toanvan.aspx?ItemID=11032>(검색일: 2018. 12. 11)

베트남 외국인 투자 진흥청, 「외국인 직접 투자 인센티브」, <http://fia.mpi.gov.vn/news/125/FDI-Incentives>(검색일: 2018. 12. 11)

베트남 통계시스템 GSO,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Production of aquaculture by Items)」, <https://www.gso.gov.vn/> (검색일: 2018. 11. 14)

_____,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Production of fishery), <https://www.gso.gov.vn/> (검색일: 2018. 11. 14)

_____, National Accounts(Gross domestic product at current prices by economic sector), <https://www.gso.gov.vn/>(검색일: 2018. 11. 14)

_____, Population and Employment(Annual employed population and annual employed population at 15 years of age and above by kinds of economic activity), <https://www.gso.gov.vn/> (검색일: 2018. 11. 22)

_____,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jects licensed by kinds of economic activity (Accumulation of projects having effect as of 31/12/2017) by Kinds of economic activity and Items」, <https://www.gso.gov.vn/>(검색일: 2018. 12. 5)

_____,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jects licensed by main counterparts (Accumulation of projects having effect as of 31/12/2017) by Main counterparts and Items」, <https://www.gso.gov.vn/>(검색일: 2018. 12. 5)

_____,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jects licensed in period 1988 ~2017 by Year and Items」, <https://www.gso.gov.vn/>(검색일: 2018. 12. 5)

수산물수출정보포털, <http://www.kfishinfo.net>(검색일: 2018. 11. 7, 2018. 12. 3)

연합뉴스, [전문]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 <http://www.yonhapnews.co.kr/dev/9601000000.html>(검색일: 2018. 7. 5.)

- 주뉴질랜드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5/view.do?seq=885759&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32(검색일: 2018. 11. 7)
- 주베트남 호주상공회의소, <https://auschamvn.org/grand-opening-of-nghe-an-feedmill-by-mavin-austfeed-18-feb-2017/>(검색일: 2018. 11. 7)
- 주호주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au-ko/brd/m_3885/view.do?seq=885759&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32(검색일: 2018. 11. 7)
- 한국 호주무역대표부, <https://www.austrade.gov.au/Local-Sites/Korea/about-austrade>(검색일: 2018. 11. 7)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www.koreaexim.go.kr>(검색일: 2018. 11. 8)
- 호주 외교통상부, Australia's merchandise trade with Vietnam, <https://dfat.gov.au/trade/resources/Documents/viet.pdf>(검색일: 2018. 11. 2)
- _____, Vietnam country brief, <https://dfat.gov.au/geo/vietnam/pages/vietnam-country-brief.aspx>(검색일: 2018. 11. 7)
- 호주무역대표부, <https://www.austrade.gov.au/australian/export/export-markets/countries/vietnam/market-profil>(검색일: 2018. 11. 7)

부록

1. 신남방정책과 수산식품 가공·수출입 업계 대응 설문조사

www.kmi.re.kr 우)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051-797-4553)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은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 대응한 수산협력 방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과 수산물 교역을 하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계시는 기업의 정책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귀중한 의견은 對베트남 진출 전략 또는 교역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조사는 매크로밀엠브레인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018년 10월
한국해양수산물개발원

PART A. 기본 사항

1. 귀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복수 체크 가능)

- | | |
|----------|----------|
| ① 수산물 수출 | ② 수산물 수입 |
| ③ 수산물 가공 | ④ 수산물 유통 |
| ⑤ 기타() | |

PART B. 신남방정책의 인지

〈신남방정책 추진 경과〉

- ✓ 2017년 11월 현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서 아세안-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남방정책' 추진을 선언함
 - 신남방정책은 우리나라의 외교 다변화 및 아세안-인도 지역으로의 경제영역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 이후 한-베트남 정상회담(18.03)에서 양국 교역규모 확대 및 산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 MOU 체결 등 신남방정책 이행이 본격화 됨
 - 양국 정상은 아세안 핵심파트너로서의 협력관계 발전에 합의, 2020년 교역액 1,000억불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발표함
 - 특히 베트남 정부는 타 산업부문 협력 강화와 함께 농수산식품·가공업 부문의 경제협력을 요청함

10. 현 정부는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신남방정책을 알고 있거나 관련 정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알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 ☞ 문항 10-1번 이동
- ② 알고 있으나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문항 10-1번 이동
- ③ 알지 못하고, 관련 정보도 없다.
- ④ 관심없다.

10-1. 신남방정책 추진에 관한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① 정부 또는 유관기관(대사관, KOTRA, 관세청 등)을 통해서
- ② 국내 언론보도를 통해서
- ③ 관련 업계 및 지인을 통해서
- ④ 기 타

11. 귀하께서는 베트남 정부의 농수산물 및 가공업에 대한 경제협력 수요에 대해 알고 있거나, 관련 정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알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다.
 - ② 알고 있으나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 ③ 알지 못하고, 관련 정보도 없다.
 - ④ 관심없다.

12. 신남방정책을 통한 베트남 정부와의 수산물·가공업 부문 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①	②	③	④	⑤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3.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귀사(현지법인)의 경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①	②	③	④	⑤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다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영향이 다소 있을 것이다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14. 향후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귀사의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통관·검역 절차 원활
 - ② 비관세 장벽 완화
 - ③ 무역규모 증가
 - ④ 對베트남 투자·진출 지원 확대
 - ⑤ 위생·안전 상호인증
 - ⑥ 전문 인력 교류 증가
 - ⑦ 베트남 내 투자환경 개선
 - ⑧ 기타 ()



- ③ 수산가공인프라 ☞ 문항 17-3번 이동
- ④ 수산교육 ☞ 문항 17-4번
- ⑤ 수산행정 ☞ 문항 17-5번 이동
- ⑥ 기타()

17-1. “어선어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신규어선건조 및 어선현대화 ② 어업기자재 개발·보급
 - ③ 선원인력 ④ 선원복지
 - ⑤ 불법·남획 감시 시스템 ⑥ 기타 ()

17-2. “양식어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양식적지 및 적정어종 선정 ② 양식 타당성 조사
 - ③ 양식기술 개발·보급 ④ 양식기자재 개발·보급
 - ⑤ 양식 사료 개발·보급 ⑥ 어병기술 개발·보급
 - ⑦ 기타 ()

17-3. “수산가공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신규상품 개발 ② 가공기술 개발·보급
 - ③ 가공시설 및 인프라 구축 ④ 냉동창고 등 유통시설 구축
 - ⑤ 식품 위생·안전 기술 ⑥ 기타 ()

17-4. “수산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3순위()



2. 베트남 「수산업 발전 전략 및 비전(2020~2030)」⁷⁵⁾

DIỄN ĐÀN TRAO ĐỔI KINH NGHIỆM, HỢP TÁC NGHỀ CÁ

VIỆT NAM - HÀN QUỐC

BÁO CÁO THAM LUẬN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NGÀNH THỦY SẢN ĐẾN
NĂM 2020, TẦM NHÌN 2030. HIỆN TRẠNG, TIỀM
NĂNG CHẾ BIẾN, XUẤT KHẨU THỦY SẢN Ở VIỆT NAM

PHẦN 1.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NGÀNH THỦY SẢN ĐẾN NĂM 2020, TẦM NHÌN 2030

1) QUAN ĐIỂM PHÁT TRIỂN

1. Phát triển thủy sản thành một ngành sản xuất hàng hóa, có thương hiệu uy tín, có khả năng cạnh tranh cao trong hội nhập kinh tế quốc tế, trên cơ sở phát huy lợi thế của một ngành sản xuất - khai thác tài nguyên tái tạo, lợi thế của nghề cá nhiệt đới, chuyển nghề cá nhân dân thành nghề cá hiện đại, tạo sự phát triển đồng bộ, đóng góp ngày càng lớn vào sự

75) 베트남 농촌개발부 수산국 부국장(Nguyễn Quang Hùng) 원고 위탁 결과물
(연구기간: 2018.09~10)

phát triển kinh tế - xã hội đất nước, mục tiêu phấn đấu đến năm 2020, đưa nước ta trở thành quốc gia mạnh về biển và giàu lên từ biển.

2. Tiếp tục chuyển dịch cơ cấu kinh tế và cơ cấu lao động cùng với quá trình công nghiệp hóa, hiện đại hóa nghề cá, gắn với việc tổ chức lại sản xuất ngành thủy sản ở tất cả các lĩnh vực: khai thác, nuôi trồng, cơ khí hậu cần dịch vụ và chế biến thủy sản theo chuỗi giá trị sản phẩm từ sản xuất nguyên liệu đến chế biến tiêu thụ, nhằm nâng cao hiệu quả tối ưu cho sản phẩm thủy sản Việt Nam. Hình thành các trung tâm nghề cá lớn ở Vịnh Bắc bộ, duyên hải miền Trung, Đông Nam bộ, Tây Nam bộ gắn với các ngư trường trọng điểm.
3. Nâng cao mức sống, điều kiện sống của cộng đồng ngư dân và đào tạo bồi dưỡng nguồn nhân lực cho nghề cá vừa là mục tiêu vừa là động lực phát triển thủy sản. Xác định nông, ngư dân và doanh nghiệp là chủ thể chính của sản xuất thủy sản, đồng thời tạo sự gắn kết lợi ích giữa nông dân, ngư dân và doanh nghiệp là khâu đột phá trong quá trình đổi mới ngành thủy sản. Tiếp tục bố trí, sắp xếp lại dân cư và giữ gìn, phát huy bản sắc văn hóa làng cá là yêu cầu quan trọng trong quá trình xây dựng nông thôn mới, nhằm góp phần thực hiện thắng lợi Nghị quyết Hội nghị lần thứ 7 Ban Chấp hành Trung ương Đảng Khóa X về nông nghiệp, nông dân và nông thôn.
4. Phát triển thủy sản theo hướng chất lượng và bền vững, trên cơ sở giải quyết hài hòa mối quan hệ giữa nâng cao giá trị

gia tăng với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vệ sinh an toàn thực phẩm, bảo vệ môi trường,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nguồn lợi và an sinh xã hội; chủ động thích ứng với tác động của biến đổi khí hậu; đồng thời kết hợp chặt chẽ giữa phát triển thủy sản với góp phần bảo vệ chủ quyền quốc gia và an ninh quốc phòng trên các vùng biển.

5. Nâng cao năng lực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thủy sản trên cơ sở tiếp cận khoa học về quản lý tổng hợp nghề cá có sự tham gia của cộng đồng và mối quan hệ tương hỗ với các ngành kinh tế khác nhằm phát triển thủy sản và xã hội nghề cá bền vững.

2) MỤC TIÊU ĐẾN NĂM 2020

1. Ngành thủy sản cơ bản được công nghiệp hóa - hiện đại hoá và tiếp tục phát triển toàn diện theo hướng bền vững, thành một ngành sản xuất hàng hóa lớn, có cơ cấu và các hình thức tổ chức sản xuất hợp lý, có năng suất, chất lượng, hiệu quả, có thương hiệu uy tín, có khả năng cạnh tranh cao và hội nhập vững chắc vào kinh tế thế giới. Đồng thời từng bước nâng cao trình độ dân trí, đời sống vật chất và tinh thần của ngư dân, gắn với bảo vệ môi trường sinh thái và quốc phòng, an ninh vùng biển, đảo của Tổ quốc.
2. Kinh tế thủy sản đóng góp 30 - 35% GDP trong khối nông - lâm - ngư nghiệp, tốc độ tăng giá trị sản xuất ngành thủy

sản từ 8 - 10%/năm. Kim ngạch xuất khẩu thủy sản đạt 8 - 9 tỷ USD. Tổng sản lượng thủy sản đạt 6,5 - 7 triệu tấn, trong đó nuôi trồng chiếm 65 - 70% tổng sản lượng.

3. Tạo việc làm cho 5,0 triệu lao động nghề cá có thu nhập bình quân đầu người cao gấp 3 lần so với hiện nay; trên 40% tổng số lao động nghề cá qua đào tạo. Xây dựng các làng cá ven biển, hải đảo thành các cộng đồng dân cư giàu truyền thống tương thân, tương ái, có đời sống văn hóa tinh thần đậm đà bản sắc riêng.

3) ĐỊNH HƯỚNG PHÁT TRIỂN

(1) Định hướng phát triển theo lĩnh vực

a) Khai thác và bảo vệ nguồn lợi thủy sản

Tập trung nghiên cứu điều tra nguồn lợi, dự báo ngư trường phục vụ khai thác hải sản; phát triển nguồn nhân lực có chất lượng cao cho các hoạt động nghiên cứu nguồn lợi và tổ chức khai thác hải sản trên biển.

Tổ chức lại sản xuất khai thác hải sản trên biển, trên cơ sở cơ cấu lại tàu thuyền, nghề nghiệp phù hợp với các vùng biển, tuyến biển, với môi trường tự nhiên, nguồn lợi hải sản. Xây dựng cơ chế quản lý phù hợp để định hướng khai thác, bảo tồn và phát triển nguồn lợi hải sản trên biển, tăng cường sự tham gia của cộng đồng. Đổi mới và ứng dụng khoa học công nghệ trong khai thác thủy sản, bảo quản sản phẩm để giảm tổn thất sau thu hoạch. Củng cố và

phát triển các mô hình tổ chức sản xuất khai thác hải sản như: tổ đội sản xuất, hợp tác xã, các hình thức kinh tế tập thể, liên doanh, liên kết, các mô hình hậu cần dịch vụ tiêu thụ sản phẩm trên biển. Đối mới xây dựng các hợp tác xã và liên minh hợp tác xã nghề cá theo hướng thật sự vì lợi ích của ngư dân, bảo vệ môi trường sinh thái bền vững, gắn kết cộng đồng, phát triển và ổn định xã hội vùng biển và hải đảo. Hình thành một số doanh nghiệp, tập đoàn lớn đủ mạnh để hoạt động khai thác hải sản xa bờ và hợp tác khai thác viễn dương với các nước trong khu vực.

Hiện đại hóa công tác quản lý nghề cá trên biển, đặc biệt sớm hoàn thiện hệ thống thông tin tàu cá nhằm chủ động cảnh báo, kịp thời ứng phó với các tai nạn, rủi ro trên biển, cứu hộ cứu nạn. Tăng cường bảo vệ, hỗ trợ đảm bảo an toàn cho ngư dân hoạt động trên biển. Xây dựng lực lượng kiểm ngư đủ mạnh để bảo vệ nguồn lợi gắn với bảo vệ ngư dân và quốc phòng an ninh trên biển và hải đảo.

Củng cố, phát triển ngành cơ khí đóng, sửa tàu cá, có lộ trình phù hợp chuyển nhanh các tàu cá vỏ gỗ sang vỏ thép, vật liệu mới...; phát triển công nghiệp phụ trợ phục vụ ngành cơ khí tàu cá, các ngành sản xuất lưới sợi, ngư cụ phục vụ khai thác gắn với đầu tư nâng cấp, hiện đại hóa các cảng cá, bến cá, các khu neo đậu tránh trú bão, các khu hậu cần dịch vụ nghề cá ven biển và trên các hải đảo.

Nghiên cứu và chuyển giao khoa học kỹ thuật trong nghề khai thác hải sản. Xây dựng và phát triển hệ thống khu bảo tồn biển

và khu bảo tồn vùng nước nội địa, nhân rộng các mô hình quản lý có sự tham gia của cộng đồng, ban hành cơ chế chính sách quản lý phù hợp; thực hiện việc thả các giống thủy sản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ra biển và các thủy vực nội địa theo mùa vụ để phục hồi, tái tạo và phát triển nguồn lợi thủy sản. Xây dựng và thiết lập cơ chế, chính sách quản lý khai thác nội địa từ điều tra nguồn lợi trên các lưu vực sông, suối, hồ đến quản lý khai thác gắn với bảo vệ nguồn lợi thủy sản, bảo vệ môi trường. Chống đánh bắt bất hợp pháp, hủy diệt nguồn lợi.

b) Nuôi trồng thủy sản

- Đối với vùng nước ngọt:

Ổn định diện tích nuôi các loài cá truyền thống trên các vùng nông thôn, miền núi, vùng sâu, vùng xa để tăng nguồn thực phẩm, tạo việc làm, tăng thu nhập cho các hộ gia đình nông dân, đồng bào miền núi, góp phần thiết thực xóa đói giảm nghèo. Không ngừng đổi mới cơ cấu, nâng cao chất lượng các đối tượng nuôi, các giống thủy đặc sản (lươn, ếch, baba, tôm càng xanh, cá chình, rô phi, ...) và các giống thủy sản mới (cá nước lạnh, cá cảnh ...) phục vụ xuất khẩu, du lịch và thị trường nội địa. Tập trung triển khai áp dụng tiêu chuẩn GlobalGAP đối với sản xuất cá tra công nghiệp vùng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 Đối với vùng nước lợ:

Tiếp tục phát triển mạnh nuôi trồng các đối tượng thủy sản tạo

sản phẩm chủ lực theo nhu cầu của thị trường, phù hợp với điều kiện của từng vùng sinh thái phục vụ xuất khẩu.

Hình thành các vùng nuôi công nghiệp tập trung có quy mô diện tích lớn theo tiêu chuẩn GAP phù hợp với từng thị trường, tạo sản lượng hàng hóa lớn phục vụ xuất khẩu và tiêu thụ trong nước ở các khu vực đồng bằng sông Hồng, ven biển miền Trung và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gắn với truy xuất nguồn gốc, xây dựng thương hiệu thủy sản uy tín, chất lượng cao.

Duy trì, phát triển các hình thức nuôi hữu cơ (nuôi sinh thái), nuôi quảng canh cải tiến ở các vùng bãi bồi, đầm phá, rừng ngập mặn để vừa tạo sản phẩm xuất khẩu chất lượng cao, vừa bảo vệ môi trường sinh thái và nguồn lợi thủy sản.

- Đối với nuôi nước mặn:

Phát triển nuôi biển thành một lĩnh vực sản xuất quy mô công nghiệp tạo khối lượng sản phẩm lớn phục vụ xuất khẩu, du lịch và tiêu thụ nội địa.

Hoàn chỉnh quy hoạch, công bố quy hoạch các vùng nuôi biển tập trung: trên biển, ven các hải đảo và biển ven bờ; quy hoạch và có kế hoạch phát triển các giống hải sản phục vụ nghề nuôi biển, tạo sản phẩm hàng hóa lớn (giáp xác, nhuyễn thể, cá), sớm hình thành các nhóm đối tượng chủ lực có xuất xứ nguồn gốc, có thương hiệu uy tín trên thị trường. Tập trung phát triển nhanh, mạnh các đối tượng có thị trường tốt, đã có truyền thống, có thương hiệu, chủ động sản xuất giống và quy trình sản xuất như:

nhuyễn thể hai mảnh vỏ (ven biển Bắc Bộ và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trai ngọc (Cô Tô, Phú Quốc), tu hài (Cát Bà, Quảng Ninh), bào ngư (Bạch Long Vĩ), tôm hùm (Phú Yên, Khánh Hòa), ốc hương, sò điệp ... (ven biển miền Trung), cá cu (Đà Nẵng), cá giò, cá mú (Hải Phòng, Vũng Tàu, Côn Đảo)... Đồng thời, đẩy mạnh nghiên cứu, sản xuất thủy sinh vật cảnh để cung cấp cho thị trường trong nước, du lịch và tiến tới xuất khẩu.

Tổ chức các mô hình nuôi biển phù hợp như: mô hình quần dân kết hợp nuôi biển ven các đảo và quần đảo Trường Sa, Đá Tây, Bạch Long Vĩ, Cô Tô; mô hình đầu tư tư nhân; mô hình liên doanh, liên kết giữa các thành phần kinh tế.

Áp dụng các tiêu chuẩn kỹ thuật và công nghệ tiên tiến, công nghệ cao vào sản xuất giống, tập trung nguồn lực để tạo nguồn giống sạch bệnh, trước hết đối với tôm sú, tôm chân trắng và cá tra.

Tăng cường quản lý nhà nước để quản lý nghiêm ngặt chất lượng con giống, hệ thống sản xuất, lưu thông, tiêu thụ giống thủy sản. Tiếp tục tập trung đầu tư cho các Trung tâm quốc gia giống thủy sản, các trung tâm giống thủy sản cấp I và vùng sản xuất giống tập trung ở Nam Trung bộ.

c) Chế biến và tiêu thụ sản phẩm thủy sản

Rà soát lại quy hoạch các nhà máy chế biến thủy sản xuất khẩu, gắn kết chặt chẽ các cơ sở chế biến với vùng sản xuất nguyên liệu và cơ sở dịch vụ hậu cần (các cảng cá, bến cá).

Đẩy mạnh phát triển theo chiều sâu và đa dạng hóa sản phẩm

chế biến, tăng tỷ lệ giá trị gia tăng trong mỗi sản phẩm thủy sản.

Giữ vững thị phần trên các thị trường lớn (EU, Nhật, Hoa Kỳ, Nga...), đồng thời không ngừng mở rộng thị trường để tăng thị phần trên các thị trường tiềm năng khác (Trung Quốc, Hàn Quốc, Trung Đông, Canada, Úc, các nước Đông Âu, Trung Mỹ và Nam Mỹ, ...). Bên cạnh đó, củng cố và phát triển chế biến thủy sản nội địa, mở rộng thị trường trong nước trên cơ sở đa dạng hóa các sản phẩm để phù hợp với thị hiếu tiêu dùng của người Việt Nam.

Tổ chức sản xuất thủy sản liên hoàn theo chuỗi giá trị sản phẩm. Thực hiện việc truy xuất nguồn gốc và xây dựng thương hiệu các sản phẩm thủy sản, nhất là các sản phẩm có lợi thế cạnh tranh cao của Việt Nam. Hình thành hệ thống kênh phân phối sản phẩm thủy sản trong và ngoài nước.

Tổ chức lại sản xuất, xây dựng mối quan hệ liên kết, chia sẻ lợi ích giữa các doanh nghiệp, người sản xuất, nhà khoa học nhằm tạo môi trường thuận lợi nâng cao hiệu quả sản xuất. Đặc biệt chú trọng việc quy hoạch, tổ chức lại các cơ sở chế biến thức ăn, chế phẩm sinh học, thuốc thú y phục vụ nuôi trồng thủy sản,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an toàn vệ sinh thực phẩm, bảo đảm hài hòa lợi ích giữa các công đoạn trong chuỗi giá trị của quá trình sản xuất thủy sản, đồng thời tạo sự công bằng giữa các thành phần kinh tế và giữa các lực lượng lao động tham gia sản xuất thủy sản.

d) Cơ khí đóng sửa tàu thuyền và dịch vụ hậu cần nghề cá

Tập trung đầu tư củng cố phát triển đồng bộ công nghiệp cơ

khí, đóng, sửa tàu cá; sản xuất phụ trợ gắn với xây dựng cơ sở hạ tầng dịch vụ hậu cần phục vụ khai thác, nuôi trồng và chế biến thủy sản.

Ưu tiên đầu tư phát triển cơ sở hạ tầng và dịch vụ hậu cần đồng bộ trên biển, các vùng hải đảo, những vùng sản xuất tập trung ở Vịnh Bắc bộ, đồng bằng sông Hồng, Bắc, Nam Trung bộ, Đông Nam bộ,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Tây Nam bộ.

Đẩy mạnh nghiên cứu ứng dụng công nghệ tiên tiến vào sản xuất vỏ tàu, máy tàu, ngư cụ; thiết bị thông tin, các công cụ, thiết bị phục vụ nuôi trồng, chế biến và dịch vụ nghề cá.

(2) Định hướng phát triển theo vùng

a) Vùng đồng bằng sông Hồng

Phát triển nuôi công nghiệp ở những khu vực có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đồng thời phát huy nghề cá nước ngọt, nước lợ truyền thống. Duy trì, ổn định quy mô diện tích nuôi nước ngọt, nước lợ.

Phát huy lợi thế vùng đồng bằng, vùng bãi bồi để xây dựng các mô hình nuôi hữu cơ (nuôi sinh thái). Kết hợp mô hình nuôi theo hộ gia đình, tổ hợp tác, hợp tác xã với mô hình nuôi quy mô trang trại. Phát triển nuôi biển ở vùng biển đảo Cát Bà và Bạch Long Vĩ, nhuyễn thể hai mảnh vỏ ở ven biển của các tỉnh. Đầu tư để củng cố duy trì, phát triển vùng chuyên canh trồng rau câu và phát triển nghề nuôi thủy sinh vật cảnh, đặc biệt cá cảnh biển gắn với du lịch và xuất khẩu.

Đối tượng nuôi trồng chính của vùng là các loài cá nước ngọt truyền thống, thủy đặc sản nước ngọt, cá rô phi, nhuyễn thể, tôm biển, rong biển, cua biển, cá biển, ...

Chuyển dịch mạnh hoạt động khai thác gần bờ ra xa bờ. Khẩn trương chuyển một bộ phận lớn lao động khai thác hải sản ven bờ sang hoạt động các ngành nghề khác như du lịch, nuôi trồng thủy sản, ... Đối mới cơ cấu đội tàu khai thác, nghề khai thác (giảm nghề lưới kéo, tăng nghề vây, rê, câu khơi ...), chuyển đổi loại hình vỏ tàu từ gỗ sang vỏ thép và các loại vật liệu mới khác. Đào tạo nghề cho ngư dân, thuyền trưởng, máy trưởng đủ năng lực hoạt động dài ngày trên biển. Ngư trường khai thác chính ở Bạch Long Vĩ và di chuyển ra vùng biển Nam Vịnh Bắc bộ và giữa Biển Đông, gắn hoạt động khai thác hải sản với bảo vệ an ninh quốc phòng vùng biển.

Đầu tư nâng cấp hệ thống nhà máy chế biến thủy sản, các cơ sở công nghiệp cơ khí đóng, sửa tàu cá, các cơ sở hạ tầng hậu cần dịch vụ, hình thành Trung tâm dịch vụ hậu cần nghề cá đồng bộ ven biển tại Hải Phòng - Cát Bà - Bạch Long Vĩ phục vụ cho hoạt động thủy sản trong vùng. Bảo tồn, phát triển thương hiệu nước mắm Cát Hải và xây dựng các làng nghề, làng cá ven biển văn minh, giàu bản sắc nghề cá nước ta.

Xây dựng, phát triển các khu bảo tồn biển và nội địa. Đầu tư nâng cấp trường Cao đẳng thủy sản thành trường Đại học thủy sản tại Hải Phòng.

b) Bắc Trung bộ và duyên hải miền Trung

Tiếp tục duy trì phát triển nuôi trồng thủy sản nước lợ khu vực cửa sông, ven biển, đầm phá phục vụ xuất khẩu và tiêu dùng nội địa. Khai thác tiềm năng mặt nước hồ chứa để phát triển nuôi thủy sản tạo nguồn thực phẩm phục vụ nội địa, tạo việc làm, tăng thu nhập, góp phần xóa đói giảm nghèo cho dân cư trung du, miền núi. Đầu tư phát triển nghề nuôi biển khu vực ven biển và ven các hải đảo. Tiếp tục đầu tư xây dựng các cơ sở sản xuất giống hải sản tại các tỉnh Nam Trung bộ để đến năm 2020 Nam Trung bộ trở thành trung tâm sản xuất giống hải sản tập trung lớn nhất của cả nước và khu vực Đông Nam Á. Đối tượng nuôi chủ lực là tôm sú, tôm chân trắng, nhuyễn thể, các loài cá biển, trồng rau câu tập trung chuyên canh trên các đầm phá. Phát triển nuôi các đối tượng có tiềm năng như cá song, cá giò, cá hồng, bào ngư, vẹm xanh, rong biển, ...

Nghiên cứu và sản xuất sinh vật cảnh phục vụ du lịch và xuất khẩu tại các tỉnh Nam miền Trung.

Chuyển đổi cơ cấu nghề khai thác phù hợp với điều kiện tự nhiên, nguồn lợi hải sản vùng Biển Đông. Chuyển mạnh tàu thuyền khai thác ven bờ sang khai thác hải sản xa bờ và hợp tác khai thác hải sản trên vùng biển viễn dương đối với các nước ASEAN (Brunei, Indonesia, Malaysia), chuyển một bộ phận lao động khai thác hải sản ven bờ sang hoạt động các ngành nghề khác như du lịch, nuôi trồng thủy sản, ...

Sắp xếp lại, đầu tư nâng cấp các cơ sở đào tạo nghiên cứu

thủy sản khu vực miền Trung để tạo động lực vươn ra biển.

Xây dựng các mô hình khai thác, dịch vụ hậu cần khai thác, dịch vụ công ích phù hợp với các ngư trường xa bờ.

Xây dựng, phát triển các khu bảo tồn biển và nội địa để bảo vệ, tái tạo, phát triển nguồn lợi thủy sản, bảo vệ môi trường các hệ sinh thái thủy sinh.

Rà soát quy hoạch các nhà máy chế biến đông lạnh xuất khẩu, các cơ sở chế biến tiêu thụ nội địa, tăng cường quản lý chất lượng chế biến; khôi phục và phát triển thương hiệu và làng nghề nước mắm Phan Thiết. Đầu tư cơ sở vật chất hậu cần dịch vụ, công nghiệp cơ khí đóng, sửa tàu thuyền, sản xuất ngư lưới cụ, hình thành các trung tâm dịch vụ hậu cần nghề cá lớn (Đà Nẵng, Quy Nhơn, Khánh Hòa, Bình Thuận), xem xét nâng cấp và đầu tư một số cảng cá loại I thành cảng cá quốc tế sau năm 2012 để phục vụ hoạt động thủy sản và hội nhập với nghề cá các nước trong khu vực và thế giới. Đầu tư xây dựng các tàu chế biến, hậu cần dịch vụ phục vụ nghề câu cá ngư đại dương để nâng cao hiệu quả khai thác và chất lượng sản phẩm cá ngư đại dương. Tập trung xây dựng thương hiệu cá ngư đại dương Việt Nam.

c) Vùng Đông Nam bộ

Phát triển nuôi hải sản trên biển, ven biển, ven đảo. Đối tượng nuôi: cá biển, tôm sú, tôm chân trắng, nhuyễn thể, các loài thủy đặc sản phục vụ du lịch, xuất khẩu và tiêu dùng tại chỗ.

Tiếp tục khai thác sử dụng các mặt nước hồ chứa đưa vào nuôi

thủy sản. Duy trì các mô hình nuôi hữu cơ (sinh thái) vùng ven biển, rừng ngập mặn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à tỉnh Bà Rịa - Vũng Tàu.

Phát triển nuôi cá cảnh theo hướng sản xuất hàng hóa phục vụ du lịch và xuất khẩu. Xây dựng, phát triển các khu bảo tồn biển và nội địa để bảo vệ môi trường các hệ sinh thái thủy sinh.

Duy trì và nâng cấp đội tàu khai thác xa bờ kết hợp với việc chuyển đổi cơ cấu thuyền nghề, giảm nghề lưới kéo chuyển sang vây di động, câu khơi. Ngư trường khai thác chính là vùng biển Đông Nam bộ, Biển Đông và hợp tác khai thác viễn dương với các nước ASEAN.

Rà soát quy hoạch các nhà máy chế biến thủy sản, hình thành các trung tâm, cơ sở hậu cần dịch vụ, kho ngoại quan phục vụ chế biến thủy sản xuất khẩu. Đầu tư xây dựng cơ sở hạ tầng, hình thành các trung tâm dịch vụ hậu cần phục vụ phát triển thủy sản trong vùng và hỗ trợ cho phát triển thủy sản vùng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cơ sở hạ tầng phục vụ khai thác hải sản tại Vũng Tàu, Côn Đảo, cơ sở hậu cần dịch vụ chế biến thủy sản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tỉnh Bình Dương, trung tâm thương mại thủy sản tại thành phố Hồ Chí Minh, ...).

d) Vùng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Tiếp tục phát triển mạnh nuôi trồng thủy sản theo chiều sâu. Chuyển một phần diện tích nuôi thủy sản quảng canh sang bán thâm canh, thâm canh quy mô công nghiệp ở những nơi có điều

kiện thuận lợi. Áp dụng các công nghệ, mô hình nuôi tiên tiến, tiêu chuẩn mới (GAP, BMP, CoC) gắn với bảo vệ môi trường sinh thái. Trước mắt, tập trung áp dụng và nhân rộng tiêu chuẩn GlobalGAP đối với công nghiệp sản xuất cá tra. Phát triển các mô hình nuôi trên biển và ven các đảo. Đối tượng nuôi chủ lực là tôm sú, cá tra, basa, tôm chân trắng, cá rô phi, nhuyễn thể, cá biển, tôm càng xanh, cá thác lác, cá bống tượng và các loài thủy sản đặc thù, bản địa của 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

Duy trì trên diện tích lớn nghề nuôi thủy sản hữu cơ (nuôi sinh thái) vùng rừng ngập mặn U Minh (Cà Mau, Kiên Giang).

Xây dựng trường đại học thủy sản, đồng thời nâng cấp, xây dựng mới các cơ sở nghiên cứu thủy sản, trong đó có cơ sở nghiên cứu cá tra và tôm.

Chuyển đổi cơ cấu tàu thuyền nghề khai thác hải sản, chuyển một bộ phận tàu thuyền khai thác ven bờ sang hoạt động xa bờ và các ngành kinh tế khác. Đầu tư nâng cấp đội tàu khai thác xa bờ. Ngưng trường khai thác ở biển Tây Nam bộ, một phần Đông Nam bộ và hợp tác khai thác trên các vùng biển chung.

Duy trì các nghề khai thác thủy sản nội địa hợp lý gắn với bảo vệ môi trường, bảo vệ, tái tạo, phát triển nguồn lợi thủy sản.

Xây dựng, phát triển các khu bảo tồn biển, bảo tồn nội địa để bảo vệ môi trường và các hệ sinh thái thủy sinh. Bảo tồn, phát triển làng nghề, thương hiệu nước mắm Phú Quốc gắn với phát triển du lịch sinh thái biển ở đảo Phú Quốc.

Rà soát hệ thống các nhà máy chế biến thủy sản gắn với vùng nguyên liệu tập trung. Chú trọng đối với 2 sản phẩm chủ lực có sản lượng lớn là tôm và cá tra. Đầu tư nâng cấp các trung tâm dịch vụ hậu cần nghề cá, các cơ sở cơ khí đóng, sửa tàu cá tại Kiên Giang, Cà Mau, Tiền Giang, Bến Tre và trên các đảo.

e) Vùng miền núi, trung du phía Bắc và Tây Nguyên

Phát triển nuôi thủy sản hồ chứa và trên các vùng nước ven sông, suối gắn với bảo tồn và phát triển nguồn lợi thủy sản, góp phần xóa đói giảm nghèo và cung cấp thực phẩm cho người dân. Đối tượng nuôi chính là các giống loài thủy sản truyền thống: cá, tôm nước ngọt và các loài thủy đặc sản như baba, lươn, ếch, ... Đầu tư nghiên cứu và phát triển nuôi một số đối tượng cá nước lạnh như cá hồi, cá tầm phục vụ du lịch và cung cấp cho thị trường nội địa.

Xây dựng, phát triển một số khu bảo tồn nội địa nhằm bảo vệ, tái tạo, phát triển các loài thủy sản bản địa quý hiếm, nguồn lợi thủy sản.

Bổ sung kiện toàn hệ thống tổ chức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thủy sản ở các địa phương và đầu tư xây dựng hoàn thiện các cơ sở sản xuất, nhân giống, công tác khuyến ngư góp phần xóa đói giảm nghèo, nâng cao đời sống của ngư dân.

PHẦN II. HIỆN TRẠNG, TIỀM NĂNG CHẾ BIẾN, XUẤT KHẨU THỦY SẢN Ở VIỆT NAM

Chế biến thủy sản tiêu thụ nội địa có tốc độ tăng trưởng tương đối nhanh trong giai đoạn 2013-2017 về sản lượng cũng như giá trị. Các sản phẩm thủy sản chế biến hết sức phong phú và có thể chia thành các nhóm: thủy sản đông lạnh, thủy sản khô, đồ hộp và nước mắm. Các cơ sở CBND được phân bố chủ yếu ở các tỉnh, thành phố ven biển và ở các thành phố lớn. Trong số các cơ sở CBXK cũng có nhiều cơ sở tham gia cả CBND.

1) Cơ cấu sản lượng và giá trị sản phẩm thủy sản CBND

Trong giai đoạn 2013-2017, sản lượng các sản phẩm thủy sản CBND tăng lên từ 478 ngàn tấn lên đến 548 ngàn tấn vào năm 2017, đạt TĐTTBQ 5,5%/năm. Về giá trị, CBND tăng từ 13.146 tỷ đồng lên đến 20.321 tỷ đồng, đạt TĐTBQ 13,00%/năm. Sự gia tăng nhanh về giá trị so với sản lượng là do các sản phẩm thủy sản CBND ngày càng đa dạng về chủng loại, chất lượng ngày một được nâng cao, đồng thời còn do xu thế giá các mặt hàng thủy sản cũng không ngừng tăng cao .

Theo cơ cấu tỷ trọng giá trị các sản phẩm thủy sản tiêu thụ nội địa toàn quốc năm 2017, thủy sản đông lạnh chiếm tỷ trọng cao nhất là 36.7%, theo sau là nước mắm 23,7%, mực khô 10,6%, cá khô 10,4%, tôm khô 7,0% mắm các loại 6,0%, các sản phẩm khác 4,0%, đồ hộp 1,60%.

(Nguồn: Báo cáo của 36 Sở NN&PTNT, 2017)

STT	Loại hình cơ sở	Số lượng	Tỷ lệ (%)
I	Doanh nghiệp	140	100,0
	Nước mắm	59	42,1
	Mắm các loại	4	2,9
	Thủy sản khô	3	2,1
	Bột cá	9	6,4
	Đồ hộp	15	10,7
	Thủy sản đông lạnh	33	23,6
	Thu mua, sơ chế	17	12,1
II	Cơ sở quy mô hộ gia đình	3.838	100,0
	Nước mắm	1.481	38,6
	Mắm các loại	441	11,5
	Thủy sản khô	838	21,8
	Bột cá	41	1,1
	Thủy sản đông lạnh	70	1,8
	Thu mua, sơ chế	967	25,2

Như vậy xét theo cơ cấu sản phẩm CBND năm 2017: thủy sản đông lạnh là nhóm sản phẩm quan trọng nhất, tiếp đó là nước mắm, mực khô, cá khô, tôm khô, mắm các loại, các sản phẩm khác và sau cùng là đồ hộp. Tuy nhiên, diễn biến sản lượng và giá trị của các nhóm sản phẩm đều đang ở xu thế chững lại hoặc đi xuống; trừ thủy sản đông lạnh, tôm khô và các loại sản phẩm khác là 3 nhóm sản phẩm có xu thế tăng trưởng tốt trong toàn giai đoạn do sự gia tăng nguồn nguyên liệu từ nuôi trồng là tôm, cá tra.

2) Năng lực chế biến thủy sản tiêu thụ nội địa

Theo số liệu điều tra, các cơ sở CBTS tiêu thụ nội địa trên cả

nước tồn tại dưới 2 dạng: doanh nghiệp tư nhân và quy mô hộ gia đình.

Theo thống kê của các Sở NN&PTNT 36 tỉnh thành phố, năm 2017, toàn quốc có 140 doanh nghiệp và 3.838 cơ sở/hộ gia đình tham gia CBTS tiêu thụ nội địa. Số cơ sở chế biến nước mắm là nhiều nhất gồm 59 DN và 1.441 cơ sở quy mô hộ gia đình, chiếm tương ứng tỷ lệ là 42,1% và 38,6% so với tổng số các DN và hộ CBND toàn quốc. Chế biến nước mắm từ lâu nay vẫn mang tính truyền thống, chủ yếu tập trung ở 2 vùng có sản lượng lớn là BTB&DHMT (Nha Trang, Cam Ranh -Khánh Hòa và Phan Thiết-Bình Thuận) và vùng ĐBSCL (Phú Quốc, Rạch Giá- Kiên Giang). Đây là những địa phương có sản phẩm khá nổi tiếng trong nước, riêng nước mắm Phú Quốc đã nổi tiếng trên toàn thế giới. Tuy nhiên, gần đây trên thị trường xuất hiện vài công ty lớn đã tung ra thị trường loại nước mắm được pha chế từ nguồn nước mắm truyền thống, trên cơ sở pha loãng để giảm độ muối, bổ sung hương liệu, phẩm màu, phụ gia bảo quản và chất điều vị để tạo cảm giác ngọt dịu, mùi nhẹ. Với kỹ năng quảng bá và hệ thống phân phối tốt, sản phẩm này đã và đang đẩy lùi thị phần của các sản phẩm nước mắm truyền thống trên thị trường nội địa, trong khi người tiêu dùng chưa có được kiến thức cần thiết để quyết định lựa chọn tiêu dùng các sản phẩm dạng này.

(1) Bảng. Hiện trạng các cơ sở chế biến thủy sản tiêu thụ nội địa

(Nguồn: Báo cáo của 36 Sở NN&PTNT, 2017)

Kết quả điều tra cho thấy, các cơ sở chế biến nước mắm thường có kèm theo chế biến mắm các loại và ngược lại, cơ sở chế biến chuyên mắm tôm, mắm cá các loại cũng có chế biến nước mắm. Bên cạnh số cơ sở chế biến nước mắm (cả DN và hộ gia đình) nêu trên, còn có 4 DN (chiếm 2,9% số DN CBND) và 441 hộ chế biến (chiếm 11,5% số hộ CBND) mắm các loại. Quy mô sản lượng của DN thường từ vài trăm ngàn lít đến hàng chục triệu lít nước mắm/năm, quy mô hộ gia đình thường từ vài ngàn đến vài trăm ngàn lít/năm.

Số cơ sở CBND thủy sản đông lạnh gồm 33 doanh nghiệp và 70 cơ sở, chiếm tỷ trọng tương ứng 23,6% và 1,1%. Một số DN không chỉ CBND mà còn là cơ sở chế biến cấp đông nguyên liệu cung cấp cho các nhà máy CBXK. Ngược lại, một số doanh nghiệp CBXK, nhưng lại chế biến thêm các phụ phẩm và các sản phẩm không đạt tiêu chuẩn XK để đưa sang thị nội địa, hoặc có hẳn riêng phân xưởng CBND. Bên cạnh đó có một số doanh nghiệp quy mô công nghiệp thuộc các vùng ĐBSH, BTB&DHMT do không đủ điều kiện CBXK đã tập trung CBND. Một số hộ chế biến ở các vùng ven biển, nơi gần các cảng cá bến cá, từ thu mua thủy sản đã chuyển sang cấp đông để dự trữ cho tiêu thụ nội địa.

Các cơ thu mua, sơ chế: Hiện có 17 doanh nghiệp và 967 cơ sở quy mô hộ gia đình, tương ứng chiếm 12,1% và 25,2% so với tổng các DN và cơ sở quy mô hộ gia đình, tham gia thu mua nguyên liệu của các tàu khai thác, các chủ nuôi tôm và cá, sau

đó phân phối lại cho các cơ sở sản xuất. Trang thiết bị của cơ sở còn khá đơn giản chỉ là các thùng cách nhiệt, cân, kệ, máy xay đá...Hiện tại hệ thống này vẫn đóng vai trò quan trọng trong khâu điều hòa nguyên liệu cho CBXX, CBNĐ và tiêu thụ tươi sống, đồng thời cấp vốn (thông qua cấp dầu, thực phẩm, ngư lưới cụ cho các tàu cá) để thu mua hải sản của các tàu, cũng như thu mua tôm của các hộ nuôi nhỏ lẻ; tiến hành phân loại để cung cấp cho các đầu mối tiêu thụ kể trên. Bên cạnh mặt tích cực, đây cũng là khâu yếu nhất về đảm bảo chất lượng VSATTP, cả về điều kiện sản xuất và ý thức chấp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luật pháp.

Số cơ sở chế biến hàng khô tiêu thụ nội địa cả nước theo điều tra có 3 doanh nghiệp (chiếm 2,3% so với tổng số DN CBNĐ) và 838 cơ sở (chiếm 21,8% so với tổng số cơ sở CBTS) chủ yếu ở quy mô hộ gia đình, được phân bố xung quanh các cảng cá, bến cá. Các cơ sở chế biến cá khô hấp sử dụng lò luộc/ hấp bằng củi, than. Điều kiện xử lý cá, ướp muối, rửa và hấp cá không đảm bảo vệ sinh, không xử lý nước thải trước khi thải trực tiếp ra sông gây ô nhiễm môi trường trầm trọng. Có một số nơi cá khô được phơi ngay trên nền đất, dọc đường đi lại trong thôn xóm hoặc trên các vũng sinh lầy, không có biện pháp che chắn ruồi, nhặng mà dùng thuốc phun diệt ruồi phun trực tiếp lên sản phẩm, rất độc hại ảnh hưởng đến sức khỏe người tiêu dùng. Đa số các cơ sở này chưa đảm bảo tiêu chuẩn vệ sinh môi trường, gây mùi hôi cho khu dân cư.

Kết quả điều tra cho thấy có 9 DN và 41 cơ sở chế biến bột cá. Các cơ sở chế biến bột cá chủ yếu đóng tại các địa phương có cảng cá nằm gần ngư trường đánh bắt của các vùng như: Hải Phòng, Nam Định, Thái Bình, Thanh Hóa, Bà Rịa Vũng Tàu, Tiền Giang, Kiên Giang, Cà Mau. Riêng nội đồng vùng ĐBSCL có các DN chế biến cá tra phi lê đông lạnh XK, kèm theo các nhà máy chế biến phi lê cá tra là các phân xưởng chế biến bột cá, cùng với các cơ sở chế biến mỡ cá. Loại hình cơ sở này hiện đang tập trung ở tỉnh có chế biến cá tra phi lê đông lạnh như: An Giang, Đồng Tháp, Cần Thơ, Hậu Giang, Trà Vinh, Vĩnh Long, Bến Tre.

Số cơ sở chế biến đồ hộp thủy sản: có 17 cơ sở chế biến đồ hộp với công suất 60 ngàn tấn /năm vào năm 2017. Về số lượng cơ sở và công suất tuy tăng không đáng kể, nhưng trình độ công nghệ sản xuất của các nhà máy đã được nâng lên đáp ứng yêu cầu ngày càng cao của người tiêu dùng hiện nay./.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부문 전망모형 「KMI-FOSIM」 구축연구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국내 가두리 양식장 어장환경개선 방안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 해양사고조사체계 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구축방안 연구	고병욱
12	해운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니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 함수 추정 및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박한선
18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진출 사례 분석 및 추진전략	이기열

2017년

01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대영
02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03	해양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장정인
04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최지연
05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6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박상우
07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08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	임경희
0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10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 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11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박한선
12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고병욱
13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이기열
14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 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김은수
15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하역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형모
16	지진에 대비한 항만기능 유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김우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03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4	해양생태도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박수진
05	국내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안용성
06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항만배후단지내 FTZ활성화 방안연구	조지성
07	최저임금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8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수립 및 사회적 경제 도입방안 연구	류정근

2017년

01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물류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박용안
02	해양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홍장원
03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황진희

04	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5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장홍석
06	한·중·일 신선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7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8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 갯벌어업 패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09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홍현표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미안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연구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 ASC인증을 중심으로 -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행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2017년

01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방향	전형진
02	한투발루 협력 증진을 위한 참다량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창모
03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이연경
04	해외 진출 무역업체의 한국인 포워드 수요 추정 연구	신수용
05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박한선
06	부산 영도구·중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 한진중공업·자갈치시장 사례 중심 -	최나영환
07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이현동
08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국 해운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고병욱
09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 부산 원도심 및 영도지역 사례 분석 -	최지연
10	갯벌 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모형 개발 방향	육근형
11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찬호
12	전자상거래 기반 상업항 개발전략	최상희
13	항만 내 여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광석
14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과 부산항 신항 환적 운영 개선 방향 연구	김은수
15	PA관할 항만 항계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분담기준 마련	김근섭
16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정명화
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현대송
18	부산항 신항 혼합형 전용터미널(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근섭
19	해양경비 여건 분석과 역량 강화 방안	윤성순
20	바닷모래의 이용실태와 관리 개선방향	윤성순
21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사례 및 시사점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황진희
22	한국 컨테이너선대 육성의 필요성	김태일
23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한광석
24	우리나라 항만산업 고용통계 조사 연구	하태영
25	뉴질랜드·노르웨이의 양식 수산물 수출 전략	임경희
26	빅데이터 적용 해운항만산업 연구분석 우선순위 연구	최종희
27	해양수산 생명자원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28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임경희
29	도시-어촌 상생협력 인식도 조사	이상철
30	크루즈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책과제	황진희
31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김태일
32	우리나라의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이기열
33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강화에 따른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심기섭
3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박광서
35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방안	안용성
36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홍장원
37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 방안	김경신
3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평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신수용
39	2018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40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박상우
41	4차 산업혁명시대 항만물류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이연경
42	원양어선 승무 선원의 스트레스 분석에 관한 연구	이승우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 경제특구 발전 방향	박성준
44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기초정보 개선 연구	정지호
45	세계경영을 위한 해외 터미널 및 물류시설 투자방안	박주동
46	연안 소규모 하·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원근
47	거대선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 방향	전형진
48	해양법 관련 최근 판례 및 동향 분석 - 남중국해 분쟁 등 해양법 판례 중심 -	최지현
49	화주 관점의 항만배후단지 역할 제고 방향	김은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동향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신남방정책 이행 위한 우리나라-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인 쇄 | 2018년 12월 29일 인쇄

발 행 | 2018년 12월 31일 발행

발 행 인 | 양 창 호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6,000원